2021 교리와 성약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고 가르침

2021 교리와 성약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고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 2020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버전: 11/18
*Come, Follow Me—For Individuals and Families: Doctrine and Covenants 2021*의 번역
Korean
16587 320
Printed in Korea
의견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서 ComeFollowMe@ChurchofJesusChrist.org로 보내 주십시오.

목차

소개 자료

우리의 목표는 개심이다 vi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활용하기 vii
개인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viii
가족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x
추가 자료 xiv
12월 28일~1월 3일: 교리와 성약 1편 1
1월 4일~10일: 조셉 스미스—역사 1:1~26 5
회복의 소리: 조셉 스미스의 가족 7
1월 11일~17일: 교리와 성약 2편; 조셉 스미스—역사 1:27~65 10
1월 18일~24일: 교리와 성약 3~5편 14
1월 25일~31일: 교리와 성약 6~9편 18
회복의 소리: 몰몬경 번역 20
2월 1일~7일: 교리와 성약 10~11편 23
2월 8일~14일: 교리와 성약 12~13편; 조셉 스미스—역사 1:66~75 27
2월 15일~21일: 교리와 성약 14~17편 31
회복의 소리: 루시 맥 스미스와 세 증인과 여덟 증인 33
2월 22일~28일: 교리와 성약 18~19편 36
3월 1일~7일: 교리와 성약 20~22편 40
3월 8일~14일: 교리와 성약 23~26편 44
회복의 소리: 에머 헤일 스미스 46
3월 15일~21일: 교리와 성약 27~28편 49
3월 22일~28일: 교리와 성약 29편 53
3월 29일~4월 4일: 부활절 57
4월 5일~11일: 교리와 성약 30~36편 61
회복의 소리: 초기 개종자들 63
4월 12일~18일: 교리와 성약 37~40편 67
회복의 소리: 오하이오로 집합하다 69
4월 19일~25일: 교리와 성약 41~44편 72
4월 26일~5월 2일: 교리와 성약 45편 76
5월 3일~9일: 교리와 성약 46~48편 80
5월 10일~16일: 교리와 성약 49~50편 84
5월 17일~23일: 교리와 성약 51~57편 88
5월 24일~30일: 교리와 성약 58~59편 92
5월 31일~6월 6일: 교리와 성약 60~62편 96

6월 7일~13일: 교리와 성약 63편 100
6월 14일~20일: 교리와 성약 64~66편 104
6월 21일~27일: 교리와 성약 67~70편 108
6월 28일~7월 4일: 교리와 성약 71~75편 112
7월 5일~11일: 교리와 성약 76편. 116
회복의 소리: "시현"에 대한 간증들 118
7월 12일~18일: 교리와 성약 77~80편 121
7월 19일~25일: 교리와 성약 81~83편 125
7월 26일~8월 1일: 교리와 성약 84편. 129
8월 2일~8일: 교리와 성약 85~87편. 133
8월 9일~15일: 교리와 성약 88편 137
8월 16일~22일: 교리와 성약 89~92편 141
8월 23일~29일: 교리와 성약 93편 145
8월 30일~9월 5일: 교리와 성약 94~97편 149
9월 6일~12일: 교리와 성약 98~101편 153
9월 13일~19일: 교리와 성약 102~105편 157
회복의 소리: 시온 진영 159
9월 20일~26일: 교리와 성약 106~108편. 162
9월 27일~10월 3일: 교리와 성약 109~110편 166
회복의 소리: 영적인 나타내심과 커틀랜드 성전 168
10월 4일~10일: 교리와 성약 111~114편 171
10월 11일~17일: 교리와 성약 115~120편 175
10월 18일~24일: 교리와 성약 121~123편 179
회복의 소리: 리버티 감옥 181
10월 25일~31일: 교리와 성약 124편 184
회복의 소리: 상호부조회 186
11월 1일~7일: 교리와 성약 125~128편. 189
회복의 소리: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교리" 191
11월 8일~14일: 교리와 성약 129~132편 194
11월 15일~21일: 교리와 성약 133~134편 198
11월 22일~28일: 교리와 성약 135~136편 202
11월 29일~12월 5일: 교리와 성약 137~138편. 206
12월 6일~12일: 신앙개조 및 공식선언—1, 2 210
12월 13일~19일: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214
12월 20일~26일: 성탄절. 218
부록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세상에 전하는 200주년 선언문. 222

우리의 목표는 개심이다

모든 복음 학습 및 가르침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게 돌이키고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는 그저 새로운 정보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한다.(고린도후서 5:17) 즉, 우리의 마음, 견해, 행동, 본성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얻고자 그분들께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신앙을 강화하고 개심이라는 기적으로 이어질 만한 복음 학습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학습은 교실을 넘어 개개인의 마음과 가정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하고자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 일을 홀로 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개심을 돕기 위해 성신을 보내 주실 것이다.

성신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그 진리를 증거한다.(요한복음 16:13 참조) 성신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이해력을 키워 주며,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계시로 우리를 감동하게 한다. 성신은 우리 마음을 정화한다. 성신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따라 생활하려는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방법을 속삭여 준다. 참으로, "성령[은] …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요한복음 14:26)

그러므로 복음을 실천하고 배우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성신의 동반을 구해야 한다. 이 목표가 우리의 선택을 주관하고,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야 한다. 영을 초대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고, 그 영향력을 몰아내는 것은 무엇이든 거절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성신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살기에도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활용하기

이 자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자료는 교회의 모든 개인과 가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복음을 공부할 때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고안된 자료이다. 지금까지 복음을 정기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자료와 함께 복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복음을 공부하는 좋은 습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은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면 된다.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를 위한 참고 자료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가정의 밤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실린 개요는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고, 다양한 학습 아이디어와 개인 및 가족을 위한 활동을 제안하며, 여러분의 느낌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 역할도 한다.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대체하거나 그것들과 우위를 가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영의 인도를 따라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지 결정한다.

이 자료는 교회의 교과 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이 자료의 개요는 주간 읽기 일정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와 『와서 나를 따르라—주일학교』는 똑같은 일정을 따른다.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의 교사들은 주중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공부했던 경전 구절과 관련된 경험과 생각, 질문들을 나눌 기회를 줄 것이다.

주일학교는 한 달에 두 번만 가르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간 일정에 뒤처지지 않도록 개요를 건너뛰거나 통합해서 가르칠 것이다. 스테이크 대회 등의 이유로 교회의 정규 모임을 하지 않는 주에도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주에도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교리와 성약을 공부한다.

자료에 나오는 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정해진 일정을 따르면, 여러분은 연말까지 교리와 성약을 모두 읽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일정을 따름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다른 모든 곳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일정에 얽매이거나 모든 구절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일정은 여러분이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복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개인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경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해 본다.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경전을 이해하려면 그분께 도움을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찾아본다

경전은 만물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가르친다.(니파이후서 11:4; 모세서 6:63 참조) 그러므로 구주를 증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주며, 그분을 따르는 방법을 알려 주는 구절에 기록하거나 표시해 본다.

영감을 주는 단어와 문구를 찾는다

경전에 있는 특정 단어와 문구가 마치 자신을 위해 쓰인 것 같다고 느끼며 감동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단어와 문구에서 개인적인 연관성을 느낄 수도 있고, 영감과 동기 부여를 받을 수도 있다. 그것들을 경전에 표시하거나 학습 일지에 적어 둘 수 있다.

복음 진리를 찾는다

(흔히 교리 또는 원리로 불리는) 복음 진리는 직접 언급될 때도 있고, 예시나 일화를 통해 암시될 때도 있다. 경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문해 본다. "이 구절에는 어떤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는가?"

영에 귀 기울인다

경전을 읽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이 있다면, 지금 읽고 있는 부분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한 느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배우기를 바라시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전을 자신의 삶에 비유한다

지금 읽고 있는 이야기와 가르침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다. "나는 지금 읽고 있는 부분과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해 보았던가?" 또는 "경전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범을 나는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공부하면서 스스로 질문한다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그중에는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나 자신의 삶 전반에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면서 답을 찾는다.

경전 학습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

현재 읽고 있는 경전 구절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각주와 경전 안내서(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및 기타 학습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

경전 구절의 문맥을 고려한다

우리는 경전 구절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문맥이란 그 구절이 기록된 상황이나 배경을 포함한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배경과 믿음을 알면, 그 말씀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과 느낌을 기록한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느낌을 여러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경전에서 의미 있는 단어나 어구에 표시하고 경전에 짧게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공부하면서 얻은 깨달음, 느낌, 영감을 일지에 적을 수도 있다.

후기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공부한다

여러분이 경전에서 찾은 원리에 대해 후기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지 읽어 본다.(예를 들어, conference.ChurchofJesusChrist.org와 교회 잡지들을 참고한다.)

깨달은 점을 나눈다

개인 학습을 통해 깨달은 점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한 부분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배운 대로 생활한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영감을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경전을 읽으면서 영이 주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결심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헌신적인 제자가 되어 끝까지 용감하게 견디기 위해 알고 행해야 할 모든 것을 교회라는 조직에서 일일이 가르쳐 주고 일러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아는 대로 실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움과 삶과 성장을 위한 궁극적인 장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모든 필요한 것들을 얻도록 준비되어",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102쪽)

가족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규칙적인 가족 경전 공부는 가족이 복음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족이 함께 경전을 얼마나 많이 또는 오래 읽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는 것이다. 경전 공부가 가족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면, 가족들이 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간증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

- 가족들이 스스로 경전을 공부하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 가족들이 배운 것을 나누도록 격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일상에서 가족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순간들이 올 때, 교리와 성약에서 배운 원리들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까?

가정이 복음을 배우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임을 기억한다. 가정에서는 교회 공과에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 가족들이 경전에서 배우도록 돕는 방법들을 생각할 때, 창의력을 발휘한다.

활동 아이디어

가족 경전 공부를 향상하기 위해 다음 아이디어들을 고려해 본다.

음악을 활용한다

경전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강화해 주는 노래를 부른다. 각 개요에는 찬송가나 어린이 노래가 추천곡으로 실려 있다. 그러한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단어나 어구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족들은 노래에 맞추어 율동을 해 보거나, 이런 노래들을 배경 음악으로 들으며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의미 있는 성구를 나눈다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면서 의미 있게 느꼈던 성구들을 나누도록 시간을 마련한다.

자신의 말로 표현한다

가족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을 각자 요약해 보라고 한다.

경전을 삶에 적용한다

가족들에게 경전 한 구절을 읽은 후 그 구절을 각자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질문한다

가족들이 복음과 관련된 질문을 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구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

성구를 게시한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성구를 선택한 후, 집 안에서 가족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게시할 성구를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선택하게 한다.

성구 목록을 만든다

가족과 함께 다음 주에 토론하고 싶은 성구를 몇 가지 선택한다.

성구를 외운다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성구를 선택하고, 그 구절을 매일 반복해서 말하거나 암기 놀이 등을 통해 함께 외워 보자고 한다.

실물 공과를 한다

현재 가족이 함께 읽는 장이나 절과 관련된 물건을 찾는다. 가족들에게 그 물건이 경전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주제를 선택한다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공부할 주제를 선정해 보게 한다. 경전 안내서(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를 활용하여 그 주제에 관한 경전 구절을 찾아본다.

그림을 그린다

경전 구절 몇 개를 함께 읽고, 가족들이 읽은 내용과 관련된 것을 그림으로 그려 보도록 시간을 준다. 서로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연극으로 꾸민다

이야기 하나를 읽고, 함께 그 이야기를 연극으로 표현해 본다.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또 가족으로서 겪는 일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야기해 본다.

어린이 가르치기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다음 활동들을 참고한다.

노래를 부른다

『어린이 노래책』에 있는 찬송가와 노래는 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본 자료에는 개요마다 추천곡이 실려 있다.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 원리와 관련된 노래를 찾으려면 『어린이 노래책』 뒤쪽에 있는 주제별 색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어린 자녀들이 노래에 담긴 메시지를 자신의 삶과 연관짓도록 도와준다.

이야기를 듣거나 연극으로 꾸민다

어린아이들은 경전 이야기, 생활 속 일화, 교회 역사 이야기, 교회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 등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야기를 전하는 활동에 어린 자녀들을 참여시킬 다양한 방법을 찾아본다. 그들에게 이야기와 연관된 그림 또는 물건을 들고 있게 하거나,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보게 할 수 있다. 또한 연극을 꾸며 보거나, 직접 이야기를 해 보게 할 수도 있다. 자녀들이 이야기에 담긴 복음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경전을 읽는다

경전을 잘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경전에서 배우도록 경전 읽기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때로는 한 구절 또는 핵심 어구나 단어에 중점을 두어야 할 수도 있다.

그림이나 동영상을 활용한다

토론 중인 복음 원리에 관련된 그림이나 동영상에 관해 질문한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니? 이 일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니?"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복음 자료실 앱과 ChurchofJesusChrist.org에 있는 복음 미디어 자료실, 그리고 children.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그림과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만들어 본다

아이들은 자신이 배우는 이야기나 원리와 관련된 무언가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 볼 수 있다.

실물 공과에 참여하게 한다

간단한 실물 공과는 자녀가 어려운 복음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물 공과를 할 때 자녀의 참여를 유도할 방법을 찾아본다. 어린이들은 공과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참여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역할극을 한다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을 역할극으로 해 보면 복음 원리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활동을 반복한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전 이야기를 들려줄 때 몇 차례 다른 방법으로 들려줄 수 있다. 경전을 읽어 주거나, 여러분이 직접 요약해서 설명해 주거나, 어린이들이 여러분을 도와 이야기를 함께 전달해 보게 하거나, 연극으로 꾸며 보게 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의 개인 발전 목표와 연결되게 한다

가족 경전 공부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자신의 영적, 신체적, 지적, 사회적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우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누가복음 2:52 참조)

청소년 가르치기

가정에 청소년이 있다면, 그들의 배움에 도움이 될 다음 활동들을 참고한다.

가르치도록 권유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그저 들을 때보다 그것을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운다. 청소년 자녀에게 경전에 관한 가족 토론을 이끌어 보도록 기회를 준다.

세미나리와 연관시킨다

올해 세미나리 학생들은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고 있다. 청소년 자녀가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들이 배운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권유한다.

경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청소년들은 경전에 담긴 교리와 원리가 그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와 가르침이 가정이나 학교, 교우 관계에서 맞닥뜨리는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한다

많은 청소년은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게 하는 질문보다 경전에 관해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하는 질문에 더 잘 반응한다. 예를 들어, "이 구절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걸까요?"라든지 "1830년대 성도들에게 이 계시는 왜 의미가 있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들의 개인 발전 목표와 연결되게 한다

가족 경전 공부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자신의 영적, 신체적, 지적, 사회적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우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누가복음 2:52 참조)

그들의 질문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대답한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질문하는 시간은 자신이 정말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기회이자 그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들의 질문이 토론 주제와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불안해하거나 묵살하지 않는다. 모든 질문의 답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가정은 함께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이다.

그들의 통찰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청소년에게는 가족 경전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들만의 특별한 관점과 통찰이 있다. 여러분은 그들이 경전에 관하여 영을 통해 받은 가르침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음을 알려 준다. 개인 학습에서 얻은 통찰을 이야기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융통성을 발휘한다

가족 경전 공부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복음 주제를 끌어낼 수 있다. 설교하는 듯한 태도나 고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의미 있는 경전 구절을 나눌 수 있다. 경전 공부가 모든 가정에서 다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어떤 자녀들은 일대일로 경전을 공부할 때 더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의 속삭임을 따른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가정을 복음 학습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부지런히 노력하신다면 점차 *여러분의* 안식일은 참으로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구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미치는 대적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13쪽)

추가 자료

다음 자료는 대부분 복음 자료실 앱과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찾을 수 있다.

『계시를 받은 배경』

『계시를 받은 배경: 교리와 성약에 실린 계시와 그 뒷이야기들』은 교리와 성약에 수록된 계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에 관한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자료에 제공된 시대적 배경은 교리와 성약에 실린 주님의 말씀이 초기 후기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도들』

『성도들』은 여러 권으로 된 이야기 형식의 교회 역사서이다. 제1권, 『진리의 표준』과 제2권,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는 교리와 성약과 같은 시기의 교회 역사를 다룬다. 여러분은 이 역사서를 통해 교리와 성약에서 공부하는 계시의 배경에 대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역사 주제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유물, 지형 및 사건에 관한 기사들은 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에서 찾을 수 있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재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교재에는 경전에 나오는 원리와 기사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교리적 해설이 실려 있다.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

성스러운 음악은 영을 불러오며, 교리를 기억하기 쉽게 가르쳐 준다. 인쇄된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 외에도 music.ChurchofJesusChrist.org와 교회 음악 앱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로 된 다양한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를 찾아볼 수 있다.

교회 잡지

『리아호나』에는 교리와 성약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보충할 만한 이야기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교리와 성약 이야기』

『교리와 성약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교리와 성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쉬운 언어로 구성되었다. 복음 자료실 앱과 ChurchofJesusChrist.org에 있는 복음 미디어 자료실에서 이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경전 이야기 색칠 공부책: 교리와 성약』

이 자료에는 어린이들이 교리와 성약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동영상 및 그림

미술 작품과 동영상 및 다른 미디어 자료를 통해 가족들은 경전과 관련된 교리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그려 볼 수 있다. ChurchofJesusChrist.org에 있는 복음 미디어 자료실에서 교회의 미디어 자료들을 둘러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은 복음 자료실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복음 그림책』에도 많은 그림 자료가 있다.

복음 주제

복음 주제에는 다양한 복음 주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각 주제와 관련된 연차 대회 말씀이나 기사, 성구, 동영상 같은 유용한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도 게재되어 있다. 또한 복음 주제 관련 글을 읽어 보면, 교리 및 역사 관련 질문에 대해 깊이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신앙에 충실함』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신앙에 충실함』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참고 도서에는 복음 주제가 가나다순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선교사 지침서에는 기본적인 복음 원리들에 대한 개요가 수록되어 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이 자료에는 청소년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회의 표준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여러분이 청소년을 가르친다면 이 자료를 자주 참고한다.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이 자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가르치는 원리에 관해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2월 28일~1월 3일

교리와 성약 1편

"들으라, 오 너희 … 백성들아"

교리와 성약 1편을 주님께서 당신이 후기에 주신 계시들을 엮은 이 책을 친히 소개하시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에 관하여 무엇을 알기를 바라시는가?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1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모든 느낌을 기록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1831년 11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지 이제 막 1년 반이 지나고 있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신자들의 단체에 불과했다. 성도들은 정착촌이 드문드문 형성되어 있는 개척지 변경에 살고 있었고,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는 이십 대 중반의 젊은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그분의 종이자 사자로 여기셨으며, 그들에게 주신 계시가 세상에 출판되기를 바라셨다.

교리와 성약 1편은 그러한 계시들의 모음집에 붙이는 주님의 서문이다. 이 편은 비록 성도의 숫자는 적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이 나누기를 바라시는 메시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이 편은 모든 "땅의 주민"에게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성약"을 굳게 세울 것을 가르치는 "경고의 음성"이다.(4, 8, 22절)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은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이다. 하지만 겸손한 종들이야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의 교회를 "희미한 데서 그리고 캄캄한 데서" 이끌고 나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이들이다.(23, 30절)

교리와 성약 1편에 담긴 역사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성도들』 제1권, 140~143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편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라고 권고하신다

서문이란 책을 소개하는 글이다. 서문은 그 책의 주제와 목적을 알리고, 독자들이 그 책을 읽을 준비를 하게 해 준다. 교리와 성약에 붙이는 주님의 "서문"인(6절) 1편을 읽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계시들의 주제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밝히셨는지 찾아본다. 1편에서 어떤 내용이 앞으로 교리와 성약을 공부할 때 가장 큰 유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예를 들어, 이 계시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14절) 말이나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라는(37절)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교리와 성약 소개를 참고한다.

교리와 성약 1:1~6, 23~24, 37~39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1편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종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그분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끝난다.(4~6, 23~24, 38절 참조) 이 계시에서 주님과 그분의 음성에 관해 배운 점을 적어 본다. 주님의 종에 관해서는 어떤 점을 배웠는가?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음성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인식한 적이 있는가? 언제 그런 경험을 해 보았는가?(38절 참조)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

교리와 성약 1:3, 24~28, 31~33

내가 겸손하다면, 주님의 질책은 나를 회개로 이끌 수 있다.

3절과 24~28절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죄와 잘못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한다. 죄와 잘못이 드러나는 일은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일 때도 있고, 유익한 경험이 될 때도 있다. 왜 이렇게 상황이 각기 달라지는 것일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생각해 본다. 24~28절에 나오는 특성 중 여러분이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이 구절들과 31~33절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관해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가?

또한, 잠언 3:11~12, 이더서 12:27, 모로나이서 6:8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12~30, 35~36

주님께서는 내가 이 시대의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그분의 복음을 회복하셨다.

비록 1편에는 앞으로 다가올 암울한 시대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지만, 다음과 같이 위안을 주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17절)

주님께서 경고하신 재앙들에 주목한다.(예를 들어, 13~16, 35절 참조) 오늘날의 세상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보게 되는 재앙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17~30절에는 주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예견하시어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서술되어 있다. 여러분이 찾은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아도 좋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1~6, 37~39.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미끄러운 바닥, 거센 폭풍, 달려오는 자동차 등 우리가 볼 수 없는 위험을 다른 사람들이 경고해 주는 경우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본다. 이러한 예를 통해 주님

의 경고에 관하여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편 1~6절과 37~39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최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에 대하여 경고하셨는가? 최근 연차 대회 말씀의 일부를 시청하거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음성"의 예를 찾아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1:16. "주의 의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를 세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1:30. 교회가 "참되고 살아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족들이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생물과 무생물인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 줄 수도 있다. 또한, "교회를 희미한 데서 그리고 캄캄한 데서 이끌어 나아오게" 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토론해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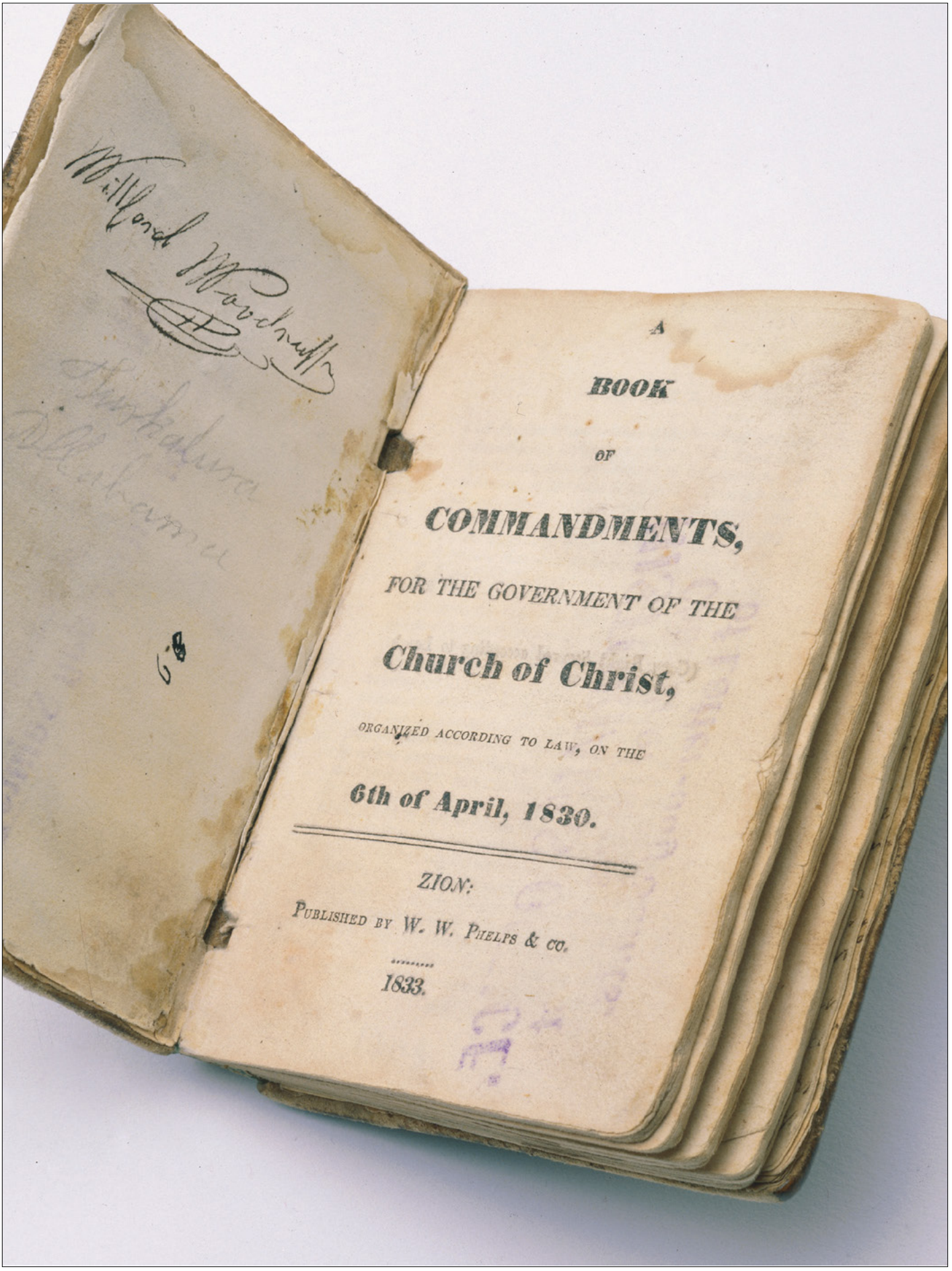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1:37. 올해 가족들이 교리와 성약에서 "이 여러 계명을 [어떻게] 상고"할 것인지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떻게 가족이 정기적으로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떤 학습 아이디어가 경전에서 배움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이 교재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가족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참조한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선지자 따라", 『어린이 노래책』, 58쪽, 특히 마지막 절.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경전의 목적은 구주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교리와 성약 1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구절들을 표시하거나 기록한다.



회복된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계시들은 계명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편찬되었다.

성스러운 숲, 그레그 케이 올슨

1월 4일~10일

조셉 스미스—역사 1:1~26

"나는 … 빛기둥을 보았으며"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26절을 읽으면서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메시지를 찾았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가장 가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느낌을 기록한다

교리와 성약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책에 있는 성스러운 계시 중 다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후기의 계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질문, 즉 1820년 조셉 스미스가 숲속에서 드렸던 바로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하며 교리와 성약 공부를 시작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언쟁과 의견의 혼돈"(조셉 스미스—역사 1:10) 속에서 조셉은 종교에 대해서든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든 무엇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아마 여러분도 이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상충하는 견해와 설득력 있는 주장이 넘쳐 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이러한 메시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자 할 때 조셉이 했던 일들을 따를 수 있다. 우리는 질문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어볼 수 있다. 조셉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빛기둥이 내려왔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조셉의 질문에 대답하셨다. 그 기적적인 경험에 대한 조셉의 간증은 누구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것"임을 담대하게 선언한다.(조셉 스미스—역사 1:26) 우리 모두는 비록 하늘의 시현은 아닐지라도, 하늘의 빛으로 밝혀지는 더욱 명확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조셉 스미스—역사 1:1~26

조셉 스미스는 회복의 선지자이다.

조셉 스미스의 역사가 기록된 목적은 진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데 있었는데, 이는 조셉에 관한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던 탓이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1 참조)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26절을 읽으면서 무엇이 조셉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한층 더 강화해 주었는가? 주께서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그를 준비시키셨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찾아 기록한다. 이 부분을 읽는 동안,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간증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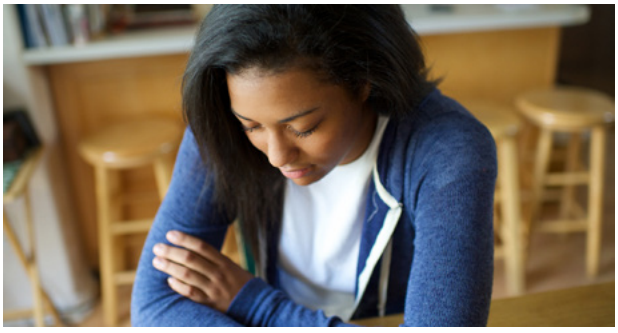
또한, 『성도들』 제1권, 3~19쪽을 참조한다.

조셉 스미스—역사 1:5~20

내가 신앙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서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고(조셉 스미스—역사 1:13) 느끼거나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는가? 5~20절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여러분에게 지혜와 더 큰 이해력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보고, 어떻게 진리를 구할 것인지 숙고한다.

또한 니파이전서 10장 17~19절, 15장 6~11절,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3~96쪽을 참조한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다.

조셉 스미스—역사 1:15~20

첫번째 시현에 관한 다양한 기록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셉 스미스는 생전에 성스러운 숲에서 경험했던 일을 최소 네 차례에 걸쳐 기록으로 남겼는데, 많은 경우 서기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셉이 시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쓴 여러 기록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청자와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일관된다. 각각의 사복음서를 통해 구주의 성역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각각의 기록은 세부적인 내용을 더해 주어 조셉 스미스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셉의 다른 기록들을 읽어 보려면, "첫번째 시현 기록"을 참조한다.(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이 기록들을 모두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조셉 스미스—역사 1:15~20

첫번째 시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지만, 그 응답이 자신의 삶과 온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셉의 경험을 읽으면서 첫번째 시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다음 문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성시켜 볼 수 있다. "첫번째 시현이 있었기에, 나는 … 을(를) 안다." 첫번째 시현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또한 다음을 참조한다. 『성도들』 제1권, 14~19쪽; 러셀 엠 넬슨, "그의 말을 들으라",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88~92쪽.

조셉 스미스—역사 1:21~26

다른 이들이 나를 배척할지라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다.

경전이 주는 축복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난관에 맞선 용감한 사람들의 영감 어린 사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본 시현 때문에 반대에 부딪혔을 때, 자신처럼 시현을 보았다고 말했다가 박해를 당했던 사도 바울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조셉의 기록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간증에 따라 행동해야겠다는 영감을 준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겪은 영적 경험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경전 구절이나 지인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조셉 스미스—역사 1:6. 이 구절에 묘사된 사람들처럼 언쟁을 벌이지 않고 의견 충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셉 스미스—역사 1:11~13. 이 구절들을 읽고 가족들은 감동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영감을 받은 성구를 발견했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조셉 스미스—역사 1:16~20. 가족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개요에 수록된 그림이나 첫번째 시현을 묘사한 다른 그림을 보여 줄 수도 있다.(가족과 함께 직접 그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자 이 시현에서 배운 진리들을 목록으로 만든 다음, 자신이 만든 목록을 서로에게 보여 줄 수도 있다. 이 시간은 각자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조셉 스미스—역사 1:17.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조셉의 이름을 부르셨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느껴 보았는가?

조셉 스미스—역사 1:21~26.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에 의구심을 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 『찬송가』, 24장.

회복의 소리

조셉 스미스의 가족

가정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조셉 스미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조셉의 부모가 고수했던 종교적 신념과 관습은 신앙의 씨앗을 심었으며, 그것은 회복의 토대가 되었다. 조셉은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훌륭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말로도 감사를 다 표할 길이 없다."[1]

아래에 인용한 조셉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와 남동생 윌리엄 스미스, 그리고 선지자 자신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스미스 가정에서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조셉 스미스 가족, 댄 벡스터

루시 맥 스미스

"[1802년경], 나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나와 그분 사이에 감히 건널 엄두도 내지 못할 깊고도 고립된 심연이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

부디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나를 살려 주시기를 주님께 매달려 애원하고 간청했다. 그렇게 나는 밤새 누워 있었다. … 만약 나를 살려 주신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는 종교를 반드시 찾겠노라고 그분께 약속했다. 그것이 성경에 있든, 어디에 있든, 기도와 신앙으로 하늘에서 얻어야 하든에 상관없이 말이다. 마침내 한 음성이 내게 임하여 말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음을 편히 가질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

그때부터 나는 줄곧 힘을 얻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종교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독실한 사람을 되도록 빨리 찾아서 하늘의 것을 배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생각했다."[2]

윌리엄 스미스

"어머니는 매우 독실하셨고 자녀들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누릴 행복에도 관심이 많으셨다. 어머니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가 스스로의 영혼의 구원을 구하는 일 혹은 (당시 사용되던 표현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일에 힘쓰도록 하셨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여러 모임에 참석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가족이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었다."[3]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는 항상 가족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가 조끼 주머니에 안경을 넣고 다니셨던 것이 또렷이 기억난다. … 아버지가 손으로 안경을 찾는 모습을 보면 우리 형제들은 그것이 기도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인 것을 알았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으면 어머니는 '윌리엄' 하고 부르시면서, 혹은 누구든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기도할 준비 하자' 하고 말씀하시곤 했다.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자주 부르곤 했던 노래를 불렀다."[4]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스미스는 가족에게 경전을 공부하도록 가르쳤다.

조셉 스미스

"내가 아는 한 [아버지는]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도량이 좁은 비열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을 사랑한다. 아버지의 숭고한 행위들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내 생각을 채우며, 아버지가 해 주셨던 많은 친절한 말들은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삶에 대해 내가 간직하고 있는 생각들은 내게는 성스러운 것이다. 나는 태어난 이래로 직접 관찰하며 깨달은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 두었다. … 나의 어머니 또한 모든 여성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분 중 한 분이시다."[5]

주

1. Journal, December 1841–December 1842, 180, josephsmithpapers.org.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2, pages 2–4, josephsmithpapers.org; spelling and punctuation modernized.
3. *William Smith on Mormonism: A True Account of the Origin of the Book of Mormon* (1883), 6.
4. In J. W. Peterson, "Another Testimony: Statement of William Smith, concerning Joseph, the Prophet," *Deseret Evening News,* Jan. 20, 1894, 11.
5. Journal, December 1841–December 1842, 180, josephsmithpapers.org.

회복의 첫번째 시현, 마이클 베다드

그가 네 이름을 부르셨다, 마이클 맘

1월 11일~17일

교리와 성약 2편; 조셉 스미스—역사 1:27~65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성신은 여러분이 경전을 읽을 때마다 가르침을 줄 수 있다. 이는 전에 많이 읽었던 경전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깨달음과 영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느낌을 기록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숲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후 3년이 흘렀지만, 조셉은 그 이후로 더는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조셉도 잘못을 범했고, 그 때문에 그는 정죄받는 느낌도 받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셨다. 조셉이 부름받았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조셉이 받은 부름은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도록 요청받았는가? 조셉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신권 열쇠를 받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키고 있는가? 조셉은 곧 성취될 예언들에 관해 들었다. 그렇다면, 그 예언들이 성취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반대를, 심지어 박해까지도 겪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조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삼으실 것이라는 신앙을 지닐 수 있다.

또한, 『성도들』 제1권, 20~48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조셉 스미스—역사 1:27~33

하나님은 내게 맡기실 일이 있으시다.

조셉 스미스—역사 1장 27~3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맡기실 일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다음 권유를 상고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께서 여러분과 이곳 지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쭤보십시오. 진정한 의도로 묻는다면, 시간이 감에 따라 영은 인생을 바꿀 진리를 속삭여 줄 것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진정한 밀레니얼 세대가 되십시오"[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6년 1월 10일], broadcasts.ChurchofJesusChrist.org)

때로 여러분도 조셉이 28~29절에서 느낀 것과 같은 심정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하여 조셉의 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조셉 스미스—역사 1:34~65

몰몬경에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 있다.

조셉 스미스—역사 1장 34~65절을 읽으면서 만일 여러분이 몰몬경에 관해 들어 본 적이 없었다면 이 구절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을지 생각해 본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이 기록은 몰몬경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에 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몰몬경이 이사야 29장 4절, 11~18절에 나오는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생각해 본다.

조셉 스미스—역사 1:36~41

복음의 회복으로 고대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이사야 11장, 사도행전 3장 22~23절, 요엘 2장 28~32절과 같은 구약전서 및 신약전서의 예언들을 인용하여 말했다. 조셉이 이러한 예언들을 아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이 예언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2편

엘리야는 무엇을 회복하였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능을 지닌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권능을 지녔습니다. 그는 인봉의 권능, 즉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능을 지녔습니다."("하나로 묶인 마음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78쪽)

또한, 교리와 성약 110편 13~16절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말씀, "이 집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여"(『리아호나』, 2020년 5월호, 84~87쪽)를 참조한다.

뉴욕 팔마이라 성전. 가족들은 엘리야를 통해 회복된 권능으로 성전에서 인봉된다.

교리와 성약 2편

엘리야는 나의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이키기 위해 왔다.

2편에 나오는 "심다", "마음", "돌이키다"와 같은 단어들은 엘리야의 사명과 그가 회복한 신권 열쇠에 수반된 축복에 관한 어떤 점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이 조상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을 느꼈는가? 이러한 느낌을 더욱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친척에게 조상 중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부탁해 볼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다면 더 좋을 것이다. 복음 의식을 하나도 받지 않고 돌아가신 조상을 한 분 찾아 성전에서 그 의식을 집행할 수도 있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조셉 스미스—역사 1:28~29.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이러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의 경험에서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조셉 스미스—역사 1:33~54. 가족 중 한 명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장 33~42절에 나오는 모로나이의 메시지 중 일부나 전체를 소리 내어 네 번을 반복하여 읽어 달라고 부탁한다.(모로나이도 이 메시지를 네 번 반복했다.) 매번 메시지를 다 읽고 나면, 나머지 가족들에게 경전을 보지 말고 기억나는 내용을 말해 보라고 한다. 주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복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리와 성약 2:2. 자녀들이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서 2장 9~11절을 함께 읽거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러셀 엠 넬슨 회장"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ChurchofJesusChrist.org)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실 때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지 찾아본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약속들을 우리 마음에 "심는가"?

교리와 성약 2:2~3. 가족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조상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각자 조상들을 한 분씩 알아보고, 자신이 그 분에 대해 알게 된 점을 나머지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하기를 바라시는가?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데일 지 렌런드,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 인봉과 치유",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46~49쪽 참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지금 나는요", 『어린이 노래책』, 100쪽.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경전 학습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 각주, 경전 안내서와 같은 자료들과 ChurchofJesusChrist.org는 경전 속 인물, 사건, 구절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판을 받는 조셉, 게리 이 스미스

프랑스의 추수철, 제임스 태넘리 하우드

1월 18일~24일

교리와 성약 3~5편

"나의 일은 나아가리라"

경전을 공부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은 여러분이 그 느낌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느낌을 기록한다

주님의 선지자가 되고 나서 처음 몇 년 동안 조셉 스미스는 아직 자신이 행하도록 부름받은 "크고 기이한 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초기의 경험들을 통해 그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격을 갖추려면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4:1, 5) 예를 들자면, 조셉은 주님께서 자신의 소망과 어긋나는 권고를 주셔도 그것을 따라야 했다. "아무리 많은 계시를 받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조셉에게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는 "반드시 타락"할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3:4) 그러나 조셉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무언가를 배웠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여전히]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10절) 하나님의 일이란 결국 사람을 구속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좌절될 수 없"다.(1절)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3:1~15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조셉 스미스는 성역 초기에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마틴 해리스만큼 존경받고 부유하며 중요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친구라면 더더욱 그러했다. 마틴은 동년배들의 존경을 잃고 재정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기꺼이 조셉을 도왔다.

그런 마틴이 몰몬경 원고의 첫 부분을 가져가서 당시 몰몬경의 참됨을 의심하던 아내에게 보여 주고 싶다는 부탁을 해 왔을 때, 조셉이 왜 그 청을 들어주려 했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셉은 주님께서 이를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여쭈었고, 결국 세 번이나 여쭈어 본 끝에 주님의 승낙을 얻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마틴은 그 원고를 잃어버렸고, 주님은 조셉과 마틴을 엄하게 꾸짖으셨다.(『성도들』 제1권, 51~53쪽 참조)

교리와 성약 3편 1~15절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또한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질책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말씀도 함께 남기셨다는 것에 주목한다. 조셉을 바로잡으시는 동시에 격려도 해 주시는 주님의 방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 도움이 될 어떤 권고를 찾았는가?

또한 "마틴 해리스의 공헌", 『계시를 받은 배경』,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4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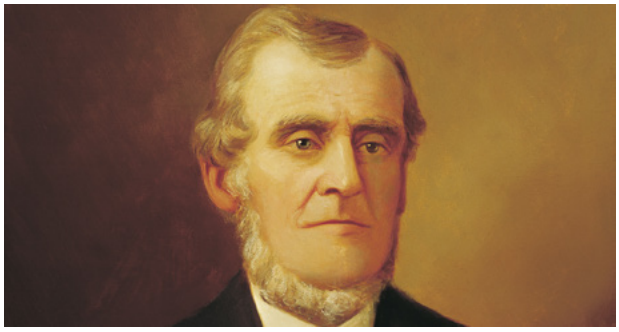
주님은 내게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섬기라고 요청하신다.

4편은 전임 선교사들에게 자주 적용되는 계시이다. 흥미롭게도 원래 이 계시는 선교사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던 조셉 스미스 일세에게 주어진 것이었다.(3절)

4편을 읽을 때,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업무 설명서라고 상상하며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는 어떤 자격 요건들이 나오는가? 이러한 기량이나 특성은 왜 필요한가? "그 일을 행할 [더 나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해 본다.(5절)

교리와 성약 5편

나는 몰몬경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다.



마틴 해리스, 루이스 에이 램지

법정에 나가서 몰몬경의 참됨에 관한 증언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겠는가? 마틴 해리스는 아내인 루시가 조셉이 금판을 번역하는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면서 소장을 제출했을 때, 머릿속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떠올렸을 것이다.(『성도들』 제1권, 56~58쪽 참조) 마틴은 조셉에게 금판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더 달라고 부탁했다. 교리와 성약 5편은 마틴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계시이다.

교리와 성약 5편에서 여러분은 다음 주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 주님께서는 증거가 있기 전에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5~8절 참조; 또한 요한복음 20:24~29 참조)
- 주님의 사업에서 증인들이 하는 역할.(11~15절 참조; 또한 고린도후서 13:1 참조)
-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직접 얻는 방법.(16절 참조; 또한 모로나이서 10:3~5 참조)

교리와 성약 5:1~10

이 세대는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5편 1~10절은 이 경륜의 시대 및 여러분의 삶에서 조셉 스미스가 해 준 중요한 역할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조셉 스미스가 회복하고 명백하게 밝혀 준 진리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자신의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

또한 니파이후서 3:6~24를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3:1~4. 가족 중 한 명에게 "굽은" 길로 걷다가 "곧은" 길로 걸어 보라고 한다. "[하나님]의 길은 곧"다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가?

교리와 성약 3:7~10.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누군가의 강요를 받는 상황에서도 충실히 남는 데 도움이 될 어떤 진리들을 이 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충실함을 잃지 않는 상황을 가족끼리 역할극으로 꾸며 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4편.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것의 의미를 토론해 보기 위해 정원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그런 시늉을 해 볼 수 있다. 정원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4편에서 언급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각각의 도구가 중요한 이유에 관해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5:7.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몰몬경이 참되다는 증거를 원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 줄 수 있을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용감한 종", 『어린이 노래책』, 85쪽.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성구를 암기한다. "성구 하나를 암기하는 일은 마치 새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영감과 위안을 주며 변화가 필요할 때 동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리차드 지 스코트, "경전의 힘",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쪽)

116쪽의 엄청난 무게, 콰니 포비 윈더

1월 25일~31일

교리와 성약 6~9편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진리를 밝히신다.(교리와 성약 8:2~3 참조) 교리와 성약 6~9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모두 기록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1828년 가을, 올리버 카우드리라는 한 젊은 교사는 뉴욕주 맨체스터에서 교편을 잡으며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가족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올리버는 부부의 아들인 조셉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당시 조셉은 펜실베이니아 하모니에 살고 있었다. 스스로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여겼던 올리버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스미스 부부는 천사의 방문과 고대의 기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하는 은사에 관해 이야기했고, 올리버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루시와 조셉 일세는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언을 올리버에게 주었다. 그들은 올리버에게 기도로써 주님께 여쭈어보라고 말했던 것이다.

올리버는 그렇게 했고, 이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주님은 올리버의 생각에 평강과 확신을 말씀하셨다. 올리버는 계시를 받는 것이 개인적인 일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그가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더 깊이 체득하게 될 것이었다. 계시는 선지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고 구하는 모든 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리버는 아직 전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충분했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으며, 올리버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었다.

교리와 성약 6~9편에 담긴 역사적 배경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성도들』 제1권, 58~64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6편; 8~9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영"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1829년 봄, 하모니로 향한 올리버 카우드리는 몰몬경을 번역 중이던 조셉 스미스를 만나 그의 서기로 일하겠다고 자원했다. 올리버는 이제 번역 중에 계시를 받는 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그 경험은 그를 전율하게 했고, 올리버는 자신도 번역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주님께서는 올리버가 번역을 시도해 보도록 허락하셨다. 하지만 계시를 받는 것은 올리버에게 익숙지 않은 일이었으며, 번역도 잘 되지 않았다. 그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았다. 교리와 성약 6편, 8편, 9편을 보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를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개인적 계시에 관하여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주목한다.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했거나 하고자 하는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6편 5~7절, 8편 1절, 9편 7~8절에는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 주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나오는가?

교리와 성약 6편 14~17, 22~24절, 8편 2~3절, 9편 7~9절에서 우리는 계시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에 관해 무엇을 배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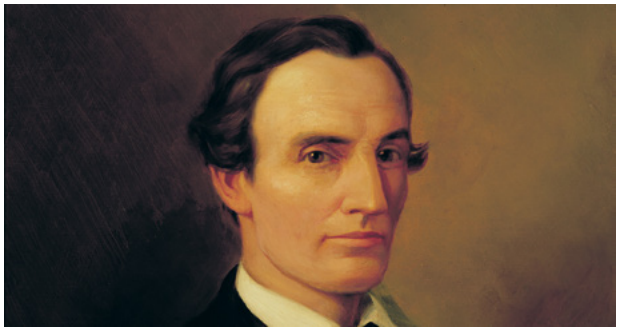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의 이 부분에서 계시에 관하여 또 배운 점이 있는가?

계시에 관해 좀 더 알아보려면,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3~96쪽; 줄리 비 벡,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10~12쪽. 8편에 나오는 "아론의 은사"에 관해 좀 더 알아보려면, "올리버 카우드리의 은사",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6:18~21, 29~37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조셉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미 여러 번 "곤경"에 처했었지만 (교리와 성약 6:18) 그와 올리버는 앞으로 몇 년간 그 곤경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며, 또한 그분은 여러분이 장차 겪게 될 시련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 교리와 성약 6편 18~21절, 29~37절에서 주님이 조셉과 올리버에게 주신 권고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셉과 올리버는 주님의 이러한 권고를 듣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이 성구에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삶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가?



올리버 카우드리, 루이스 에이 램지

교리와 성약 6~7편; 9:3, 7~14

"네가 내게 원하는 대로 네게 이루어질 것이요"

6편과 7편에서 "소망" 또는 "원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에 주목해서 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중요히 여기신다는 것과 관련하여 6편과 7편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교리와 성약 7편 1절에 나오는 주님의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본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올리버 카우드리의 의로운 소망 중 하나였던 '조셉 스미스처럼 번역하기'는 성취되지 않았다. 교리와 성약 9편 3절, 7~1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의로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또한 교리와 성약 11:8, 댈린 에이치 옥스, "의로운 욕망",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2~45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6:7, 13. 진정한 "부"는 영생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7절) 가족들에게 가짜 돈을 만든 다음, 그 위에 회복된 복음 덕분에 그들이 받게 된 축복들을 적거나 그려 보라고 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6:15, 22~23; 8:2~3; 9:7~9. 이 성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성구들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6:33~37. 두려움을 느낄 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의 말씀, "근심하지 말라" 동영상을 전체 또는 일부 시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8~21쪽)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36절)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 주님께 의지했던 사람 중에는 또 누가 있는가?(예를 들어, 에스더 4장; 앨마서 26:23~31 참조)

교리와 성약 8:1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여러분과 가족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이다. "신앙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앙으로 응답이나 도움을 구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축복들을 보았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용감하게 의 행하라", 『어린이 노래책』, 80쪽.

회복의 소리

몰몬경 번역

1829년 4월, 교리와 성약 6~9편을 받았던 달에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 번역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후에 이 기록이 어떻게 번역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조셉은 "모든 상세한 사항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1] 그는 자주 몰몬경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다고 간단히 말하곤 했다.[2]

마치 기적과도 같았던 그 번역 과정을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선견자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구가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투명한 돌과 선견자의 돌이라는 또 다른 돌을 말한다.[3]

번역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진술한 다음 기록들은 조셉의 간증을 뒷받침한다.

하이럼 스미스의 소유였던 이 상자는 금판을 임시로 숨기는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머 스미스

"남편이 몰몬경을 번역할 때 한동안은 내가 기록을 맡아 했다. 남편은 문장을 하나씩 정확히 글자 그대로 불러 주었으며 혹 발음을 모르는 고유명사나 긴 단어가 나오면 철자까지 일러 주었다. 당시에 남편은 내가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도 철자가 틀리면 멈추라고 말하고는 바로 고쳐 주었다. 사라 같은 이름도 처음에 남편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철자를 불러 주었고, 그런 뒤에 내가 다시 남편에게 발음해 주기도 했다."[4]

"판은 내가 주었던 작은 아마천 식탁보에 싸인 채로, 숨길 의도라고는 전혀 없이 식탁 위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았다. 한번은 그렇게 식탁 위에 놓인 판을 손으로 만져서 모양을 느껴 본 적이 있었다. 판은 두꺼운 종이처럼 휘어질 수 있는 것 같았고 책 가장자리를 만지듯 가장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쓸어 보면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

몰몬경은 하늘이 그 참됨을 증거해 준 책임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술로 그런 원고를 만들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그의 서기로 일할 때, [조셉은] 몇 시간이나 구술을 했다. 그는 식사를 하거나 잠시 작업을 중단했다가 돌아오더라도 원고를 직접 살펴보거나 일부를 읽어 달라고 하는 일 없이 곧바로 중단한 부분 뒤부터 바로 이어서 구술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하물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은 솔직히 불가능했다."[5]

에머와 조셉 스미스, 마이클 티 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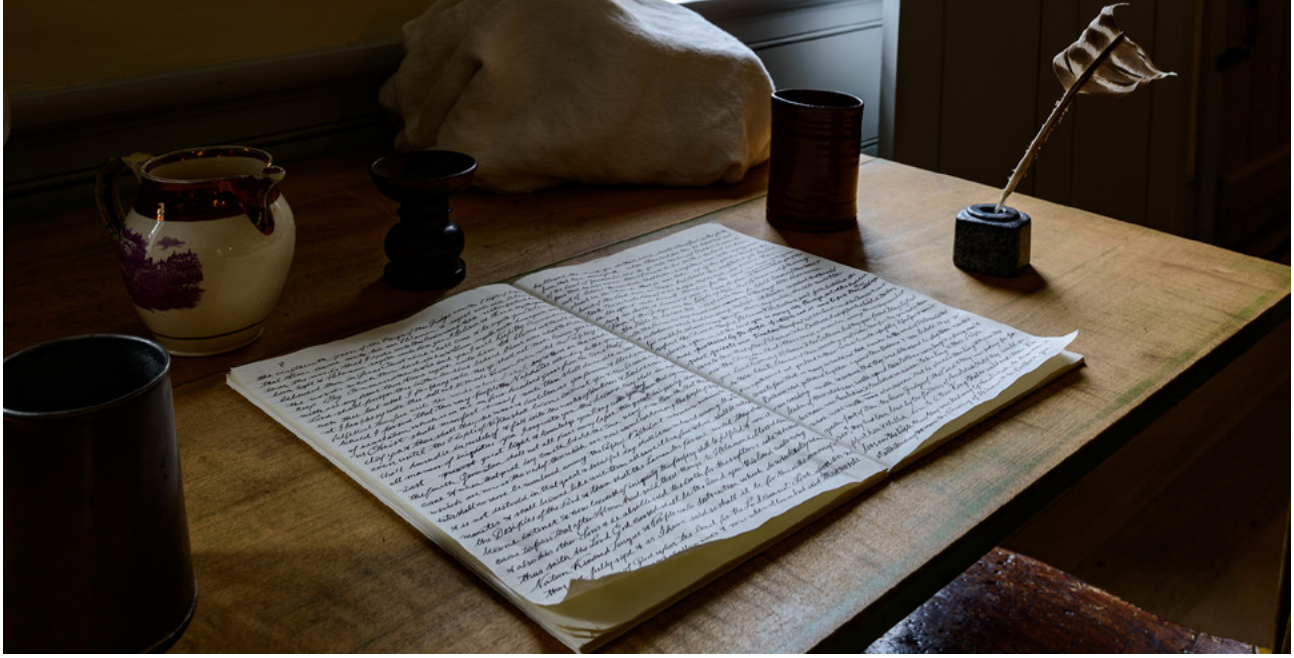
올리버 카우드리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입에서 나오는 몰몬경의 말씀을 (몇 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받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하는 거룩한 해석기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로 그 책을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 번역의 원본인 금판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또한 번역기도 보았습니다."[6]

주

1. "Minutes, 25–26 October 1831," Minute Book 2, 13, josephsmithpapers.org.
2. In "Church History,"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707; see also *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Joseph Smith* (2007), 441.
3.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몰몬경 번역", 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리차드 이 털리 이세, 로빈 에스 젠슨 및 마크 애셔스트-맥기, "선견자 조셉", 『리아호나』, 2015년 10월호, 48~55쪽 참조.
4. In Edmund C. 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Journal of History,* vol. 9, no. 4 (Oct. 1916), 454; quoted in Russell M. Nelson, "A Treasured Testament," *Ensign,* July 1993, 62.
5. In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spelling modernized.
6. In Reuben Miller journal, Oct. 21, 1848,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spelling, punctuation, and capitalization modernized.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금판을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몰몬경 원본 영고 부제본.

2월 1일~7일

교리와 성약 10~11편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전을 읽는 동안 떠오르는 느낌을 기록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그것이 비록 미약한 느낌일지라도 의미 있는 개인적인 계시로 이어질 수 있다.

느낌을 기록한다

몰몬경의 번역이 진행됨에 따라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레 대두되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잃어버린 번역 원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그 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번역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내다보셨다. 악인들이 그 원고의 내용을 변경하여 조셉이 영감을 받아 하는 작업을 불신하게 만들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잃어버린 원고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다. 이 계획은 수천 년 전 선지자 니파이가 같은 시기를 다루는 두 번째 기록을 만들도록 영감을 받았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 후에 몰몬은 주께서 아시는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해 이 기록을 몰몬경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영감을 받았다.(몰몬의 말씀 1:3~7 참조)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지혜가 악마의 간교함보다 더 위대함[이라.]"(교리와 성약 10:43) 이는 우리의 신앙을 약화하려는 대적의 노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위안이 되는 메시지이다. 조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을 "충실하[게] … 계속해 나아"갈 수 있다.(3절)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옥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이미 방편을 마련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69절)

『성도들』 제1권, 51~61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0:1~33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멸하려 한다.

사탄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기를 바란다. 혹은 적어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그 시도만이라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란다.(니파이후서 28:22~23 참조) 그러나 교리와 성약 10편에서 주님께서는 사탄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적한다고 말씀하신다. 1~33절을 읽으면서, 조셉 스미스 시대에 사탄이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멸하려 했는지 찾아본다.(또한 62~63절 참조) 이는 오늘날 사탄이 일하는 방식들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간구한다. 10편에는 사탄의 노력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교리와 성약 10:34~52

하나님의 "지혜가 악마의 간교함보다 더 위대"하다.

주님께서는 몰몬경의 잃어버린 부분을 보완할 준비를 2,400여 년 전부터 해 두셨다.(니파이전서 9장 참조) 교리와 성약 10편 34~52절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여러분은 삶에서 주님의 지혜와 예지를 보여 주는 어떠한 증거들을 보았는가?

잃어버린 원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기록은 니파이전서부터 옴나이서까지이다. 이 기록에 담긴 이야기와 가르침 덕분에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더 폭넓게 보게" 되었는가?(교리와 성약 10:45)

판들을 요약하는 몰몬, 톰 러벌

교리와 성약 11편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것이다.

조셉 스미스의 가족과 친구 중 몇몇은 조셉에게 자신들을 대신해서 주님의 뜻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셉은 흔쾌히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기꺼이 주고자 하셨다. 조셉이 형인 하이럼을 대신하여 받은 계시인 교리와 성약 11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 그리고 그때 너는 [내게 원하는 것이면 … 무엇이든지 다] 알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13~14)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좋은 소망을 품고 거두려고 낫을 휘두른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27절) 교리와 성약 11편에서 주님께서는 개인적인 계시 및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가?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그 외에도 우리를 위한 어떤 가르침을 더 주셨는가?

교리와 성약 11:15~26

"[하나님]의 말을 얻으려" 힘쓸 때, 그분의 영과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몰몬경이 다 번역되기도 전부터 하이럼 스미스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이 있었다. 그의 이러한 소망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본다.(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0:5.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도의 힘에 관해 어떤 것을 배우는가?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이에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항상 기도하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41~44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0:38~46.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서 분실된 몰몬경 원고 분량을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토론하기 위해 각자 최근에 잃어버린 물건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 물건을 잃어

버렸음을 깨달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그 물건을 찾았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분실된 몰몬경 원고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교리와 성약 10편 38~46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주셨는가?

교리와 성약 10:55~70. 가족들에게 이 부분에서 "나는 … 이니라" 혹은 "나는 … 하리라" 형태의 문구를 찾거나 표시해 보라고 한다. "나는 … 이니라" 형태의 문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는가? "나는 … 하리라" 형태의 문구에서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가족들에게 이러한 진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강화해 주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권유한다.

교리와 성약 11:12~14. 이 성구를 읽으면, 가족들이 영과 소통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바닥에 손전등을 비추고 가족 한 명에게 그 빛을 따라 움직여 보라고 한다. 이것은 성신의 인도를 따르는 것과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여러분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담을 가족들과 나누겠는가?

교리와 성약 11:15~30. 주님께서는 하이럼 스미스에게 복음 전파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명하셨다. 그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우리 가족은 어떤 부분을 함께 노력해야 할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경전 상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어린이 노래책』, 66쪽; "가족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참조.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경전을 삶에 적용한다 경전 한 구절을 읽은 후, 그 구절이 가족들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11편 12~13절에 나온 것처럼 영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할 수도 있다.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 켄 코벳

2월 8일~14일

교리와 성약 12~13편; 조셉 스미스—역사 1:66~75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경전에서 알게 된 진리에 관해 기도드리는 가운데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68 참조) 여러분은 그들의 모범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느낌을 기록한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펜실베이니아 하모니라는 장소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주 그분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장소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선택하신다. 1829년 5월 15일, 하모니 근처의 숲속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앞에 부활한 침례 요한이 나타났다. 침례 요한은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론 신권을 부여하면서 그들을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이라고 불렀다.(교리와 성약 13:1)

구주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과(마태복음 3:1~6, 13~17 참조) 동역자로 여겨진다는 것은 이제 이십 대인 이 두 청년을 겸허하게 했을 것이고, 이는 아마도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 조셉과 올리버는 하모니만큼이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에서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이다. 때로 자신의 기여도가 미미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위대한 사업에서 동역자 된 종인 것이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2편

주님께서는 내가 시온의 대업을 세우는 일을 돕기를 바라신다.

조셉 나이트 일세와 그의 아내 폴리는 당시 스무 살이었던 조셉 스미스가 뉴욕주 콜스빌에 있는 그들의 농장에 일하러 왔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 조셉 나이트는 조셉 스미스가 여태껏 자신이 고용했던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한 일꾼이라고 평했다. 그는 금판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믿었다. 그는 아내 폴리와 함께 펜실베이니아 하모니의 집에서 몰몬경을 번역하고 있던 조셉 스미스를 찾아갔다. 폴리는 그 즉시 믿었다. 조셉과 폴리는 여생 동안 회복된 복음에 끝까지 충실했다. 나이트 가족 중 교회로 개종한 사람은 60명 이상에 달한다. 그들은 뉴욕과 오하이오, 미주리, 나부를 거쳐 마침내 솔트레이크시티까지 함께하며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도왔다.

조셉 나이트는 자신이 주님의 사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했다. 그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은(교리와 성약 12편)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려는 소망을 가진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7절)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운다는 말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6절) 7~9절에 나오는 원리들과 성품들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또한, "나이트 가족과 휘트머 가족",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3편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회복했다.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에 관한 많은 진리를 단 한 문장에 담았다. 13편(머리말 포함)에서 알게 된 모든 것을 목록으로 작성해 본다. 여기서 찾은 문구 몇 가지를 공부해 두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문구들로 시작해 보자.

- "천사의 성역[의] … 열쇠들": 니파이후서 32:2~3; 모로나이서 7:29~32; 제프리 알 홀런드, "천사의 성역",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29~31쪽; 경전 안내서, "천사",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 "회개의 복음[의] … 열쇠들": 제3니파이 27:16~22; 교리와 성약 84:26~27; 데일 지 렌런드, "신권, 그리고 구주의 속죄 권능",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64~67쪽
- "레위의 아들들": 민수기 3:5~13; 교리와 성약 84:31~34; 경전 안내서, "아론 신권", "레위",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여러분은 아론 신권의 의식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침례를 주는 조셉 스미스, 델 파슨

조셉 스미스—역사 1:66~75

나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였던 캐롤 엠 스티븐스 자매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신권 의식과 성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충만한 축복들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구주의 속죄 덕분에 가능합니다. 신권 의식과 성약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시키며, … 영생을 받을 기회를 줍니다."("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쪽)

조셉 스미스—역사 1장 66~75절과 71절 끝에 달린 각주를 읽으면서, 조셉과 올리버는 무엇에서 영감을 받아 주님께 침례에 관한 질문을 드렸으며, 신권 의식에 참여하고 난 후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주목해 본다. 여러분이 의식을 받고 나서 기록했던 일지를 읽거나 의식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기억나는 것들을 적어 본다. 여러분은 신권 의식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또한, 교리와 성약 84편 20~22절, 『성도들』 제1권, 65~68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2:8.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구절에 나오는 성품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13편. 아론 신권의 회복에 대한 가족들의 신앙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 개요에 수록된 그림은 가족들이 아론 신권의 회복을 생생하게 그려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셉 스미스—역사 1장 68~74절에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각자의 삶에서 신권의 권능을 경험했던 간증을 함께 나눌 수도 있다.

조셉 스미스—역사 1:68.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예를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함께 경전을 읽을 때, 중간에 잠시 멈추고 지금 읽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규칙적인 습관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조셉 스미스—역사 1:71, 각주. 여러분의 가족들은 올리버 카우드리의 말에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은 언제였는가?

조셉 스미스—역사 1:73~74. 성신은 조셉과 올리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가족들이 영을 통해 경전에 대한 이해력을 넓히고 주님 안에서 기뻐했던 적은 언제였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신권이 회복되었다", 『어린이 노래책』, 60쪽.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공부한다.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가족과 함께 정한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경전 안내서(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를 활용하여 아론 신권에 관한 성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린다 컬리 크리스텐슨

2월 15일~21일

교리와 성약 14~17편

"증인으로 서게 하고"

조셉 스미스의 가족과 친구들은 조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길 바라시는지 계시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이 계시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마련해 두셨을지 생각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번역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1829년 5월경에 하모니의 상황은 조셉과 에머, 올리버에게 불리하기만 했다. 에머의 친정에서 오는 지원은 줄어드는 한편, 이웃들의 적대감은 커져 가고 있었다. 하모니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올리버는 조셉이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는, 자신의 친구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데이비드는 하모니에서 16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일 년 전쯤 데이비드를 만났던 올리버는 선지자와 함께 일하는 경험을 편지에 적어 그에게 몇 차례 보낸 적이 있었다.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은 조셉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트머 가족은 조셉과 함께 그들의 집에 머물며 몰몬경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올리버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했다. 주님께서는 휘트머 일가가 선지자에게 그저 거처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예비해 두셨다. 교리와 성약 14~17편에 나오듯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시하실 몇 가지 구체적인 일들이 있으셨다. 때가 되면 그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가문 중 하나가 되고, 장차 전개될 회복의 증인들이 될 것이었다.

휘트머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성도들』 제1권, 68~71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4편

나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조셉 스미스를 처음 만났을 시절의 데이비드 휘트머는 가족 농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종류의 일을 맡기시려고 염두에 두셨는데, 그 일은 어떤 면에서는 데이비드가 해 오던 농사일과 비슷한 데가 있었다. 교리와 성약 14편 1~4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데이비드에게 익숙했던 일에 비교하여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주목한다. 이러한 비유는 주님의 일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낫을 휘"두를 수 있을까?(4절) 14편 전반에 걸쳐 "시온을 일으켜 굳게 세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들에 주목한다.(6절)

교리와 성약 14: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양날이 선 검"에 비유하셨다.(교리와 성약 14:2)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그분의 말씀은 어떤 점에서 살아 있고, 활력이 있으며, 예리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는 권능을 경험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묘사하시는 다른 방식들을 생각해 본다. 가령, 다음 성구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어떤 점을 배우는가?

시편 119:105 _____

이사야 55:10~11 _____

마태복음 4:4 _____

니파이전서 15:23~24 _____

앨마서 32:28 _____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셨다.

교리와 성약 14:7

영생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다.

교리와 성약 14편 7절을 읽으면서, 영생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다음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으로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되어 그분의 거룩한 면전으로 돌아가 영원히 거하도록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7쪽)

영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상호 참조 성구들을 7절에 적어 놓을 수도 있다.("영생", 경전 안내서,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여러분은 영생을 위해 힘써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는 어떤 가르침을 얻었는가?

교리와 성약 15~16편

그리스도께 영혼을 데려오는 것은 큰 가치가 있는 일이다.

존과 피터 휘트머는 모두 그들의 삶에서 "가장 값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교리와 성약 15:4; 16:4) 여러분도 그러한 것이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교리와 성약 15~16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 영혼을 데려오는 일이 왜 그토록 가치 있는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할 수 있는가?

또한 교리와 성약 18:10~16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7편

주님께서는 증인들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신다.

증인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증인들을 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고린도후서 13:1 참조) 교리와 성약 17편에 나오는 세 증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 또한 몰몬경에 수록된 "세 증인의 증언"을 다시 읽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증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4절)

여러분은 메리 휘트머도 금판에 관한 증거를 받았음을 알고 있었는가? 모로나이 천사는 조셉, 에머, 올리버가 휘트머 가족과 함께 지내는 동안 메리가 치른 희생에 대한 답례로 그녀에게 금판을 보여 주었다.(『성도들』 제1권, 70~71쪽 참조) 메리의 경험에서 여러분은 증거를 받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

또한, 『성도들』 제1권, 73~75쪽과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의 말씀, "몰몬경의 출현"(『리아호나』, 2020년 5월호, 32~35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4:1~4. 가족들에게 이 구절에서 농장일과 관련된 문구를 찾아보라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왜 당신의 사업을 추수에 비유하셨을까? 그분의 일을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14:2.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에 있는, 이 구절과 관련된 활동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경전 구절들이 몇 가지 나온다. 가족들은 그 구절들을 읽고 배운 점을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성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어떻게 동기 부여를 해 주는가?

교리와 성약 15:6; 16:6. 이 성구들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장 값있는 일은 무엇인지 토론해 볼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또한 교리와 성약 18:10 참조)

교리와 성약 17편. 세 증인이 본 물건들을 가족들이 하나씩 그려 보아도 좋을 것이다.(1절 참조) 17편을 읽으면서, 몰몬경의 중요성에 관하여 가르치는 문구들을 찾아본다. 우리는 어떻게 몰몬경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회복의 소리

루시 맥 스미스와 세 증인과 여덟 증인

모로나이 천사는 뉴욕주 페이에트에 있는 휘트머의 집 근처 숲속에서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에게 금판을 보여 주었다. 그때 조셉의 부모는 휘트머의 집에 와 있었다. 조셉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는 이 기적적인 경험이 증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때는 오후 세 시에서 네 시 사이였다. 휘트머 부인과 남편(조셉 스미스 일세)과 나는 당시 침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집으로 들어온 조셉은 내 옆에 털썩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저 말고도 세 사람에게 판을 더 보여 주셨어요. 그들은 천사도 보았어요. 이제 그들도 제가 말해 온 진리들을 증언할 거예요. 그들도 제가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던 어마어마한 짐을 이제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들도 함께할 거예요. 더는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니 제 영혼이 기뻐요.' 뒤이어 마틴 해리스가 들어왔다. 그는 벅찬 기쁨에 사로잡힌 듯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간증했다. 올리버와 데이비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간증은 몰몬경에 담긴 간증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

특히 마틴 해리스는 자신의 감정을 형언하기 어려워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늘에서 온 천사를 보았으며 천사는

그 기록과 관련하여 제가 들은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저는 이 두 눈으로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금판도 보았고 제 손으로 그것을 만져 보았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 그것의 참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설명할 수 없는 증거를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녀들을 위해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시어 그분의 사업과 계획의 위대함을 증거할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온 영혼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올리버와 데이비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엄숙히 찬양했다. 다음 날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뉴욕주 팔마이라의] 집으로 돌아왔다."[1]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의 초상화, 루이스 에이 램지

루시 맥 스미스는 여덟 증인이 금판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증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천사가 다시 조셉에게 나타났고 조셉은 판들을 그의 손에 맡겼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임을 했다. 모든 증인은 앞서 말한 사실에 대해 간증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는, 심지어 열네 살밖에 되지 않았던 돈 카를로스 [스미스]까지도 이제 온전히 도래한 후기의 경륜의 시대의 참됨을 간증했다."[2]

조셉 스미스와 여덟 증인 조각, 게리 어니스트 스미스

주

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8, page 11–book 9, page 1, josephsmithpapers.org; capitalization and punctuation modernized.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56–57, josephsmithpapers.org.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금판을 보여 주는 천사 모로나이, 게리 비 스미스

마틴 해리스의 농장, 알 라운즈

2월 22일~28일

교리와 성약 18~19편

"영혼의 가치가 … 큼을"

교리와 성약에 있는 계시들은 약 200년 전에 있었던 특정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계시가 가르치는 원리는 시대를 초월한다. 교리와 성약을 읽을 때 그러한 원리들을 찾아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마틴과 루시 해리스는 뉴욕주 팔마이라에 아주 좋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농장을 매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농장 덕분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으며 지역에서 좋은 평판도 얻었다. 그러나 1829년, 마틴은 몰몬경 출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농장을 저당 잡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마틴은 몰몬경에 대한 간증이 있었지만 루시는 그렇지 않았다. 농장을 저당을 잡아놓고 몰몬경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농장을 잃을 뿐 아니라 결혼 생활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씩은 마틴이 직면했을 법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나는 무엇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것인가? 하지만 다음을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만큼 큰 대가를 치른 이는 없다.(교리와 성약 19:18)

마틴은 자신의 농장을 저당 잡히기로 결정했다. 그의 희생 덕분에 몰몬경 초판 5,000부가 출판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1억 9천만 권 이상이 출판된 이 책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축복했다.

몰몬경 출판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성도들』 제1권, 76~84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8:10~16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

교리와 성약 18편과 19편을 통틀어 회개와 회개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눈여겨보고,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특히 교리와 성약 18편 10~16절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 구절들의 내용은 회개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자신이 회개하는 일에 대해, 또한 다른 이에게 회개를 권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또한, 앨마서 36장 18~21절과 데일 지 렌런드, "회개: 기쁨을 주는 선택",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21~124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8:34~36

나는 교리와 성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교리와 성약 18편 34~36절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그분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9:15~2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고난을 겪으셨다.

신약전서에는 겟세마네에서 구주께서 겪으셨던 고통이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 19편 15~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겪으신 고통을 직접 말씀하셨다. 이 성스럽고 개인적인 기록을 읽으면서, 구주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와 문구를 찾아본다. 각 단어나 문구는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생각해 본다. 구주께서는 왜 그렇게 기꺼이 고통을 겪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바를 기록해 본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모사이야서 3장 7절, 앨마서 7장 11~12절, 교리와 성약 18편 10~13절을 참조한다.

영혼의 가치, 리즈 레몬 스윈들

교리와 성약 19:26~27, 34~41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땅의 보화보다 크다

팔마이라에서는 몰몬경이 잘 팔리지 않았다. 그 결과, 마틴 해리스는 빚을 갚기 위해 농장의 상당 부분을 팔아야만 했다.("마틴 해리스의 공헌", 『계시를 받은 배경』 참조) 이 구절을 읽을 때, 마틴의 희생과 그 덕분에 여러분이 받게 된 축복을 깊이 생각해 본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희생하도록 요청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구절들에서 여러분은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희생하도록 영감을 주는 어떤 내용을 찾았는가?(또한 15~20절 참조)

교리와 성약 19:2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따를 때 평화가 온다.

"내게서 배우[라]"는 구주의 권유를 깊이 생각해 본다. 교리와 성약 19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구주에 대한 이러한 진리들은 우리가 평안을 찾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본다. "[그분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8:1~5. 올리버 카우드리가 경험했듯이, 경전이 참되다는 진리를 영이 나타내 보였던 "여러 경우"에(2절) 대해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경전에 "기록된 것에 의지"할 수 있는가?(3절) 여러분은 어떻게 가족의 기초를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을까?(4절)

교리와 성약 18:10~13; 19:16~19. 가족들이 교리와 성약 18편 10~13절을 읽을 때 "영혼"과 "모든 사람" 대신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이 구절들이 아버지와 아들 앞에서 우리가 지니는 가치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해 볼 수 있다.(교리와 성약 19:16~19 참조)

교리와 성약 18:21~25.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름이 중요한 이유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모사이야서 5:7 참조) 이는 가족들이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19:15~20. 가족들이 이 성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이 개요에 수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이 구절들을 읽는다. 그런 다음, 구주에 대해 각자 느끼는 바를 서로 이야기해 본다. 평소 즐겨 부르던 구주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면 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질문을 한다. 교리와 성약은 질문이 계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기록한다.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허먼 클레멘츠

피터 휘트머의 집, 알 라운즈

3월 1일~7일

교리와 성약 20~22편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어남"

교리와 성약 20~22편을 읽으면서 성신이 전해 주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인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느낌을 기록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몰몬경 번역 작업은 완료되었지만, 회복 사업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초기 계시에 명백히 나타나 있듯이 주님께서는 교리와 신권 권능을 회복하는 것 외에도 그분의 교회를 공식적인 조직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셨다.(교리와 성약 10:53; 18:5 참조) 그리하여 1830년 4월 6일, 40여 명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을 목격하기 위해 뉴욕주 페이에트에 있는 휘트머 가족의 통나무집에 모였다.

하지만 조직된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여전히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에 대한 답은 1830년 첫 번째 교회 모임과 관련하여 주어진 계시에서 일부 찾을 수 있다. 이 계시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후기에 "합당하게 정식으로 조직되어 설립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 서술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20:1)

또한 『성도들』 제1권, 84~86쪽, "나의 교회를 세우라",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20:1~36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참된 교리 위에 세워졌다.

20편은 "교회 조직과 다스림에 관한 계시"라는 말로 소개되어 있다.(20편 머리말) 그러나 이 계시는 교회 정책, 신권 직분, 의식 집행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처음부터 36절까지 읽으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찾은 복음 진리를 나열해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진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몰몬경과 몰몬경이 회복에서 담당하는 역할(8~12절)
- 하나님의 본질(17~19절)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20~27절)

교회가 설립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교리와 성약 20:37, 75~79

성스러운 의식은 회복된 교회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침례 및 성찬과 같은 성스러운 의식들을 가르치셨다. 37절에 나오는 "침례 양식에 관"한 지침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침례받았던 때를 떠올려 본다. 여러분도 이 구절에 묘사된 것들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는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결심"을 생생히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본다.

교리와 성약 20편 75~79절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 이 성스러운 기도문을 처음 접한 사람의 관점에서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성찬과 자기 자신에 관하여 어떠한 통찰을 얻는가? 그러한 통찰에 힘입어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할 것인가?

성찬은 거룩한 의식이다.

교리와 성약 20:38~60

신권 봉사는 교회 회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축복한다.

누군가가 신권 소유자의 의무를 말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는가? 다양한 신권 직분별 의무가 나와 있는 교리와 성약 20편 38~60절을 읽는다. 이 구절들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통해 신권의 의무 및 구주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방식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이 구절들에 묘사된 의무를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교회의 일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신권 권세를 행사하는지 알아보려면, 댈린 에이치 옥스, "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49~52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21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살아 있는 선지자가 이끈다.

교리와 성약 21편 4~9절에서 주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관해 무엇을 배우는가? 주님의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6절의 약속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이 약속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5절) 오늘날 선지자는 6절에서 약속된 축복으로 이끌어 줄 어떠한 권고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20편. 왜 교회가 필요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 주겠는가? 교리와 성약 20편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있는가? 또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교회가 필요한 이유",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108~111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20:69.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걷]"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가족에게 그들이 거룩하게 걷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또는 방해가 되는 것들을 종이에 그리거나 적어 보라고 하면 그들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종이들로 길을 만들어 그 위를 걷게 하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하는 내용이 담긴 종이만 밟으면서 가게 한다.

교리와 성약 20:37, 71~74. 가족 중 아직 침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는지와(37절 참조) 침례가 어떻게 집행되는지에(71~74절 참조) 관해 토론해 본다. 서로 자신의 침례식 날 사진을 보여 주거나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20:75~79. 성찬식이 의미 있고 경건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의 가족은 이 이 구절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구절들에는 성찬식 시간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 가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찾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게 한다. 적절한 경우, 다음 성찬식 모임에 그 그림들을 가지고 가서 성찬식 동안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되새겨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21:4~7. 가족에게 4~5절에서 주님의 선지자를 따르는 것에 관한 가르침이 담긴 단어와 문구들을 찾아보게 할 수 있다. 인내와 신앙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6절에 약속된 축복을 언제 경험해 보았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예수 그리스도 교회", 『어린이 노래책』, 48쪽.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구주의 생애를 본받는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들어 올리는 구주의 권능은 그분이 사셨던 방식과 그분의 인품에서 왔다. 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좀 더 그분처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3쪽)

올리버 카우드리가 조셉 스미스를 성임하다, 월터 레인

3월 8일~14일

교리와 성약 23~26편

"교회를 강화하[라]"

교리와 성약 23~26편을 읽으면서 성신으로부터 받는 영적 느낌을 기록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욱 굳건해지고, 또한 교회를 강화하기 위해 이 계시에 나온 권고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느낌을 기록한다

교회가 조직된 이후, 성도들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복음을 전파하고 이미 교회에 연합한 사람들을 강화해야 하는 그들은 점점 더 큰 박해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다. 에머스미스는 사람들의 반대를 직접 목격했다. 1830년 6월, 에머와 나이트 가족 중 몇 사람은 침례를 받고자 했다. 그러나 교회의 반대 세력들은 성스러워야 할 침례식을 훼방 놓으려 했다. 먼저 그들은 성도들이 침례식에 쓸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쌓아 두었던 둑을 무너뜨려 버렸다. 둑은 보수를 했으나 그 뒤에도 박해자들은 몰려와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협박과 야유를 퍼부었다. 심지어 새로운 회원들에게 확인 의식을 집행하려던 순간에 조셉은 몰몬경을 전파하여 지역에 소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했다.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교회치고는 장래성이 없어 보이는 출발이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대격변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주는 [그분의] 음성"(교리와 성약 25:16)으로서 귀한 권고와 격려를 전하셨다.

또한, 『성도들』 제1권, 89~90쪽과 94~97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23~26편

나는 주님의 교회를 강화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회복된 교회가 조직된 지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교리와 성약 23:3~5) 그 일은 조셉 스미스나 올리버 카우드리, 또는 현재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교리와 성약 23~26편을 공부하는 동안, 초기 교회 회원들이 교회를 강화하는 일을 돕기 위해 주님께서 권고하셨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24편

구주께서는 나를 들어 "고난에서" 건져 내실 수 있다.

극심한 박해가 계속되는 시기에 교회를 이끈다는 것은 조셉 스미스에게 무거운 짐이었음에 틀림없다. 교리와 성약 24편에서 주님께서 조셉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을 찾아본다.

다음 성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내시는 방법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교리와 성약 24:1~3 _____

교리와 성약 24:8 _____

교리와 성약 121:7~8 _____

이사야 40:28~31 _____

모사이야서 24:14~15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 내셨는가? 여러분은 힘든 시기에 계속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25편

"택함을 받은 여인" 에머 스미스

에머 헤일은 조셉 스미스와 결혼할 때 자신이 앞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게 될 것임을 알았던 것 같다. 에머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좀 더 안락한 삶 대신 불확실한 삶을 선택했다. 에머는 회복 사업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했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25편에서 주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본다. 1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한다. 25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가?

또한 다음을 참조한다. "너는 택함을 받은 여인이니", 『계시를 받은 배경』; 조이 디 존스, "특별히 고귀한 부름",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15~18쪽.

교리와 성약 26:2

만장일치란 무엇인가?

회원들이 교회에서 부름이나 신권 성임을 받을 때 우리는 지지의 표시로 손을 들어 공식적으로 그들을 지지할 기회가 있다. 회원 전체의 공개적인 지지와 동의를 표현하는 이러한 원리를 만장일치라고 부른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지지하는 이 절차는 의례적으로 손을 들어 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자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돕겠다는 결의입니다."("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50쪽)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23:6.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가? "사랑의 기도"(『어린이 노래책』, 102쪽)를 비롯하여 기도에 관한 노래들은 기도의 힘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또한 니파이후서 32장 8~9절, 제3니파이 18장18~23절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24:8. 가족들과 함께 "고난 중에 인내하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면 유익할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계속 인내하십시오"라는 말씀에서 설명한 실험을 재현해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리아호나』, 2010년 5월호, 56쪽; 또한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해당 동영상 참조) 교리와 성약 24편 8절에는 인내에 관한 어떤 가르침이 나오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교리와 성약 25:11~12. 가족들과 함께 각자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또는 노래를 불러 보고, 왜 그 노래가 자신에게 "마음의 노래"가 되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 노래들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가?

교리와 성약 26:2. 경전 안내서에서 "만장일치"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표현하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목소리를 높여 노래 부르자", 『어린이 노래책』, 124쪽 (가족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참조)

회복의 소리

에머 헤일 스미스

교리와 성약 25편에는 에머 스미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은 주께서 에머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또한 그녀가 주님의 사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에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그녀의 성품과 인간관계, 강점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택함을 받은 여인"(교리와 성약 25:3)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녀를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읽는 것이다.

에머 스미스, 리 그린 리처즈

조셉 스미스 이세, 그녀의 남편

"그날 밤, 젊은 시절에 맞이한 사랑하는 나의 아내,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에머의 손을 잡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의 감정이 내 가슴을 부풀게 했다. 우리가 지나야 했던 많은 상황, 곧 우리가 걸었던 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슬픔과 고난, 즐거웠던 일들과 위안이 되는 것들을 잠시 생각했을 때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 아, 용감하고 확고한 그 사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사랑이 많은 에머가 다시 이곳에 있게 된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감정들로 내 가슴이 벅차올랐던지!"[1]

루시 맥 스미스, 시어머니

"에머는 젊고, 천성적으로 패기가 넘쳤으며, 주님의 사업에 온 마음을 쏟았다. 에머는 교회와 진리의 대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에머는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했으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따위의 이기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 장로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게 되면, 본인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든 개의치 않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들의 여장 꾸리는 일을 도왔다.[2]

달이 가고 해가 바뀌도록 온갖 종류의 노고와 고난을 그와 같은 불굴의 용기와 열의, 인내로 견뎌 내는 여성을 내 생전에 본 일이 없다. 그녀가 견뎌야 했던 일, 즉 불확실이라는 대양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며 박해라는 폭풍을 헤쳐 나가고, 인간과 악마의 분노에 맞서기를 역경의 바다에 삼키워질 때까지 했던 일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일들은 다른 여성이라면 벌써 질려 버렸을 만한 것들이었다."[3]

조셉 스미스 일세, 시아버지

당시 교회 축복사였던 조셉 스미스 일세에게서 받은 에머의 축복사의 축복문:

"나의 며느리인 에머, 그대는 그대의 충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았노라. 그대는 그대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것이며, 그에게 내릴 영광 안에서 기뻐할 것이니라. 그대의 영혼은 그대의 동반자를 파멸시키려는 자들의 간악함 때문에 고통받았노라. 그대는 온 영혼을 쏟아내어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나니, 기뻐하라. 그대의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간청을 들으셨도다.

그대는 그대의 친정 식구들의 완악함으로 비탄에 잠겼으며,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했노라. 주님께서는 그대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리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대로, 그들 중 몇몇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고 죄를 회개하게 하실 것이나, 그들은 고통을 겪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그대 앞에 많은 날들이 놓여 있노라.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대가 흡족할 때까지 그대를 살려 두실 것이며, 그대는 그대의 구속주를 보게 되리라. 그대의 마음은 주님의 위대한 사업 안에서 기뻐할 것이며 그 누구도 그대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리라.

천사가 나의 아들에게 니파이인의 기록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낮추시어 그대가 나의 아들과 동행하도록 허락하셨음을 항상 기억할지어다. 주님께서 그대의 세 자녀를 데려가셨을 때 그대는 큰 슬픔을 겪었으나 이는 그대의 탓이 아니니라. 주님은 나의 아들의 이름을 복되게 하기 위해 가정을 꾸리고자 했던 그대의 순수한 소망을 아시느니라. 이제 보라, 그대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대가 믿을진대 이 일에 있어서 그대에게 축복이 임하여 자녀들을 더 낳게 될 것이며, 그대의 영혼이 기뻐하고 흡족하며, 그대의 친구들도 함께 기뻐하리라.

그대는 이해력을 축복받을 것이며 여성들을 가르칠 권능을 갖게 되리라. 그대는 가족에게 의로움을, 어린 자녀들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칠지어다. 거룩한 천사들이 그대를 보호할 것이며 그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4]

에머 스미스와 자녀들. *함께 웃고,* 리즈 레먼 스윈들

주

1. Journal, December 1841–December 1842, 164, josephsmithpapers.org.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13, pages 7–8, josephsmithpapers.org.
3.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90, josephsmithpapers.org.
4. "Blessing from Joseph Smith Sr., 9 December 1834," Patriarchal Blessing Book 1, 4–5, josephsmithpapers.org.

에머의 찬송가, 리즈 레먼 스윈들.

3월 15일~21일

교리와 성약 27~28편

"모든 일은 질서 있게 … 행해져야 함이니라"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느낌을 기록할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너는 돌이킨 후에",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1쪽)

느낌을 기록한다

회복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계시는 여전히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다. 초기 교회 회원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도 그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금판의 여덟 증인 중 한 명인 하이럼 페이지가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믿게 되면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충실한 성도 중 많은 이들이 그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은 질서 있게 … 행해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응답으로 주셨다.(교리와 성약 28:13) 이는 교회 전체를 위한 "계명들과 계시들을 받도록 임명"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의미였다.(교리와 성약 28:2) 하지만 다른 이들도 주님의 사업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에 관한 개인적인 계시는 받을 수 있었다. 사실,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셨던 다음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 점을 상기시켜 준다. "네가 행해야 할 바가 네게 주어지리라."(교리와 성약 28:15)

또한 "모든 일은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함이니라",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27:1~4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성찬을 취해야 한다.

샐리 나이트와 에머 스미스는 1830년 6월에 침례를 받았으나 폭도의 방해 때문에 확인 의식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다. 두 달 후, 샐리와 그녀의 남편 뉴얼은 에머와 조셉을 찾아갔고, 그들은 바로 확인을 받은 후 함께 성찬을 취하고자 했다. 조셉이 성찬에 쓸 포도주를 구하러 가는 도중,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막아섰다. 천사는 조셉에게 성찬과 관련된 어떠한 가르침을 전했는가?(교리와 성약 27:1~4 참조)

구주께서 우리가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라시는지에 관해 이 성구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가?

성찬은 우리에게 구주의 희생을 기억하게 한다.

교리와 성약 27:15~18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악을 대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엠 러셀 밸라드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영적 능력은 수많은 작은 행동이 엮이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고 보호하는 영적 요새라는 직물이 짜여질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Be Strong in the Lord", *Ensign*, July 2004, 8)

교리와 성약 27편 15~18절을 읽으면서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각 부분을 착용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갑주의 각 부분	보호되는 신체 부위	신체 부위가 상징하는 것
의의 가슴판	가슴	우리가 바라고 사랑하는 것
구원의 투구	머리 또는 정신	

또한 에베소서 6장 11~18절, 니파이후서 1장 23절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28편

살아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주님의 대변자이다.

누구나 교회 전체를 위한 계명과 계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자. 하이럼 페이지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을 때 교회 회원들 사이에는 혼란이 일었다. 교리와 성약 28편에서 주님께서는 계시와 관련하여 당신의 교회 내의 질서에 대해 밝히셨다. 이 편에서 우리는 교회 회장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3절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이 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또한 댈린 에이치 옥스, "교통하는 채널",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83~86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28:8~9

올리버 카우드리가 레이맨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몰몬경의 한 가지 목적은 "레이맨인으로 하여금 자기 조상을 알게 하려 함이요, 그들로 하여금 주의 약속을 알게 하려 함"이다.(교리와 성약 3:20) 이 약속은 주님께서 여러 몰몬경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일맥상통한다.(예를 들어, 니파이전서 13:34~41; 이노스서 1:11~18; 힐라맨서 15:12~13 참조) 초기 교회 회원들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몰몬경 백성의 후손으로 여겼다.(오늘날 교회의 공식 입장은 레이맨인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들 중 하나이다"라는 것이다.[몰몬경 소개])

올리버가 근방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에게 행한 선교 사업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레이맨인에게 행한 선교 사업"(『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올리버의 선교 사업에서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27:1~2. 성찬을 취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 구주께서 치르신 희생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27:5~14.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선지자에 관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경전 안내서에서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그들이 지닌 열쇠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문이 열렸는가? 이러한 열쇠들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마태복음 16장 16~19절, 교리와 성약 110편 11~16절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27:15~18. 가족과 함께 모자, 조끼, 앞치마나 신발 등 전신갑주를 상징하는 복장을 걸치고 가상으로 전투를 벌여 보아도 흥미로울 것이다. 갑옷은 전투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 가족들이 직면하는 사악한 영향력과 영적인 갑옷을 입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토론해 본다.

교리와 성약 28:2~7. 우리는 이 성구에서 선지자의 부름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가족이 함께 살아 계신 선지자가 전한 이전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선지자의 권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28:11.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할 때 "단 둘이 따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선지자의 음성", 『찬송가』, 12장.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후기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공부한다. 여러분이 경전에서 찾은 원리와 관련된 후기의 선지자 및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어 본다. conference.ChurchofJesusChrist.org나 복음 자료실 앱에 있는 연차 대회 말씀 주제 색인을 참고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교리와 성약 27:16
의의 가슴판

교리와 성약 27:17
신앙의 방패

교리와 성약 27:18
구원의 투구

교리와 성약 27:18
내 영의 검

교리와 성약 27:16
진리의 허리띠

교리와 성약 27:16
평화의 복음의 준비를 위한 신발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제이 커크 리처즈

3월 22일~28일

교리와 성약 29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리라

경전을 공부하는 목적 중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교리나 복음 진리를 배우는 데 있다. 이번 주에 교리와 성약 29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교리적 통찰을 찾아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183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되었지만,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복음 진리가 많았기에 몇몇 초기 교회 회원들은 의문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들은 몰몬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집합과 시온 건설에 관한 예언을 읽었다.(제3니파이 21장 참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이럼 페이지가 그러한 주제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회원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교리와 성약 28편 참조) 일부 회원들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 및 영적 사망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다.

1830년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셨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의 명에 따라 기도로 단합하여 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29:6) 주님은 오늘날에도 그런 질문들을 반기신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로써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풍부한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와 성약 29편의 계시에서처럼,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본래 했던 질문들을 초월하는 진리와 지식을 주기도 하신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29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승영을 위해 완전한 계획을 마련하셨다.

교리와 성약 29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관한 많은 진리가 담겨 있다. 이 편을 읽으면서,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계획의 각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진리들이 나오는지 찾아본다.

- 전세(36~37절 참조)
- 창조(31~33절 참조)
- 아담과 이브의 타락(40~41절 참조)
- 지상 생활(39, 42~45절 참조)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1, 42~43, 46~50절 참조)
- 부활(13, 26절 참조)
- 마지막 심판(12~13절, 27~30절 참조)

여러분은 어떤 점을 새롭게 깨달았는가? 이런 진리를 몰랐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구원의 계획"(『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18], ChurchofJesusChrist.org/manual/missionary)을 참고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29: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교리와 성약 29:2) 이 비유는 우리를 모으시려는 구주의 소망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려 주는가? 교리와 성약 29편 1~8절을 읽으면서, 다음 주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우리는 왜 모이는가, 어떤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이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7절)

오늘날 시온으로 모인다는 말은 전 세계에 있는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도로서 모이면, 구주의 재림 전에 올 환난에 대비하여 "모든 일에 …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8절; 또한 14~28절 참조)

또한 신앙개조 제10조와 러셀 엠 넬슨과 웬디 더블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리즈 레몬 스윈들

교리와 성약 29:31~35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어떤 의미에서 모든 계명은 영적인가? 모든 계명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은 계명의 목적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계명 몇 가지를 나열하고, 각 계명과 연관된 영적 원리들을 생각해 본다.

현세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상에서도 영적인 의미나 목적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또한 로마서 8장 6절, 니파이전서 15장 30~32절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29:36–5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타락에서 구속하신다.

이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구속주라고 소개하시는 것으로 시작된다.(1절) 그리고 이 계시는 우리에게 구속주가 필요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36~50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여러 종교에서 타락은 비극으로 여겨진다. 이 성구에는 타락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르치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또한 고린도전서 15:22; 니파이후서 2:6~8, 15~29; 모사이야서 3:1~19; 모세서 5:9~12 참조)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29편. 가족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칠 때 이 개요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림과 교리와 성약 29편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그림 아래에 제시된 성구들을 읽고 토론하면서 구원의 계획의 각 부분을 공부할 수 있다. 또한 복음 주제(topics.ChurchofJesusChrist.org)나 경전 안내서(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더 많은 진리들을 찾을 수 있다. 배운 것을 기록한다. 우리는 왜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 각자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교리와 성약 29:2, 7~8. 구주께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그분이 택함받은 자들을 모으시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29:3~5. 이 구절들에서 여러분은 구주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알게 되어 "마음을 들어 올리고 즐거워하"게 되었는가?(5절)

교리와 성약 29:34~35. 이 구절들을 읽는 일은 여러분이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는 계명이나 선지자의 권고 이면에 담긴 영적인 이유에 대해 가족과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어떤 영적인 유익을 경험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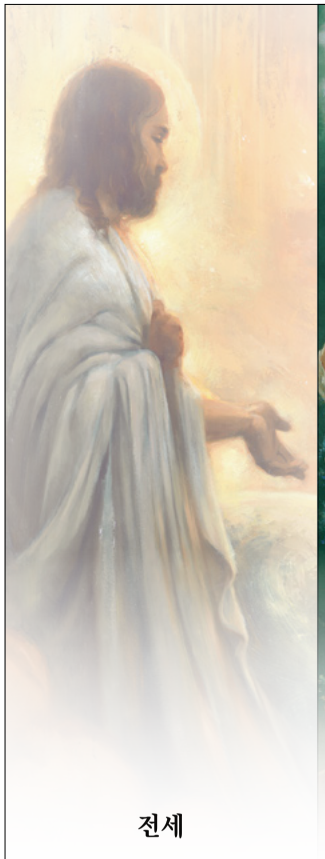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애통하는 이스라엘", 『찬송가』, 10장.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본다. 경전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가르친다.(모세서 6:62~63 참조) 여러분이 경전을 읽을 때 그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본다. 그분에 관해 가르치는 구절에 주목하거나 표시를 할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



전세

교리와 성약
29:36~37

창조와 타락

교리와 성약
29:31~33; 40~41

현세

교리와 성약
29:39~45

영의 세계

교리와 성약
138:29~37

부활과 심판

교리와 성약
29:12~13, 26~30

영광의 왕국

교리와 성약
76:50~98

3월 29일~4월 4일

부활절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부활절 일요일에 구주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할 때, 현대의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이 세상의 구속주이심을 믿는 여러분의 간증이 어떻게 깊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1836년 4월 3일은 부활절 일요일이었다. 새로 헌납된 커틀랜드 성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찬을 집행한 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성전 휘장 안쪽의 조용한 장소를 찾아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기도드렸다. 그러자, 모든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성스러운 날에, 부활하신 구주께서 그분의 성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교리와 성약 110:4)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단지 그분이 삼 일째 되던 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갈릴리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구주께서 오늘날 살아 계심을 의미한다. 주님은 오늘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구주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신다. 그분은 오늘날 상한 영혼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셉 스미스의 힘 있는 간증의 말을 되풀이할 수 있다.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 우리는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말에서 큰 기쁨을 느낀다. "내 구주 살아 계시다!"(『찬송가』, 68장)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29:5; 38:7; 62:1; 76:11~14, 20~24; 110:1~10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부활하신 구주를 여러 차례 뵈었다. 교리와 성약에는 그중 두 차례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 76편 11~14, 20~24절과 110편 1~10절을 읽는 동안 조셉 스미스의 간증에서 어떤 부분이 감명 깊게 다가왔는가? 그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귀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주께서는 교리와 성약 전반에 걸쳐서 당신의 사명과 신성에 대해 증언하셨다. 교리와 성약 29편 5절, 38편 7절, 62편 1절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대해 선언하신 내용들이 나오면 기록해 두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조셉 스미스—역사 1:17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29:26~27; 42:45~46; 63:49; 88:14~17, 27~31; 93:33~34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조셉 스미스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형제 중 앨빈과 돈 칼로스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그가 에머와의 슬하에 두었던 자녀 중 여섯 명도 두 살이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조셉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통해 죽음 및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계획을 영원한 관점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음 성구에 나온 진리들을 숙고해 본다. 교리와 성약 29:26~27; 42:45~46; 63:49; 88:14~17, 27~31; 93:33~34. 이러한 계시들은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엠 러셀 밸라드, "죽은 자의 구속에 대한 시현"(『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1~74쪽),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74~176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8:10~13; 19:16~19; 45:3~5; 76:69~7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부활절 절기에 구주께 초점을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속죄 희생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교리와 성약의 계시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시들은 다음 성구에서 찾을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8:10~13; 19:16~19; 45:3~5; 76:69~70. 각 성구에서 구주의 속죄에 관한 진리들을 찾아 목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면, "속죄하다, 속죄"(경전 안내서,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에 나오는 참조 성구들을 찾아서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다.

학습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지침으로 삼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고통받기로 선택하셨는가?
- 그분의 희생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그분의 속죄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도하시는 주, 김용성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연차 대회. 올해 연차 대회는 부활절 일요일과 기간이 겹치므로, 연차 대회 메시지(음악 포함)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족들의 간증에 깊이를 더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나 음악을 듣게 되면 구주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구주의 그림을 들어 올려 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가족들은 연차 대회에서 들은 구주에 관한 진리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후에 각자의 그림이나 목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눌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88:14~17; 138:17, 50. 가족들에게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비유 또는 실물 공과를 생각해 보라고 할 수도 있다. 손과 장갑처럼 육신과 영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한다. 이 성구들을 통해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더 깊어지는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현대 선지자들의 구주에 대한 간증에 관해 토론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족들에게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리아호나, 2017년 5월호, 안쪽 표지)에서 각자 다른 부분을 읽게 하고, 자신이 읽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서로 이야기해 본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내 구주 살아 계시다." 가족들이 부활하신 구주께서 오늘날 우리를 축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다음과 같이 해 볼 수 있다. "내 구주 살아 계시다"(『찬송가』, 68장)를 함께 부르고, 이 곡에서 가르치는 진리들과 다음 성구에 나온 진리들을 연결해 보게 한다. 교리와 성약 6:34; 45:3~5; 84:77; 98:18; 138:23. 자신은 구주가 살아 계심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각자 이 노래에 추가하는 가사로 써 보게 하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활절 영상과 다른 자료들을 보려면, Easter.ComeUntoChrist.org를 살펴본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어린이 노래책』, 44쪽.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일상적인 일에서 가르칠 소재를 찾는다. 가족들의 일상적인 경험이 어떻게 복음 진리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4쪽 참조) 예를 들어, 폭우가 내리는 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월터 레인

4월 5일~11일

교리와 성약 30~36편

"너는 …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경전에서 각자의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교리와 성약 30~36편에서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간구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팔리 피 프랫은 교회에 들어온 지 한 달 쯤 되었을 무렵 복음을 전파하러 "광야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32:2) 토머스 비 마쉬는 회원이 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네 선교사업의 시각이 이르렀음이라."라는 말을 들었다.(교리와 성약 31:3) 올슨 프랫, 에드워드 파트리지 및 다른 많은 이들도 거의 침례를 받자마자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당시는 1830년 가을이었고, 교회 회원이 된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전해 주는데, 그것은 침례로써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누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늘 더 많은 복음 지식을 쌓고자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배움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는 일도 결코 주저하지 않으신다.(교리와 성약 35:13) 사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입을 열어 내 복음을 선포"하라고 권유하신다.(교리와 성약 30:5)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영의 권능으로" 할 때 가장 잘 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35:13)

또한 "토머스 마쉬의 신앙과 타락", "에즈라 테이어: 회의론자에서 믿는 자가 됨",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올슨 프랫",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30~36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았다.

정식으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신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 선교사들에게 주신 주님 말씀의 대부분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 교리와 성약 30~36편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에 관해 배운 것을 기록한다. 주님께서 당신의 선교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들과(교리와 성약 30:8 참조)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교리와 성약 30:11 참조) 목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구절들은 전도 선교사 또는 교회의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거나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힘이 되겠는가? 어떤 내용을 읽고 복음을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가?

또한 교리와 성약 35:13~15, 러셀 엠 넬슨과 웬디 더블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0~12쪽)를 참조한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이다.

교리와 성약 31:1~2, 5~6, 9, 13

주님께서는 나의 가족 관계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

1830년대의 가족들은 오늘날의 가족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었다. 주님께서는 토머스 비 마쉬에게 그의 가족에 관한 어떤 권고와 약속을 주셨는가?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토머스 비 마쉬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성도들』 제1권, 79~80쪽과 119~120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32편; 35편

레이맨인에 대한 선교 사업은 실패했는가?

올리버 카우드리, 피터 휘트머 이세, 팔리 피 프랫, 지바 피터슨이 미주리주 서쪽 지역의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길을 나섰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후기에 레이맨인이 복음을 받게 되리라는 몰몬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예를 들어, 니파이전서 13:34~41; 이노스서 1:11~18 참조) 그러나 몇몇 부족과 긍정적인 만남이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 사업이 끝나 갈 때까지 단 한 명의 인디언에게도 침례를 주지 못했다. 하지만 미주리주로 가는 길에 들른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인근에서 그들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때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시드니 리그돈과 같이 미래의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얼마 후 커틀랜드는 성도들의 중요한 집합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성취하시는 방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또한 "레이맨인에게로 떠난 선교 사업",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33:12~18

내 삶을 구주의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운다면, 나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33편은 당시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노드롭 스위트와 에즈라 테이어에게 주어진 계시였다. 노드롭은 이 계시가 주어지고 얼마 안 되어 교회를 떠났다. 에즈라는 얼마 동안 충실하게 봉사했으나 결국에는 그도 교회를 떠났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복음의 "반석 위에" 얼마나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지 되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다.(13절)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구주께 끝까지 충실하게 남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진리를 찾았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30:2. 여러분의 가족은 "땅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가?

교리와 성약 31. 주님께서 토머스 비 마쉬에게 그의 가족들과 관련하여 주신 약속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족이 선교 사업을 통해 받은 축복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찬송가』, 146장)과 같이 이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찬송가를 불러 볼 수도 있다. 여러분의 가족은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눔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교리와 성약 33:7~10.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복음을 나누는 일을 설명하시기 위해 어떤 비유를 드셨는가? 여러분의 가족들은 이것 외에도 또 어떤 이미지, 혹은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비유들은 여러분의 가족이 복음을 나눌 창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토론은 복음을 나눌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을 역할극으로 꾸며 보는 활동을 해 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34:10. 10절에서 한 문구를 골라 가족 한 명에게 그 문구를 속삭이듯 말해 보라고 한다. 다른 가족들은 그 문구가 무엇인지 맞혀 본다. 그런 다음, 한 명에게 그 문구를 큰 소리로 말해 보라고 한다. 이 활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높"이라고 명하신 이유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나 선교사 되고 싶어라", 『어린이 노래책』, 91쪽.

회복의 소리

초기 개종자들

교회가 조직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음이라."(교리와 성약 4:4) 그 후 수개월 동안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를 찾아왔고, 그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다수의 초기 개척자들은 회복의 기초를 놓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들의 개종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한 가치가 있다. 그들이 보여 준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심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런 신앙이다.

아비가일 칼킨스 레너드

삼십 대 중반이 된 아비가일 칼킨스 레너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 아비가일은 이따금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들의 방문을 받기도 했지만, 이 교회와 저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성경을 가지고 숲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후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눈앞에 시현이 펼쳐졌다. 여러 종파가 하나씩 내 앞을 지나가는데 한 음성이 들렸다. '이들은 이익을 취하려 세워졌도다.' 그 후 나는 큰 빛을 보았고 하늘의 음성은 이렇게 외쳤다. '나는 한 백성을 세우리니, 이들을 기꺼이 내 것으로 삼고 축복하리라.'" 얼마 후, 아비가일은 몰몬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수중에 몰몬경은 없었지만, 아비가일은 "성신의 은사와 권능으로 그 책의 참됨을 알려고" 노력했으며 "즉시 성신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몰몬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기꺼이 그 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비가일과 그녀의 남편 라이먼은 1831년에 침례받았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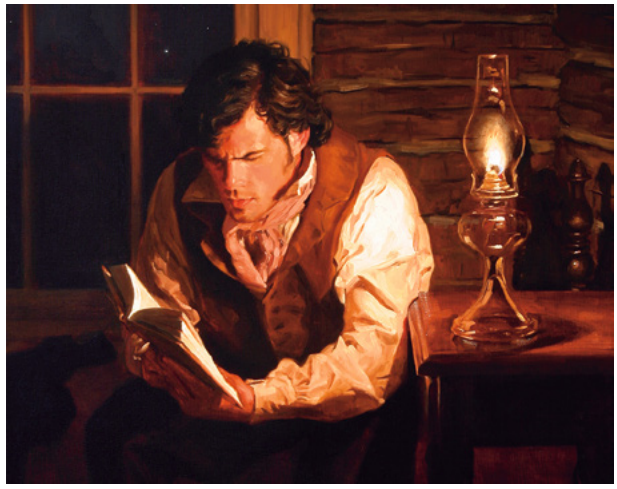
토머스 비 마쉬

토머스 비 마쉬가 청년이었을 때,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 교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모든 교회에서 탈퇴했다. 토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미약하게

나마 예언의 영이 있었다. 나는 [한 종교 지도자에게] 진리를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토머스는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 서부로 가라는 영의 속삭임을 받았다. 그는 뉴욕 서부에서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끝내 찾지 못한 채 석 달을 지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그는 한 여성으로부터 "조셉 스미스라는 청년이 발견한 황금 책"에 대해 들어 보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에 마음이 사로잡힌 토머스는 그 길로 팔마이라로 달려가서 인쇄소에 있는 마틴 해리스를 만났다. 당시 그곳에서는 몰몬경의 첫 16페이지가 막 인쇄되어 나오던 참이었다. 토머스는 16쪽 분량의 인쇄본을 건네받았고, 곧장 아내 엘리자베스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토머스는 이렇게 회상했다. "아내는 정말 기뻐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었다." 토머스와 엘리자베스는 후에 자녀들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침례받았다.[2](토머스 비 마쉬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교리와 성약 31편을 참조한다.)

팔리와 생크풀 프랫

토머스 마쉬처럼 팔리와 생크풀 프랫도 영의 속삭임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성경에서 이해한 대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목적을 세우고 오하이오에 있는 비옥한 농장을 떠났다. 팔리는 그의 남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근 들어 내 마음에 이러한 영이 너무 강하게 임해서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어."[3] 그들이 뉴욕 동부에 도착했을 때, 팔리는 그 지역에 조금 더 머물러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결정을 했고, 생크풀은 팔리를 두고 계속해서 가기로 했다. 팔리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지역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일을 마치면 뒤따라갈게요."[4] 그리고 그곳에서 팔리는 몰몬경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책에 이상하게 관심이 끌렸다."[5] 그는 몰몬경을 받아서 밤새도록 읽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팔리는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책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값진 것임을 알았다.[6] 팔리는 며칠 후에 침례를 받았다. 그는 곧 생크풀과 재회했고, 생크풀도 침례를 받았다.(팔리 피 프랫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교리와 성약 32편을 참조한다.)



팔리 피 프랫, 제프리 하인

시드니와 피비 리그돈

팔리 프랫은 동료들과 함께 뉴욕에서 선교 임지인 미주리주까지 가는 길에 오하이오주 멘토에 들러 오하이오에 있을 때 알았던 오랜 친구 시드니 리그돈과 피비 리그돈의 집으로 갔다. 시드니는 기독교 목사였으며, 팔리는 한때 시드니가 이끄는 신도 중 한 명으로서 그를 영적 지도자로 여겼었다. 팔리는 시드니와 피비에게 몰몬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전했다. 시드니도 신약전서에 묘사된 참된 교회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처음에 그는 몰몬경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 책을 읽어는 보겠습니다." 시드니는 팔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노력해 보지요."[7] 그로부터 2주 동안 공부하고 기도한 후, 시드니와 피비는 그 책이 참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시드니는 그가 이 교회에

가입한다면 가족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지역 사회에서 목사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잃게 될 것이 분명했다. 시드니가 피비에게 이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피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 생각해 보았어요. … 제가 바라는 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8]

주

1. See Edward W. Tullidge, *The Women of Mormondom* (1877), 160–63.
2. "History of Thos. Baldwin Marsh," *Deseret News,* Mar. 24, 1858, 18.
3.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1938), 34.
4.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36.
5.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37.
6.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39; 또한 『성도들』 제1권, 92~94쪽 참조.
7. In History, 1838–56 [Manuscript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A-1, 73, josephsmithpapers.org.
8. In History, 1838–56 [Manuscript History of the Church], volume A-1, 75, josephsmithpapers.org.

광야로 들어가라, 로버트 티 배럿

성3 샘 롤러

4월 12일~18일

교리와 성약 37~40편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지혜를 간직해 두라"라는 하나님의 권고에 순종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공부를 하면서 떠오르는 느낌을 적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38:30)

느낌을 기록한다

초기 성도들에게 교회는 일요일에 설교를 듣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교회를 설명하실 때 대의, 왕국, 시온이란 단어들을 사용하셨고, 일이라는 말도 꽤 자주 쓰셨다. 바로 이런 점도 다수의 초기 회원들을 교회로 이끈 이유였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교회의 회복된 교리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삶을 헌신할 어떤 과업을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1830년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오하이오로 집합하라는 명은 일부 성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피비 카터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부름은 안락한 집을 두고 낯선 국경 지대로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본 개요 끝에 있는 "회복의 소리" 참조) 당시 성도들이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을 오늘날의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즉, 주님께서는 오하이오에 그들을 위한 큰 축복들을 예비해 두셨다.

오하이오로 집합해야 할 필요성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오늘날의 성도들도 같은 목적과 같은 사업, 즉 "시온을 일으"키기 위해 여전히 단합한다.(교리와 성약 39:13) 그 시절의 초기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염려"를(교리와 성약 40:2) 떨쳐 버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네가 이제까지 결코 알지 못하였던 큰 축복을 받게 되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39:10)

또한, 『성도들』 제1권, 109~111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37:1

1830년에 조셉 스미스는 무엇을 번역하고 있었는가?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번역"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조셉 스미스가 영감에 따라 진행한 성경 개정 작업을 뜻한다. 조셉이 37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창세기의 몇 장에 대한 작업을 마쳐서 에녹과 그의 시온 성에 관한 내용을 막 배운 참이었다.(창세기 5:18~24; 모세서 7장 참조) 주님께서 에녹에게 가르치셨던 몇 가지 원리들은 그분이 38편에서 밝히신 원리들과 비슷하다.

또한 교회 역사 주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ChurchofJesusChrist.org/study/topics를 참조한다.

시드니 리그돈과 함께 영감에 따라 성경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조셉 스미스. 삽화: 애니 헨리 네이더

교리와 성약 38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모으신다.

주님께서는 오하이오로 집합하라는 명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으셨다. "보라,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교리와 성약 37:4) 그러나 모든 성도가 그 명에 담긴 지혜를 곧바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주님은 38편에서 그분의 지혜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셨다. 우리는 11~33절에서 집합이 가져오는 축복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교회 회원들은 이제 더는 특정 장소로 이주하여 집합하라는 명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집합하는가? 이러한 축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러셀 엠 넬슨,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79~81쪽 참조)

38편을 마저 읽으면서, 성도들이 오하이오로 집합하라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할 신앙을 갖는 데 어떤 구절이 도움이 되었을지 찾아본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들과 그 계명들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신앙에 관해 생각해 본다. 다음 질문들을 지침으로 삼아 학습할 수 있다.

- 1~4절에는 주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 39절의 내용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이 희생을 요구할 때에도 그것에 순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밖에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38:11~13, 22~32, 41~42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도들은 이미 극심한 박해를 겪었지만, 주님께서는 더 많은 시련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계셨다.(교리와 성약 38:11~13, 28~29 참조) 성도들의 두려움을 덜어 주시기 위해 주님은 다음과 같은 귀중한 원리를 계시하셨다.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잠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 38편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에 대비함으로써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들과 관련하여 영이 속삭여 주는 내용에 귀를 기울인다.

또한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근심하지 말라",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8~21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39~40편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39편~40편과 각 머리말에 나와 있는 역사적 배경을 읽고, 제임스 코빌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던 적을 생각해 본다.(교리와 성약 40:1) 여러분이 충실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또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염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교리와 성약 39:9; 40:2) 이 구절들에는 여러분에게 더욱 한결같이 순종하도록 영감을 주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또한 마태복음 13:3~23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37:3. 성도들이 오하이오에 집합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을 가족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개요에 수록된 지도를 참조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38:22.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의 "입법자"로 세울 수 있을까? 그분의 법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38:24~27. 자녀에게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자녀에게 가족들을 한 명씩 세어 보라고 한 다음, 각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게 한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녀에게 종이에 1을 크게 그리고 가족들의 이름, 그림, 사진으로 장식해 보라고 한다. 가족의 단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종이에 적어 볼 수도 있다. 또한, 모세서 7장 18절을 읽어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38:29~30. 최근에 가족이나 개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했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준비한 덕분에 그 일들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기를 바라시는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40편. "세상의 염려"(2절)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는 데 장애물이 되는 세상의 염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랬죠", 『어린이 노래책』, 39쪽.

회복의 소리

오하이오로 집합하다

커틀랜드 마을, 알 라운즈

Phebe Carter

피비 카터는 1830년대에 오하이오로 집합했던 수많은 성도 중 한 명이었다. 피비는 이십 대 중반에 미국 북동부에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부모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피비는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오하이오로 가겠다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

"친구들은 내 결정에 놀랐고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집을 떠나겠다는 내 결심에 어머니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상심하셨다. 내 마음에 임한 영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국 흔들리고 말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홀로 비정한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어 땅에 묻히는 것을 보는 게 낫겠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간곡하게 말씀하셨다. '피비, 몰몬이즘이 거짓이란 걸 알게 되면 돌아와 주겠니?'

나는 이렇게 답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하시는 듯했다. 하지만 헤어지는 것

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이윽고 떠날 날이 되었다. 나는 얼굴을 마주 보며 작별을 고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 각각에게 작별 인사를 적어 탁자에 올려놓고는 계단을 뛰어 내려와 마차에 올라탔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나는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랑하는 집을 떠나 왔다."[1]

피비가 가족들에게 남긴 작별 인사의 일부 내용은 이러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는 이 집을 한동안 떠나려고 해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절대자께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명을 주시는 듯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절대자의 손에 맡기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환경에서 함께 살도록 허락되었던 것에 그저 감사하려고 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창조된 만물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시길 바랄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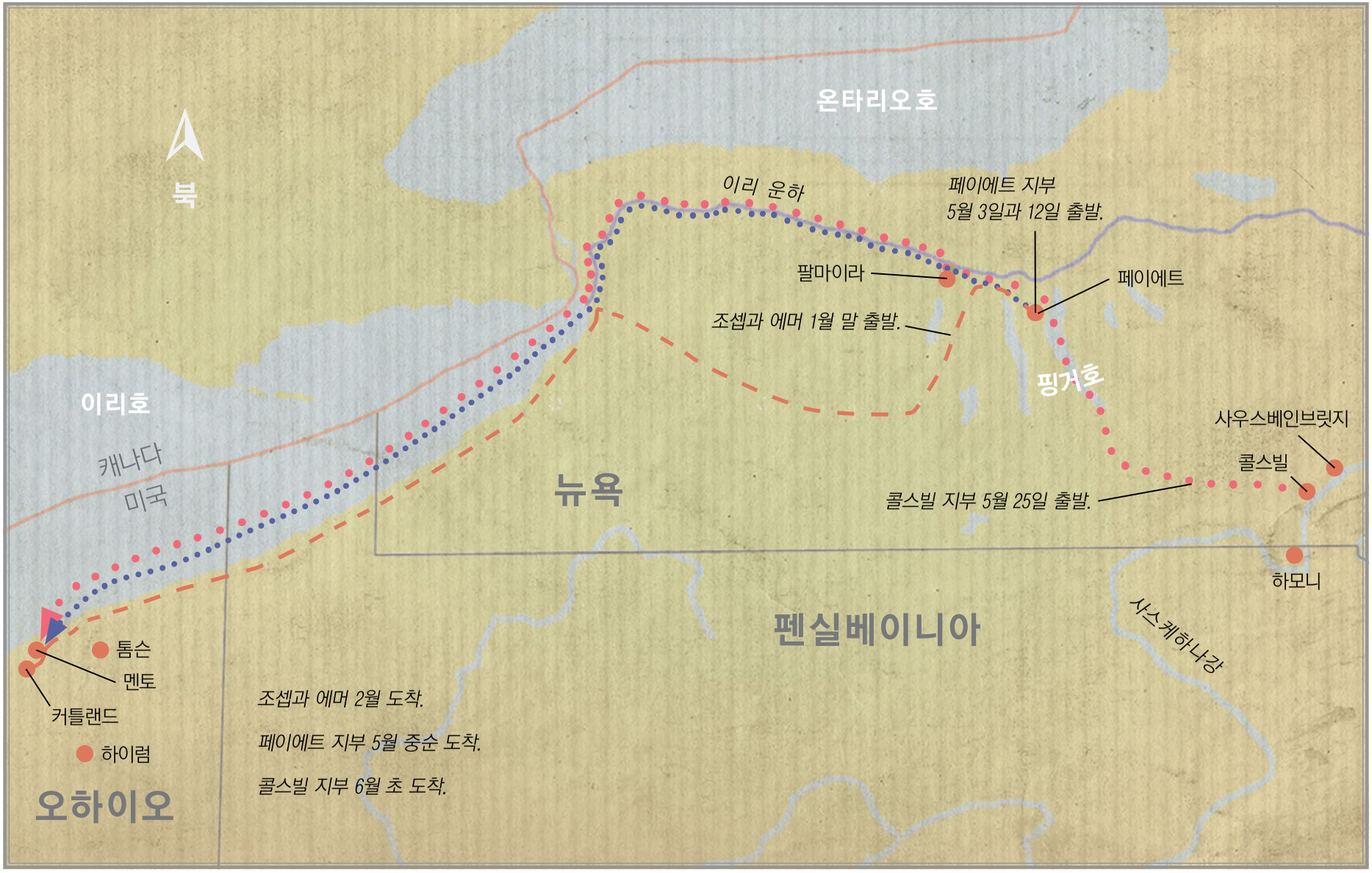
어머니, 제가 서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에 대한 확신이 든 건 꽤 오래 전의 일이에요.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영이 필요한 일들을 해 주셨음을 믿어요. 부디 제 염려는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돌봐 주시고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어요. … 주께서 부르시므로 저는 이제 갑니다. 그분은 제 의무를 분명하게 알려 주셨어요."[2]

주

1. In Edward W. Tullidge, *The Women of Mormondom* (1877), 412.

2. Phebe Carter letter to her parents, no date,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punctuation modernized. 피비는 1834년 교회에 들어왔고, 1835년에 오하이오로 이주했으며, 1837년에 윌포드 우드럽과 결혼했다.

1831년 미국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 오하이오주 지역



4월 19일~25일

교리와 성약 41~44편

"나의 교회를 다스리는 나의 율법"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만일 네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교리와 성약 42:61) 자신에게 필요한 계시를 받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느낌을 기록한다

1830년에서 1831년 사이에 교회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새로운 개종자들이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대거 유입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성도들은 큰 기쁨과 힘을 얻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었다. 빠른 속도로 몸집이 커지는 신도들의 단체가 있다고 할 때, 그들 각자가 이전 종교에서 따르던 교리와 관행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면 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한 예로, 1831년 2월 초에 커틀랜드에 도착한 조셉 스미스는 새로운 회원들이 신약전서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순수한 취지로 공용 자산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사도행전 4:32~37 참조)

주님께서는 친히 "나의 교회를 다스리는 나의 율법"이라고 일컬으신 교리와 성약 42편의 계시를 통해 이 사안과 다른 사안들과 관련된 관행을 바로잡으시고 더욱 명확히 설명해 주셨다.(59절) 이 계시에서 우리는 후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진리들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더 배울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약속도 그러한 진리 중 하나였다. "만일 네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교리와 성약 42:61)

또한 『성도들』 제1권, 114~119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41편

"나의 율법을 받고 행하는 자, 그가 나의 제자니라."

1831년 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오하이오에서 계시하시기로 약속하신 율법을 받고자 열망하면서 그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교리와 성약 38:32 참조)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율법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먼저 가르치셨다. 1~5절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을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원리들은 여러분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교리와 성약 42편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며, 우리의 삶도 다스릴 수 있다.

성도들은 교리와 성약 42편 1~72절에 있는 계시를 지금껏 선지자가 받은 가장 중요한 계시 중 하나라고 여겼다. 이것은 두 개의 오하이오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처음으로 출판된 계시가 되었으며, 단순하게 "율법"으로 알려졌다. 42편에 담긴 원리들은 대부분 주님께서 이전에 밝혀 주신 것들이었다. 이 편에는 주님께서 성도들이 지키기를 바라시는 모든 계명이 다 담겨 있지는 않다. 하지만 새로 회복된 교회에 이러한 원리들을 반복하여 전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를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

42편을 다음과 같이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서 읽고, 각 단락에서 가르치는 원리들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이 율법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도 인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4~9, 11~17, 56~58절 _____

18~29절 _____

30~31절 _____

40~42절 _____

43~52절 _____

또한 제3니파이 15:9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42:30~42

성도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그들의] 소유 중에서 헌납"했는가?

42편에 계시된 율법 중에는 헌납의 법과 청지기 직분으로 알려진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 이 율법은 성도들이 고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처럼 어떻게 "모든 물건을 공유하고"(사도행전 2:44; 제4니파이 1:3)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모세서 7:18) 성도들은 그들의 재산을 감독을 통해 주님께 바침으로써 헌납했다.(교리와 성약 42:30~31 참조) 감독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되돌려 주었는데(32절 참조), 주로 그들이 헌납한 것과 그 이상을 주었다. 회원들은 잉여물이 생기면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했다.(33~34절 참조) 이 율법은 성도들 중에서도 오하이오에 오기 위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온 성도들에게 특히 큰 축복이 되었다. 성도들은 대부분 후하게 기부했다.

그 방식 면에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후기 성도들은 여전히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교리와 성약 42편 30~4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궁핍한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헌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본다.

또한 린다 케이 버튼, "나그네 되었을 때"(『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3~15쪽), "율법", 『계시를 받은 배경』,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그리스도와 부유한 젊은 관리, 하인리히 호프만

교리와 성약 42:61, 65~68; 43:1~16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자 계시를 주신다.

교회가 계시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알고 흥미 있어 하는 새로운 교회 회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주님의 선

지자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교리와 성약 43편 1~16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것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교리와 성약 42편 61, 65~68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또한 "모든 일은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함이니라", 『계시를 받은 배경』,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41:1~5. 민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이나 계명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가족들과 함께 각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42:45, 88. 가족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또한 모사이야서 4:14~15 참조)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써 주거나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찬송가』, 174장)과 같은 가족 간의 사랑에 관한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42:61. 함께 퍼즐을 맞추면서 이 구절을 읽을 수도 있다. 퍼즐을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비밀을 밝히시는 방식, 즉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주시는 방식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리를 한 번에 조금씩 알려 주셨던 경험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

교리와 성약 43:25. 25절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족들은 무언가를 활용하여 우레(천둥) 소리를 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은 어떤 면에서 "우레의 음성"과 같은가?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본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주님의 복음 따라", 『어린이 노래책』, 72쪽; 가족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참조.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족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대하는 방식은 가정에 거하는 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과 질문, 간증을 편안하게 나누고,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들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와준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5쪽 참조)

Joseph Smith Preaching in Nauvoo[나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조셉 스미스], 샘 롤러

4월 26일~5월 2일

교리와 성약 45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받은 느낌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5쪽)

느낌을 기록한다

우리가 위태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근심스러운 일일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있을 재앙에 관해 예언하시는 것을 듣고 "근심하"였다.(교리와 성약 45:34)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었던 초기 성도들도 그들이 살던 위태로운 시기 때문에 근심했다. 무엇보다도, "많은 거짓 소문과 …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복음 메시지를 손상하고 있었다.(교리와 성약 45편, 머리말) 그러나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응답하신다.(35절) 사악함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신다는 증거 또한 있다. 재림에 앞서 위험이 닥치리라는 것이 예견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위험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징조이기도 하다. 그 징조 중 많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교리와 성약 45편의 계시가 "성도들에게 기쁘게도" 받아들여진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45편 머리말)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45:1~5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거나 합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교리와 성약 45편 1~5절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변호자", "변호하다"라는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구주는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 또는 여러분의 문제를 변호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은 이 성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수는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그분의 성역과 수고를 통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in Conference Report, Oct. 1953, 58)

또한 니파이후서 2:8~9, 모사이야서 15:7~9, 모로나이서 7:27~28, 교리와 성약 29:5, 62:1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45:9~10

복음은 나라들 가운데 세운 기이다.

고대에는 전장에 기를 가지고 갔다. 기는 병사들을 하나로 모으고, 어디로 모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렸다. 교리와 성약 45편 9~10절을 읽으면서 복음 성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가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이런 성약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한 이사야 5:26, 11:10~12, 교리와 성약 115:5~6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45:11~75

주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구주의 재림 전에 전쟁과 죄악과 황폐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이 될 때 너희와 맺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가 알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5:35)

교리와 성약 45편 11~75절을 공부할 때 이 부분에 예언된 근심스러운 사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에도 초점을 맞춰 볼 수 있다.(구주의 복천년 통치에 관한 54~59절의 약속 등) 그렇게 하기 위해 목록을 만들어 보거나 해당 구절에 표시를 할 수 있다. 마지막 날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을 찾았는가?

교리와 성약 45:31~32, 56~57

"거룩한 곳에 서서" 옮기우지 말라.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를 가르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교리와 성약 45편 31~32절, 56~57절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1~13절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다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구주께서는 이 비유에서 진리와 성령을 기름에 비유하셨다.(교리와 성약 45:57 참조) 이런 방식으로 열 처녀의 비유를 읽으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가?

열 처녀의 비유, 댄 버

교리와 성약 45:11~15, 66~71

시온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한 안전한 장소이다.

조셉 스미스 시대의 성도들은 몰몬경과(이더서 13:2~9 참조)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모세서 7:62~64 참조) 기록된 대로 시온, 즉 새 예루살렘을 세우고자 열망했다. 교리와 성약 45편 11~15절, 66~71절에서 우리는 에녹 시대의 고대 도성과 후기의 도시인 시온에 관하여 어떤 것을 배우는가?

오늘날 시온을 세우라는 명은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원한 성약"(9절)이라는 안전함으로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시온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한 복음 주제, "시온", topic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45:3~5. 변호자는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 동영상 "중보자"(ChurchofJesusChrist.org)를 시청하고 구주께서 왜 우리의 변호자이신지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45:9~10.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결심을 나타내는 "기"가 가정에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 함께 가족 기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 표준을 따르도록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활동이 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45:32. 우리에게 "거룩한 곳"은 어디인가? "옮기우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45:39~44. 구주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를 가족들이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일을 떠올려 보고 그 일을 "깨어서 … 기다리"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또는 함께 음식을 구워 보고 그것이 다 익었다는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볼 수도 있다. 여러분은 깨어서 구주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리와 성약 45:55. 니파이전서 22장 26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읽어 보면 사탄이 복천년에 어떻게 "묶[일]"지를 가족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사탄을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이 노래책』, 46~47쪽; "가족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참조.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경전 학습 보조 자료를 활용한다. 경전에 대한 더욱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 각주와 경전 안내서를 활용한다.

그리스도의 오심, 후발 아빌레스 사엔스

야영 모임, 워딩턴 위드리지

5월 3일~9일

교리와 성약 46~48편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되"

교리와 성약 46~48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기록한다. 그런 다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말씀한 것처럼 "제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라고 질문해 볼 수있다.("영적인 인도를 얻음",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쪽)

느낌을 기록한다

팔리 피 프랫과 올리버 카우드리, 지바 피터슨, 피터 휘트머 주니어가 커틀랜드를 떠나 다른 선교 임지로 이동하게 되자, 커틀랜드에는 열정은 넘치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지침을 잘 모르는 백여 명의 개종자들만이 남겨졌다. 그들에게는 지침서도, 지도자 훈련 모임도, 연차 대회 방송도 없었으며, 심지어 몰몬경도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새로운 개종자 중 다수는 놀라운 방법으로 영의 나타내심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믿고 회복된 복음에 이끌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로 신약전서를 공부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1~11 참조)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를 볼 때 땅에 쓰러지거나 뱀처럼 온몸을 비트는 기이한 방식이 교회 모임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어떤 것이 영의 나타내심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혼란을 목도한 조셉 스미스는 기도로 도움을 간구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가치가 있는데, 특히 사람들이 자주 성령의 일들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 더욱 그렇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나타내심은 실재하며,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 … 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선물임을 명확히 밝히셨다.(교리와 성약 46:9)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46:1~6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은 모두 주님의 교회에서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임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가장 잘 포용하며 영감을 주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교리와 성약 46편 1~6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권고하시는가?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여러분의 와드 예배 모임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가? 여러분은 교회를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회 모임에서 성신을 따르려 노력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또한 제3니파이 18:22~23, 모로나이서 6:5~9, "초기 오하이오 개종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종교적 열광",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46:7~3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초기 성도들은 영적인 은사를 믿었지만, 그것이 주어지는 목적에 관한 지침이 다소 필요했다. 교리와 성약 46편 7~33절에서 영의 은사에 관해 공부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 주어지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지 깊이 생각해 본다.(8절) 이 구절들이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다음 말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다. "이러한 은사는 그리스도께 충실한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은사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입니다."("Gifts of the Spirit," *Ensign,* Feb. 2002, 16)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영적인 나타내심에 관하여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진리는 여러분이 "속지 않"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8절)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26절) 사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언급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복음 주제, "영적 은사", topic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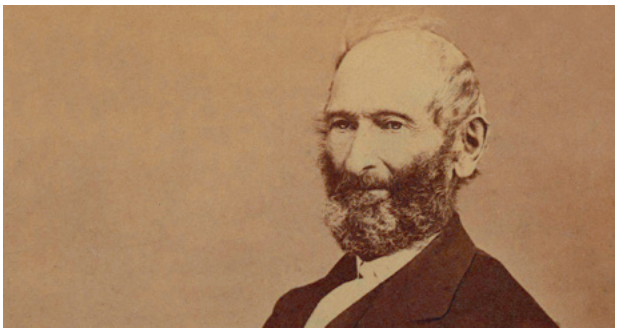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47편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역사가 기록되기를 원하신다.

존 휘트머에게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라는 부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기록 보존자를 두었던 오랜 전통을 따르는 일이었다.(니파이후서 29:11~12; 모세서 6:5; 아브라함서 1:28, 31 참조) 교회 역사가 및 기록자라는 직책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주님께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는가? 47편에서 이 부름에 관하여 존 휘트머에게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읽으며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또한 여러분은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르침 중 보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교회 역사가 및 기록자로 봉사했던 칠십인 정원회의 말린 케이 젠슨 장로의 다음과 같은 통찰을 숙고해 본다.

"우리는 기억을 돕기 위해 기록을 합니다. …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 과거를 통해 얻은 교훈은 우리가 현재를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 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리아호나』, 2007년 12월호, 26, 30쪽)



존 휘트머는 교회 역사를 기록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46:2~6.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임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또한 제3니파이 18:22~23 참조) 이 개요에 수록된 그림을 토론에 활용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46:7~26. 우리는 서로에게서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는가? 그러한 은사는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47편. 이번 한 주 동안 가족들이 각자의 개인 역사를 기록해 보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개인 일지를 일부분 보여 주거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FamilySearch.org 참조) 어떤 가족은 매주 시간을 정해 모두 각자의 일지를 기록하기도 한다. 일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언을 줄 수도 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 미래의 손주에게 알려 주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또는 "이번 주에 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어떻게 느꼈는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어린 자녀는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다. "정규 역사"를(1절) 기록할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교리와 성약 48편. 오하이오 성도들은 미국 동부에서 오하이오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라는 명을 받았다. 우리는 다른 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찬송가』,182장)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이야기와 실례를 활용한다. 구주께서는 복음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자주 이야기와 비유를 활용하셨다. 가족들이 복음 진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2쪽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도록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

5월 10일~16일

교리와 성약 49~50편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여러분은 어떻게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구주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교리와 성약 50:44) 그분은 양들이 때로 방황하며, 광야에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땅에 나아가 있으면서 세상을 속이는 거짓 영"과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교리라는 피난처로 이끄신다.(교리와 성약 50:2)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많은 경우 잘못된 생각이나 전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일부 잘못된 믿음을 고수했던 레먼 코플리와 오하이오에 있던 일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교리와 성약 49편에서 주님께서는 결혼 및 주님의 재림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레먼이 예전에 믿고 있던 바를 바로잡아 주는 진리들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오하이오에 있는 개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들을 … 받아들"이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의 참된 나타내심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다.(교리와 성약 50:15) 선한 목자는 인내심이 많으셨다. 그분은 이 초기 성도들이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은혜로 또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야만 하"는 "어린아이"임을 아셨다.(교리와 성약 50:40)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49:5~23

복음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알아볼 수 있다.

레먼 코플리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 재현 신자 연합회, 또는 셰이커교로도 알려진 종교 단체에 속해 있었다.(“레먼 코플리와 셰이커교”, 『계시를 받은 배경』 참조) 레먼과 이야기를 나눈 조셉 스미스는 셰이커교의 가르침 몇 가지를 명백히 이해하기 위해 주님께 여쭈었고, 주님은 49편의 계시를 응답으로 주셨다.

49편 머리말에서 셰이커교의 믿음 중 몇 가지를 볼 수 있다. 5~23절에서 그러한 믿음을 바로잡는 진리에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해 둘 수도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거짓 가르침이나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음 진리는 무엇일까?

교리와 성약 49:15~17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교리와 성약 49편 15~17절에서 결혼에 관하여 어떤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은 왜 남녀 간의 결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유 1: 남성과 여성에게 있는 영의 본질은 서로를 완전하게 해 주고 온전하게 해 주는 것이며,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승영을 향해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 이유 2: 신성한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이 세상에 자녀를 데려와야 하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51~52쪽)

또한 창세기 2:20~24, 고린도전서 11:1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을 참조한다.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교리와 성약 50편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오하이오의 새로운 개종자들은 경전에 약속된 영적인 나타내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사탄 역시 그들을 속이기를 열망했다. 새로운 개종자들은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거나 기절하는 것이 성령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여러분이 새로운 개종자가 성신의 참된 나타내심을 인식하고, 그것을 흉내 내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상상해 본다. 그럴 때 나눌 수 있는 어떤 원리를 교리와 성약 50편에서 찾았는가?(특히 22~25, 29~34, 40~46절 참조)

또한 디모데후서 3:13~17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50:13~24

교사와 학습자는 영으로 함께 교화된다.

교리와 성약 50편 13~24절을 공부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교사와 학습자를 그림으로 그리고, 각 그림 옆에 이 구절에서 복음 학습과 가르침에 대해 가르쳐 주는 단어와 문구들을 나열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서 영의 중요성을 배웠던 경험을 언제 해 보았는가? 복음 학습자 및 교사로서 자신이 노력하는 바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49:2.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기 원하나 모두 알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림의 일부분을 가리고, 가족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맞혀 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진리를 일부분만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니파이후서 28:29 참조) 충만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교리와 성약 49:26~28. "내가 너희에 앞서 갈 것이요, 또 너희의 후군이 되리라.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니"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에] 앞서 [가]"시거나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50:23~25. 다 같이 어두운 방에 모여 교리와 성약 50편 23~25절을 읽고, 초에 불을 하나씩 붙이거나 전구를 하나씩 켜면서 방을 조금씩 밝혀 본다. 또는 아침에 일출을 보면서 이 구절들을 읽어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복음 빛이 계속하여 밝아지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주중에 복음에 관해 새로운 것을 배우면, 그것을 쪽지에 써서 스탠드 조명이나 집안의 다른 전등에 붙여 놓음으로써 함께 나누어 보자고 권유한다.

교리와 성약 50:40~46. 교리와 성약 50편 40~46절을 읽은 후, 이 개요에 수록된 구주의 그림을 보여 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구주께서 양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주는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목자와 같으신 분인가? 구주는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구절은 무엇인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빛을 발하라", 『어린이 노래책』, 96쪽.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융통성을 발휘한다. 가정에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즉흥적이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폭풍우가 칠 때 생수에 관해 간증할 수도 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할 바[를] 바로 그 순간에"(교리와 성약 100:6) 알려 주실 것이다.

다정하신 목자, 김용성

First Furrow(첫 번째 고랑), 제임스 태일러 하우드

5월 17일~23일

교리와 성약 51~57편

"충실하고 의로우며 지혜로운 청지기"

경전을 공부하면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경전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주셨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18:34~36 참조)

느낌을 기록한다

1830년대의 교회 회원들에게는 성도들을 집합시키고 시온 성을 건설하는 것이 영적인 일인 동시에 현세적인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 일에는 처리해야 할 현실적인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정착할 토지를 매입하고 배분하는 일을 해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책과 다른 간행물을 출판해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시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화를 제공할 상점을 운영해야 했다. 교리와 성약 51~57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담당할 사람들을 지정하고 가르침을 주셨으며,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를 시온의 "중심지"로 정하셨다.(교리와 성약 57:3)

토지 매입과 출판 및 상점 운영과 같은 능력은 시온 건설의 현세적인 일에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이 계시를 통해 당신의 성도들이 시온 백성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충실하고 의로우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맡은 책임을 "굳게 지"키도록 명하신다.(교리와 성약 51:19; 52:15; 54:2)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가 보유한 현세적인 기술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삼아 시온을 세우실 수 있으며, "그 도시를 속히 세우"실 것이다.(교리와 성약 52:43)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51편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실하고 의로우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신다.

만일 여러분이 1831년에 교회 회원이었다면, 감독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양도함으로써 헌납의 법에 따라 살라는 권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감독은 여러분이 기부한 만큼, 때로는 잉여금을 얹어서 돌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며, 여러분은 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지니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그 절차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헌납과 청지기 직분의 원리는 주님의 사업에서 필수적이다. 쿠엔틴 엘 쿡 장로의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세상 사람 대다수가 자신은 하나님께 어떤 보고도 드려야 할 책임이 없으며 누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나 청지기 직분이 없다고 믿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자기 만족에 집중하고 … 자신이 형제를 지키는 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회원들은 이러한 청지기 직분을 성스러운 책임이라고 믿습니다."("청지기 직분—성스러운 책임",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91쪽)

51편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는지 생각해 본다. "청지기"(19절)와 "헌납"(5절)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가? 51편과 쿡 장로의 말씀에서 우리는 청지기가 된다는 말의 의미에 관한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을까?(특히 9, 15~20절 참조)

또한 마태복음 25:14~30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52:14~19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를 피하는 규범을 알려 주셨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나타내심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초기 성도들은 자신이 속임을 당할까 봐 염려스러워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15절) 교리와 성약 52편 14~19절에서 주님은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규범을 알려 주셨다.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간파하기 위해 이러한 규범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한 이 규범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볼 수도 있다. 이 성구에 나오는 문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적어 본다. "나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하는가?"

교리와 성약 54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상처를 받을 때 주님께 의지할 수 있다.

오하이오로 집합한 성도들 중에는 뉴욕 콜스빌에서 뉴얼 나이트가 이끌고 온 성도들 무리도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살 장소가 필요했다. 레먼 코플리는 커틀랜드 인근에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는 성도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콜스빌 성도들이 그 땅에서 정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플리는 신앙이 흔들렸고, 약속을 깨뜨렸으며, 성도들을 자신의 땅에서 쫓아냈다.(『성도들』 제1권, 125~128쪽 참조)

54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께서는 뉴얼 나이트에게 성도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다. 이 계시는 다른 사람이 약속을 깨거나 그릇된 선택을 한 여파로 영향을 받게 될 때 도움이 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레먼 코플리가 교회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오하이오 농장 부지

교리와 성약 56:14~20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고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이 성구에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어디인가? 재물에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영혼을 "썩게 할" 수 있는가?(16절) 물질적인 것에 대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18절)

또한 야곱서 2:17~21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51:9. 가족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한 가지 하고, 만약 누군가가 속임수를 썼다면 그 놀이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이야기해 본다. 서로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직함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교리와 성약 52:14~19. 이 성구에 설명되어 있는 규범에 관해 토론하면서, 바느질 견본이나 공예품 만들기 견본처럼 우리가 따르는 다른 종류의 규범들을 살펴볼 수도 있다. 우리가 속임수를 피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규범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견본으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53:1. 여러분이 시드니 길버트처럼 "[자신의] 부르심"에 관하여 주님께 여쭤본 경험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54:2; 57:6~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굳게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54:2) 가족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일들을 열거해 보라고 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55편. 주님께서는 작가이자 인쇄업자인 윌리엄 펠프스의 능력을 어떻게 쓰셨는가?(예를 들어, 찬송가에서 그가 작곡한 찬송가 목록을 참조한다.) 가족들과 함께 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들에 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의 사업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골짜기 흐르는 시냇물", 『어린이 노래책』, 116쪽.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학습 일지를 기록한다. 일지나 노트에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질문, 또는 영감을 기록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Bishop Partridge Receives Consecration[헌납을 받는 파트리지 감독], 앨빈 베셀카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알 라운즈

5월 24일~30일

교리와 성약 58~59편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경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개인적인 질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음으로써 성신을 초대하고 성신의 영감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신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in David A. Edwards, "Are My Answers in There?" New Era, May 2016, 42)

느낌을 기록한다

교회의 장로들에게 시온의 도시가 세워질 부지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의 첫 인상은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다. 어떤 이들은 그곳이 충실한 성도들이 있는 번화한 산업 도시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곳은 인구 밀도가 낮은 변방의 개척지였고, 문명도 그들이 익숙하게 누려 왔던 수준보다 뒤떨어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성도라기보다는 거친 접경 지역 정착민에 가까웠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시온으로 오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온을 세우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주님께서 1831년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다. "너희는 …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난 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지금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58:3) 그렇다. 삶은 환난과, 심지어 사악함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한다.] 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27~28절)

또한 『성도들』 제1권, 127~133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58:1~5, 26~33, 44; 59:23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의 부지런함에 따라 온다.

성도들은 미주리주 잭슨군에 시온의 토대를 놓았으며 그곳에서 많은 시련을 견디었다. 성도들은 그들 생전에 이 지역이 번성하여 모든 성도들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성도들은 잭슨군에서 추방당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시온의 구속을 잠시 동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계시를 주셨다.(교리와 성약 105:9)

다음 성구를 공부하면서 축복이 잠시 보류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본다. 다음 질문들은 이 성구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58:1~5; 59:23. 이 성구에는 더욱 참을성 있게 환난을 견디는 능력을 키워 주는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가? 여러분은 환난을 겪고 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어떤 축복들은 왜 환난을 겪은 후에야 온다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58:26~33.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리와 성약 58:44. "신앙의 기도"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에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교리와 성약 59편, 머리말

폴리 나이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폴리 나이트와 그녀의 남편인 조셉 나이트 일세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다. 폴리와 조셉 부부는 몰몬경 번역 사업에서 선지자에게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나이트 가족은 오하이오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뉴욕주 콜스빌을 떠났으며, 이후에 미주리주 잭슨군으로 이주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주 과정에서 폴리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시온을 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폴리는 미주리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 (『성도들』 제1권, 127~128쪽, 132~133쪽 참조) 교리와 성약 59편은 폴리가 사망하던 날 주어진 계시이며, 1절과 2절은 구체적으로 그녀를 언급하고 있는 듯 보인다.

교리와 성약 59:9~19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현세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적지 아니한 계명으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특히 한 가지 계명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셨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날"을 지키라는 계명이다.(교리와 성약 59:4, 9) 교리와 성약 59편 9~19절을 공부하면서, 시온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이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9절)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나의] 헌신"을 바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10절)

다음 성구들을 읽고 나서, 안식일을 더욱 완전한 방법으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창세기 2:2~3; 출애굽기 20:8~11; 31:13, 16; 신명기 5:12~15; 이사야 58:13~14; 마가복음 2:27; 요한복음 20:1~19; 사도행전 20:7.

sabbath.ChurchofJesusChrist.org에 있는 안식일에 관한 동영상이나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러셀 엠 넬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29~132쪽과 경전 안내서, "안식일"을 참조한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포함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58:26~29. 가족들은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그것은 모두 "훌륭한 대업"인가? 주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들에게 이번 주에 "많은 의를 이룩"하기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나중에 자신이 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보고하듯 이야기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58:42~43. 가족들은 이 성구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이 성구는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59:3~19. "계명으로 … 면류관을 [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4절) 5~19절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읽으면서, 이러한 계명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써 받았던 축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설명하면서 "기쁨", "유쾌한", "즐거운"과 같은 말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주목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안식일이 더욱 기쁜 날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묘사된 카드로 짝 맞추기 놀이를 할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59:18~21. 우리는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21절) 산책이나 사진 감상을 하면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18절) 여러분이 찾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린 후, 이러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본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 본 어떤 경험이 있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찬송가』, 163쪽.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경전 구절을 나눈다. 가족들이 개인 경전 공부를 하며 찾은 성구 중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한다.

삽화: 마티 메이저

미주리강가의 모닥불, 브라이언 마크 테일러

5월 31일~6월 6일

교리와 성약 60~62편

“모든 육체는 내 손안에 있나니”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간증이 자랄 것입니다. 헌신이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은 강화되고 개인적인 계시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말씀의 힘”,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9쪽)

느낌을 기록한다

1831년 6월, 조셉 스미스는 커틀랜드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대회를 열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몇몇 장로들을 동반자로 짝을 지어 주신 후 미주리주 잭슨군으로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주셨다. “가는 도중에 … 전도하[라.]”(교리와 성약 52:10) 많은 장로들이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그 말을 따르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커틀랜드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몇 [장로들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입을 열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준 재능을 숨김이니라.”(교리와 성약 60:2) 우리 중에는 이 장로들에게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입을 열어 복음을 나누기를 망설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입을 열지 못할 수도 있다. 또는 자신의 합당함이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주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과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를 아”신다.(교리와 성약 62:1) 초기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계시들에는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두려움, 또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안의 메시지가 곳곳에 담겨 있다. “이는 나 주가 위로 하늘에서 … 다스림이니.” “내가 능히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육체는 내 손안에 있나니.” “어린아이들아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이라.]”(교리와 성약 60:4, 7; 61:6, 36)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60; 62

주님은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나눌 때 기뻐하신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복음을 나눌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렇게 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 주님께서 "입을 열려 하지 [않은]" 초기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생각해 본다.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어떤 점에서 "재능" 또는 하나님이 주신 보화와 같은가? 때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재능을 숨[기]"는가?(교리와 성약 60:2; 또한 마태복음 25:14~30 참조)

주님께서는 이 초기 선교사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지만, 또한 그들을 격려하시고자 했다. 60편과 62편에서 주님이 주신 고무적인 메시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메시지는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자신감을 키워 주는가? 이제부터 입을 열 기회를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나눈다.

또한 교리와 성약 33:8~10, 103:9~10,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선교 사업: 마음속 소중한 것을 나누는 일",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15~18쪽을 참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를 바라신다.

교리와 성약 61:5~6, 14~18

모든 물이 주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교리와 성약 61편에 등장하는 주님의 경고는 부분적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당시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었던 미주리강을 건너 시온으로 이동할 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배로 여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물에 대한 권능을 포함하여 "모든 권능"을 지니셨다.(1절)

교리와 성약 61~62편

주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우리를 보전하실 수 있다.

커틀랜드로 돌아오는 길에 조셉 스미스와 교회 지도자들은 미주리강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을 했다.(『성도들』 제1권, 133~134쪽 참조) 주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그분의 종들에게 경고와 가르침을 주셨다. 교리와 성약 61편에는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 주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는 어떤 가르침이 나오는가? 예를 들어,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존재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1절)

62편에서도 유사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 계시에서 그분과 그분이 지니신 권능에 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주님의 도움으로 영적, 물리적인 대적을 극복함으로써 신앙을 키울 수 있었던 경험을 깊이 생각해 본다.

교리와 성약 62편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보기에 좋"은 결정을 하기를 바라신다.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도록 맡기기도 하신다. 교리와 성약 62편에는 이러한 원리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또한 교리와 성약 60:5; 61:22 참조) 여러분은 삶에서 이러한 원리를 어떤 방식으로 경험했는가? 우리가 어떤 결정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내리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누가복음 2:18~25, 교리와 성약 58:27~28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60:2~3. 일부 초기 선교사들은 어떤 이유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을 주저했는가? 우리가 때로 복음을 나누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역할극으로 꾸며 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61:36~39. 이 구절에는 우리가 "기뻐"할 어떤 이유들이 나오는가?(또한 요한복음 16:33 참조) 가족들은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을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기뻐함" 병에 넣어 둘 수 있다.(구주의 그림과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연상시키는 것들을 반드시 함께 넣어 둔다.) 가족들은 주중에 자신이 행복한 이유를 떠올려야 할 때, 병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61:36. 구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가족들이 기억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구주의 그림을 집안 어디에 놓으면 가장 눈에 띌지 함께 결정한다. 어떻게 구주를 우리의 일상에 임하시게 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62:3. 이 구절을 읽은 후 가족 간증 모임을 할 수 있다. 간증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엠 러셀 밸라드 회장의 "순수한 간증"(『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0~43쪽) 중 일부분을 나눈다. 간증을 기록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62:5, 8. 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명령을 다 주시지는 않는 것일까? 8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간증", 『찬송가』, 58장.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영의 인도에 따라 공부한다. 성신의 인도를 따른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성신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성신은 여러분이 그날그날 배워야 하는 것을 배우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며, 그것은 본래 여러분이 읽거나 공부하는 주제나 방법과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선한 목자, 델 파슨

Spring Hill, Daviess County, Missouri[미주리주 데이비스군 스프링 힐], 가스 코빈슨 오일

6월 7일~13일

교리와 성약 63편

"위에서 오는 것은 성스러우며"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너희는 영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63:64) 영이 여러분의 학습을 인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시온 성의 위치가 정해졌다. 교회 지도자들은 부지를 방문하여 그곳을 성도들의 집합 장소로 헌납했다. 조셉 스미스의 역사에는 "시온의 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세적인 관심사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63편, 머리말) 하지만 시온에 대한 견해는 엇갈렸다. 많은 성도들은 미주리주에서 집합을 시작하고자 열망했다. 반면, 에즈라 부스와 같은 사람들은 시온 땅에 대해 실망했고 그런 의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실제로, 미주리에서 커틀랜드로 돌아온 조셉은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교회에 불화와 배도가 스며들었음을 발견했다. 교리와 성약 63편에 담긴 계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토지 매입과 성도들을 미주리주로 이주시키는 사안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사안을 말씀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시의적절한 일깨움을 주셨다. "나 주가 나의 음성을 발하나니, 순종할지니라."(5절) 그분의 음성과 뜻, 그리고 그분의 명은 모두 "위에서 오는 것"이므로, 냉소적으로 대하거나 생각 없이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성스러우며 신중히 … 말해야" 한다.(64절)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63:1~6, 32~37

주님의 분노는 악한 자와 거역하는 자에게 불붙는다.

이 계시가 주어질 당시, 조셉 스미스는 그에게 등을 돌린 일부 교회 회원에게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었다.(“에즈라 부스와 아이잭 몰리”, 『계시를 받은 배경』 참조) 교리와 성약 63편 1~6절, 32~37절에서 주님께서는 “악한 자와 거역하는 자”에 관하여 어떤 경고를 하셨는가? 그러한 경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는가?

교리와 성약 63:7~12

표적은 신앙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온다.

표적이나 기적만으로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 커틀랜드의 감리교 목사였던 에즈라 부스는 1831년 초에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친구인 엘사 존슨의 팔을 기적적으로 고치는 것을 보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부스는 몇 달 만에 신앙을 잃고 선지자를 비판하게 되었다. 기적까지 목격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교리와 성약 63편 7~12절을 읽으면서 그것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표적을 받는 반면(12절), 어떤 이들은 “정죄에 이르게” 하기 위해 표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11절) 여러분이 읽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표적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마태복음 16:1~4, 요한복음 12:37, 몰몬서 9:10~21, 이더서 12:12, 18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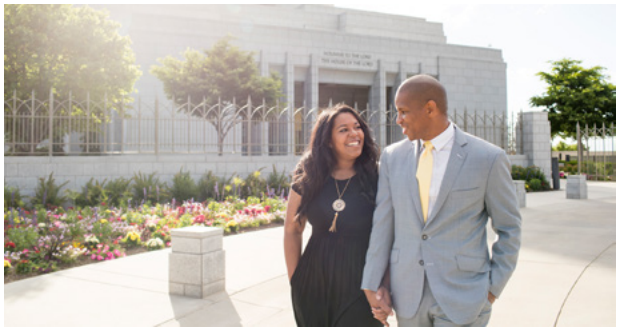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63:13~23

순결이란 늘 깨끗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 63편 13~19절에서 구주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에도 심각한 영적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육욕이 그토록 치명적인 대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욕은 우리 영혼에 영을 파괴하는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멸의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관계를 더럽히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관계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느끼는 사랑이며, 부부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계획된 가족으로 자녀를 데려 오려는 소망입니다.”(“내 영혼의 원수를 위한 자리는 없나니”,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44쪽)

교리와 성약 63편 13~19절에서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음행을 한 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0절과 23절에서 충실한 자들에게 구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잘 살펴본다. 순결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순결함을 유지하거나 순결하게 되도록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가?

또한 교리와 성약 121:45, 린다 에스 리브즈,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됨”,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11쪽을 참조한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깨끗이 유지할 때 축복을 받는다.

교리와 성약 63:24~46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 및 현세적 업무를 지시하신다.

주님께서 시온이 세워질 장소를 밝히신 후, 오하이오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부터 이주를 시작하고 토지 매입 자금은 어디에서 마련할지에 대한 인도가 여전히 필요했다. 교리와 성약 63편 24~46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시온에 관하여 주신 영적 및 현세적 인도를 찾아본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및 현세적 인도를 주시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63:7~12. 엘사 존슨이 치유되는 것을 목격하고도 교회를 떠난 에즈라 부스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기적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에 있는 간략한 이야기와 본 개요에 수록된 그림 참조) 가족이 경험한 일이나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앙을 키워 주었던 기적들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그들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신앙을 어떻게 행사했는가? 교리와 성약 63편 7~12절에서 신앙과 기적의 관계에 관하여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63:13~19. 우리는 외설물 등의 합당하지 못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AddressingPornograph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가족을 위한 유익한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순결의 법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63:23. 가족들이 "왕국의 여러 비밀"이나 복음의 진리가 어떤 면에서 "생수의 샘"과 같은지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함께 가까운 샘이나 강을 찾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또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 줄 수도 있다.) 복음 진리는 어떤 면에서 물과 같은가?

교리와 성약 63:58. 우리는 63편에서 어떤 경고들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어떤 경고를 듣는가?

교리와 성약 63:58~64. 가족들에게 귀한 가보를 하나 보여 준다. 우리가 가보를 다루는 방식은 그것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다른 물건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다른가? 교리와 성약 63편 58~64절은 우리가 성스러운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경건은 사랑이지요", 『어린이 노래책』, 12쪽.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배운 것을 실천한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낄 때, 여러분은 배우는 것을 적용하고 싶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 지식 및 간증은 강화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9쪽)

엘사 존슨의 어깨를 고침, 샘 로울러

미주리주 데이비스군

6월 14일~20일

교리와 성약 64~66편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실까?' 또는 '그분은 내가 어떤 것을 느끼기를 바라실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경전을 펼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전에는 한 번도 든 적이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하나님께서 경전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 2019년 2월 6일, blog.ChurchofJesusChrist.org)

느낌을 기록한다

1831년 8월의 폭염 속에서, 장로들 몇몇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미주리주의 시온 부지를 조사한 후 커틀랜드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리 썩 유쾌한 여정은 아니었다. 여정을 함께했던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시드니 리그돈, 에즈라 부스와 여러 장로들은 더위에 지쳐 있었으며, 정신적 긴장감은 곧 언쟁으로 발전했다. 사랑과 단합과 평화의 도시인 시온을 세우는 일은 요원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1831년 미주리에서든 오늘날 우리 마음속과 와드에서든, 시온을 세우는 일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너희에게는 … 용서할 것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64:10) 그분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34절)하시며, 또한 인내심과 근면함을 요구하신다. 시온은 "선을 행함에 지치지" 않는 자들에 의해 "작은 일"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기 때문이다.(33절 참조)

또한 『성도들』 제1권, 133~134쪽과 136~137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64:1~11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교리와 성약 64편 1~11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던 때를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누군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구주의 동정심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10절) 용서하는 일이 어렵다면, 구주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다음 자료의 가르침을 살펴본다. 제프리 알 홀런드, "화해의 성역",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7~79쪽; 경전 안내서, "용서하다",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교리와 성약 64:31~34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려 애쓰다가 "지[친]" 적이 있는가? 교리와 성약 64편 31~34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본다. 하나님께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34절)

교리와 성약 64:41~43

시온은 "백성에게 기"가 될 것이다.

"기"는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 또는 정체성으로 하나가 되어 주위로 모이게 되는 깃발 또는 군기[이다]."(경전 안내서, "기(Ensign)",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시온 또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점에서 여러분에게 '기'와 같은 존재였는가? 다음 성구를 참고하여, 깃발처럼 높이 들어 올림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물건의 예를 생각해 본다. 민수기 21:6~9; 마태복음 5:14~16; 앨마서 46:11~20. 이러한 성구들을 보면서, 교회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교리와 성약 64편 41~43절에서 주님은 또 어떤 방식으로 시온을 묘사하셨는지 찾아본다.

자유의 기치를 손에 든 모로나이 장군, 게리 이 스미스

교리와 성약 65편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태는 침례 요한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자로 묘사했다.(마태복음 3:3; 또한 이사야 40:3 참조) 교리와 성약 65편에서 주님께서는 후기에 있을 그분의 사업을 이와 비슷한 표현을 들어 묘사하신다. 침례 요한이 한 일과(마태복음 3:1~12 참조)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 계시에서 여기에 나온 예언의 성취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백성 가운데 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4절)

교리와 성약 66편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아신다.

윌리엄 이 매클렐린은 교회에 들어온 직후 조셉 스미스에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조셉은 모르고 있었지만, 윌리엄은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답해 주시기를 바랐던 개인적인 질문 다섯 가지가 있었다. 우리는 윌리엄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계시, 곧 지금의 교리와 성약 66편을 통해 그의 모든 질문이 "한 치도 모자람 없이 흡족하게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윌리엄 매클렐린의 다섯 가지 질문", 『계시를 받은 배경』)

66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윌리엄 매클렐린에 대해, 그리고 그의 마음속 걱정과 의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셨는지 생각해 본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축복사의 축복문을 받았다면 그것을 공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성신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무엇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가?

또한 『성도들』 제1권, 138~140쪽과 복음 주제, "축복사의 축복", topic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64:8~10. 가족 관계는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배울 많은 기회가 된다. 서로 용서했을 때 가정에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고난을 겪"는가?(8절)

교리와 성약 64:33.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하길 바라실까? 성전에 가거나, 이웃과 복음을 나누거나, 다툼을 극복하는 일 등이 있을 것이다. 가족들은 각자 돌멩이나 단추, 퍼즐 조각처럼 작은 물건을 모아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활용하여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음을 표현해 본다. 이번 주에 가족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선택한다.

교리와 성약 66:3. 여러분은 회개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일부분만 깨끗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온 후, 주님께서 윌리엄 매클렐린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읽는다. "너는 깨끗하도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니." 그런 다음, 접시를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는지 토론해 본다.

교리와 성약 66:10. 여러분의 가족은 "부담이 될 것을 구하지 말라", 즉 해야 할 많은 일들로 마음에 짐을 지우지 말라는 주님의 권고를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일화(누가복음 10:38~42 참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일들로 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토론한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불친절한 자", 『어린이 노래책』, 52쪽.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언제든 다가오기 쉬운 사람이 된다 가르침을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때로 가족들이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나 염려가 있을 때 시작되기도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한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 준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6쪽 참조)

용서받았도다, 그레그 케이 올슨 승인을 받아 사용함. www.GregOlsen.com

6월 21일~27일

교리와 성약 67~70편

"온 지상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

교리와 성약에 있는 많은 계시들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인물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계시들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교리와 성약의 진실성에 대한 십이사도의 증언", 교리와 성약 소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진리와 원리들을 찾아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1828년부터 1831년까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다. 그중에는 개인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고와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관한 가르침 및 후기에 관한 영감 어린 비전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그러한 계시들을 읽어 본 적이 없었다. 그 계시들은 아직 출판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회원들은 낱장 종이에 손으로 옮겨 적은 몇 안 되는 계시들을 서로 돌려 보았으며, 선교사들도 그것을 들고 선교 사업을 다녔다.

1831년 11월, 조셉은 교회 지도자 평의회를 소집하여 계시를 출판하는 것에 관해 토론했다. 주님의 뜻을 구한 후, 지도자들은 지금의 교리와 성약의 전신인 계명의 책을 출판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곧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선지자를 통해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될 것이었으며, 그것은 "우리 구주의 왕국에 관한 비밀의 열쇠가 다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나 지금의 성도들은 이 계시들을 "온 지상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긴다.(교리와 성약 소개)

『성도들』 제1권, 140~143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67:1~9; 68:3~6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과 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을 지지하신다.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들을 출판하자는 결정은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일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이 과연 좋은 생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 가지 우려 사항은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적을 때 사용한 언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었다. 67편의 계시는 그러한 걱정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다. 1~9절에서는 선지자와 계시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68편 3~6절에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68:1~8

성신으로부터 오는 영감은 주님의 뜻을 반영한다.

이 성구에 담긴 말씀은 올슨 하이드와 몇몇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서 저 백성에게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써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주어진 것이다.(1절) 4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러분이 "성신에 감동되"어 무언가를 말하고 행했던 때를 생각해 본다.(3절)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영적 속삭임을 따르라는 확신을 주는 내용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68:25~28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

본부 초등회 회장인 조이 디 존스 자매는 이렇게 가르쳤다. "죄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도록 돕는 [한 가지] 열쇠는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교리와 원리를 경전, 신앙개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 초등회 노래, 찬송가,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88쪽)

교리와 성약 68편 25~28절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존스 자매가 말한 "기본적인 복음의 교리"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중요한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은 자녀에게 이런 것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해 주겠는가?

또한 태드 알 콜리스터, "자녀의 복음 교육에서 주된 교사: 부모",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32~34쪽을 참조한다.

가정은 자녀가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이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67:10~14.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에서 시기심, 두려움, 자만심은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가? "육에 속한 사람"이 주님의 면전에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12절; 또한 모사이야서 3:19 참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하"도록(13절) 영감을 주는 내용은 무엇인가?

가족이 함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그러므로 너희도 종국에는 온전하라"(『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40~42쪽)를 살펴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68:3~4. 주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은 "주의 뜻"이며, "주의 생각"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간증을 키울 수 있었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한다.(4절) 또는 가족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적용할 수 있는 최근 연차 대회 말씀을 찾아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68:25~35. 이 성구에는 "시온의 … 주민"에게(26절) 주어지는 중요한 권고가 담겨 있다. 이 성구를 읽고 난 후에 어떤 점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나오는 원리 몇 가지를 그림으로 그린 뒤 집 곳곳에 숨겨 놓는다. 그런 뒤, 며칠 뒤에 누군가가 그림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를 기회로 삼아 그 그림에 담긴 원리를 가르친다.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기에 가정이 가장 최적의 장소인 이유는 무엇일까?

교리와 성약 69:1~2. 올리버 카우드리는 선지자의 계시가 적힌 원고를 인쇄하기 위해 미주리주로 갔다. 그는 그곳에 교회를 짓기 위한 자금도 함께 들고 갔다. 주님은 1절에서 올리버의 여행과 관련하여 어떤 권고를 주셨는가? "참되고 충실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1절)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옳거나 그른 결정을 내린 경험을 해 보았는가? 그것은 언제였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70:1~4. 주님께서는 특정 장로들에게 계시를 출판하는 일을 감독하도록 책임을 주셨다. 비록 그러한 구체적인 책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계시들과 계명들을 맡을 청지기"로 여겨질 수 있을까?(3절)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사랑 넘치는 우리 집", 『찬송가』, 166장.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경전을 생활 속에서 적용한다. 한 성구를 읽은 후, 가족들에게 그것을 생활에 적용해 보라고 권유한다. 예를 들어, 그 성구에 나오는 복음 원리와 관련된 비슷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라고 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의 전신인 계명의 책은 이와 같은 인쇄기로 인쇄되었다.

사랑해 목자의 마음, 시몬 듀이

6월 28일~7월 4일

교리와 성약 71~75편

"너희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져 형통할 무기가 없느니라"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할 때 성신의 영향력을 가장 자주 느[낍니다.]"("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고 지속적인 개심",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0쪽)

느낌을 기록한다

조셉 스미스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대 세력과도 맞서 왔다. 하지만 1831년 후반에 에즈라 부스가 공개적으로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돌아선 경우였기에 특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에즈라는 조셉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여성을 고치는 일을 직접 보기도 했었다. 그는 미주리주에 있는 시온 부지를 처음으로 답사하러 갔을 때도 조셉과 동행했었다. 그러나 에즈라는 그 이후로 신앙을 잃었으며, 선지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오하이오 신문에 서신을 연달아 기고했다. 에즈라의 노력은 효과가 있는 듯했다. 이 지역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 비우호적인 감정[이 형성되었다.]"(교리와 성약 71편 머리말) 이런 경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상황에 맞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1831년의 이 일을 포함하여 꽤 여러 차례에 걸쳐 "복음[을] … 선포"함으로써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라는 응답을 주셨다.(1절) 주님의 사업을 비방하는 자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업을] 대적하려고 만들어져 형통할 무기가 없[을 것이다.]"(9절)

"에즈라 부스와 아이잭 몰리",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71편

주님께서는 당신이 정한 때에 당신의 사업을 비방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 혹은 교회 지도자들을 헐뜯거나 조롱하는 것을 들으면 걱정이 앞선다. 특히 지인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듣고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들 때는 더더욱 그렇다. 1831년에 오하이오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교리와 성약 71편 머리말)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신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이었다. 교리와 성약 71편을 공부할 때, 거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 주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그분의 종들에게 주신 가르침 중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또한 로버트 디 헤일즈, "그리스도인의 용기: 제자로서의 대가",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72~75쪽; 외르크 클레빈가트, "신앙을 수호함, 『리아호나』, 2017년 9월호, 49~53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72편

감독은 주님의 왕국에서 영적 및 현세적 업무를 관장하는 청지기이다.

뉴얼 케이 휘트니가 교회의 두 번째 감독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의무는 오늘날 감독이 지는 의무와는 조금 달랐다. 예를 들어 휘트니 감독은 재산의 헌납과 미주리 주의 시온 땅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감독했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 72편에 나오는 그의 부름과 의무를 보면, 구체적인 임무는 다르더라도 최소한 그 의도 면에서는 오늘날 감독들이 하는 일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감독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가?(5절) 여러분의 감독은 어떤 의미에서 "주의 창고를 지키며", 교회 회원들의 헌물들을 관리하는가?(10, 12절 참조) 감독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또한 복음 주제, "감독", topic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뉴얼 케이 휘트니는 감독의 창고를 관리했다.

교리와 성약 73편

우리는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에즈라 부스가 입힌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짧은 전도 여행을 떠났던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돌아오자(교리와 성약 71편 참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 번역 작업을 재개하라고 말씀하셨다.(경전 안내서, "조셉 스미스 역" 참조) 또한 주님은 그들이 계속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셨다. 교리와 성약 73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여러 책임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속적이며 "실행할 수 있는"(4절) 현실적인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교리와 성약 75:1~12

주님께서는 충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에 부응하여(교리와 성약 68:8), 많은 충실한 장로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명을 어떻게 완수하기를 바라시는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했다. 교리와 성약 75편 1~12절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단어와 문구를 찾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충실한 선교사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여러분이 복음을 나눌 때 이러한 가르침과 축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71편. 다른 이들이 교회와 지도자들을 비방할 때 조셉 스미스와 시그니 리그돈은 어떤 일을 하라는 명을 받았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도록 어떻게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교리와 성약 71:4)

교리와 성약 72:2. 감독은 우리 가족의 삶에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가? 감독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탁했는가? 우리는 그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가? 가족들이 함께 감독의 봉사에 감사를 표하는 카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73:3~4.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을 학습한다면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겠는가?(경전 안내서, "조셉 스미스 역" 참조)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개정된 성구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밝혀 주신 소중한 진리들에 관해 토론한다. 예를 들어, 조셉 스미스 역 창세기 14:25~40과 창세기 50:24~38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74:7.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아이에 관하여 어떤 가르침을 얻는가?

교리와 성약 75:3~5, 13, 16. "게으[름]"과 "[우리] 힘을 다하여 일"하는 것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해 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기를 바라시는지 가족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집안일 몇 가지를 정하여 먼저 가족들에게 이 일들을 게으르게 하는 시범을 보여 보라고 하고, 그다음엔 모든 힘을 다하여 행하는 시범을 보여 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75편 3~5절, 13, 16절에 따르면, 주님은 충실한 종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개인 학습을 향상한다

영감을 주는 단어와 문구를 찾아본다. 경전을 읽을 때 영은 여러분에게 특정한 단어와 문구에 집중하게 할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71~75편에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단어나 문구들을 적어 보면 좋을 것이다.

청남과 신권 지도자 그림, 디 키스 라슨

안식처, 세일리 아벨

7월 5일~11일

교리와 성약 76편

"그들의 상은 클 것이요, 그들의 영광은 영원하리로다"

76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셨다.(7~10절 참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해당 구절을 읽는다.(12절) 그런 다음, "[여러분이] 아직 영에 감동되어 있을 동안" 얻은 깨달음을 기록한다.(28, 80, 113절)

느낌을 기록한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는 어떤 형태로든 이 질문을 다룬다. 수 세기 동안 성경의 가르침에 의지해 온 많은 기독교 전통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로운 자들은 낙원으로 가고 사악한 자들은 고통받게 되리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모든 인류를 그토록 정확하게 선한 자들과 나쁜 자들로 나눌 수 있을까? 또한 하늘[천국]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1832년 2월,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그 주제에 관해 더 알아야 할 것이 없는지 궁금했다.(교리와 성약 76편 머리말 참조)

그 주제에 관하여 더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해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의] 이해의 눈이 열[렸다.]"(19절) 조셉과 시드니는 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너무도 놀랍고 광범위하며 분명했으므로, 성도들은 그냥 그것을 "시현"이라고 불렀다. 그 계시는 하늘의 창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력을 선사했다. 그 시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늘이 훨씬 더 장엄하고, 광대하며, 포괄적임을 밝혀 주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영원한 운명을 지닌다.

『성도들』 제1권, 147~150쪽과 “시현”,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76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76편에 묘사된 시현을 읽고 윌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전의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본 개요의 끝에 있는 “회복의 소리” 참조) 어쩌면 이 계시를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다. 결국, 76편에 묘사된 그 어떤 영광스런 축복도 구주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76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구절들을 각각 찾아볼 수도 있다. 여러분은 이 구절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하여,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님께서 맡으신 역할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이것은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읽고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분에 대한 간증에 “용감”할 수 있을지 영감을 받을 수 있다.(51, 79절)

교리와 성약 76:39~44, 50~112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구원하고자 하신다.

몇몇 초기 교회 회원들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이가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의 영광의 등급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76편의 시현을 거부했다. 이러한 반응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이 계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특성과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구원을 받는 것과(신체적 사망 및 영적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39, 43~44절 참조) 승영에 이르는 것(하나님과 살면서 그분과 같이 되는 것, 50~70절 참조)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

또한 요한복음 3:16~17, 교리와 성약 132:20~25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76:50~70, 92~95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해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

자신이 해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지 궁금하거나 염려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영광을 받는 자들에 관한 서술을 읽을 때(50~70절, 92~95절 참조),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들의 목록만 찾아보기 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분께서 하셨거나 하고 계시는 일들을 찾아본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 시현을 읽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는가?

또한, 해의 왕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의 영광에 대한 이 시현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보는 방식과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한 모세서 1:39; 조이 디 존스, “측량할 수 없는 가치”,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3~15쪽; 제이 데븐 코니쉬,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내가 해의 왕국에 갈 수 있을까?”,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32~34쪽을 참조한다.

조셉 스미스는 이 방에서 영광의 여러 등급에 대한 시현을 보았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76:22~24, 50~52, 78~79, 81~82. 이 성구들에서 우리는 간증의 중요성에 관한 어떤 가르침을 얻는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서 간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할 수 있는지(79절) 토론하기 위해 사전에서 용감하다의 정의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용감한 종"(『어린이 노래책』, 85쪽)을 부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76:24. 가족들과 함께 76편에 있는 진리와 찬송가 "난 하나님의 자녀"(『어린이 노래책』, 2~3쪽)에서 가르치는 진리 사이의 연관성을 주목해 본다. 교리와 성약 76편 24절에도 이러한 진리 중 하나가 나온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이해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 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아들딸들의 사진을보는 것은 가족들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함께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76편에 나오는 원리들과 또 다른 연관성을 찾아볼 수도 있다.(예를 들어, 12, 62, 96절 참조)

교리와 성약 76:40~41. 이 성구에 나오는 "기쁜 소식"(40절)을 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나 트윗으로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는 76편에서 또 어떤 기쁜 소식들을 찾을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76:50~70. 여러분은 가족들이 해의 왕국에서 누리는 영생을 기대하고 대비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교리와 성약 76편 50~70절에 나오는 문구들과 어울리는 그림, 성구, 예언적 가르침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교회 잡지나 ChurchofJesusChrist.org, 또는 경전 각주에서도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다음, 가족들이 그들의 영원한 목표를 기억하도록 그 그림과 성구, 가르침들을 모아 포스터로 만들 수 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회복의 소리: "시현"에 대한 간증들

윌포드 우드럽

윌포드 우드럽은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시현을 받고 약 2년이 지난 후인 1833년 12월에 교회에 들어왔다. 당시 뉴욕에 살고 있었던 그는 그 지역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들로부터 "시현"에 관해 듣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는 이 계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천국과 하나의 지옥이 있다고 배웠고, 악한 자들은 모두 하나의 처벌을 받고, 의로운 자들도 모두 하나의 영광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

… 제가 이 시현을 읽었을 때, … 그것은 제 마음에 깨달음을 가져왔고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이 원리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정하고, 진실하며, 가장 훌륭한 성품과 판단력과 지식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에게는 사랑과 자비, 공의와 심판이 모두 존재한다고 느꼈으며, 저는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1]

"이 '시현'은 우리가 읽은 어떤 책에 있는 계시보다도 더 많은 진리와 더 많은 원리를 전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 상태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분명하게 해 줍니다. 누구라도 그 계시를 통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신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2]

"저는 조셉을 보기 전에 그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그의 외모가 어떻든, 그의 머리가 길든 짧든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계시를 받아서 가르친 그 사람은 하나

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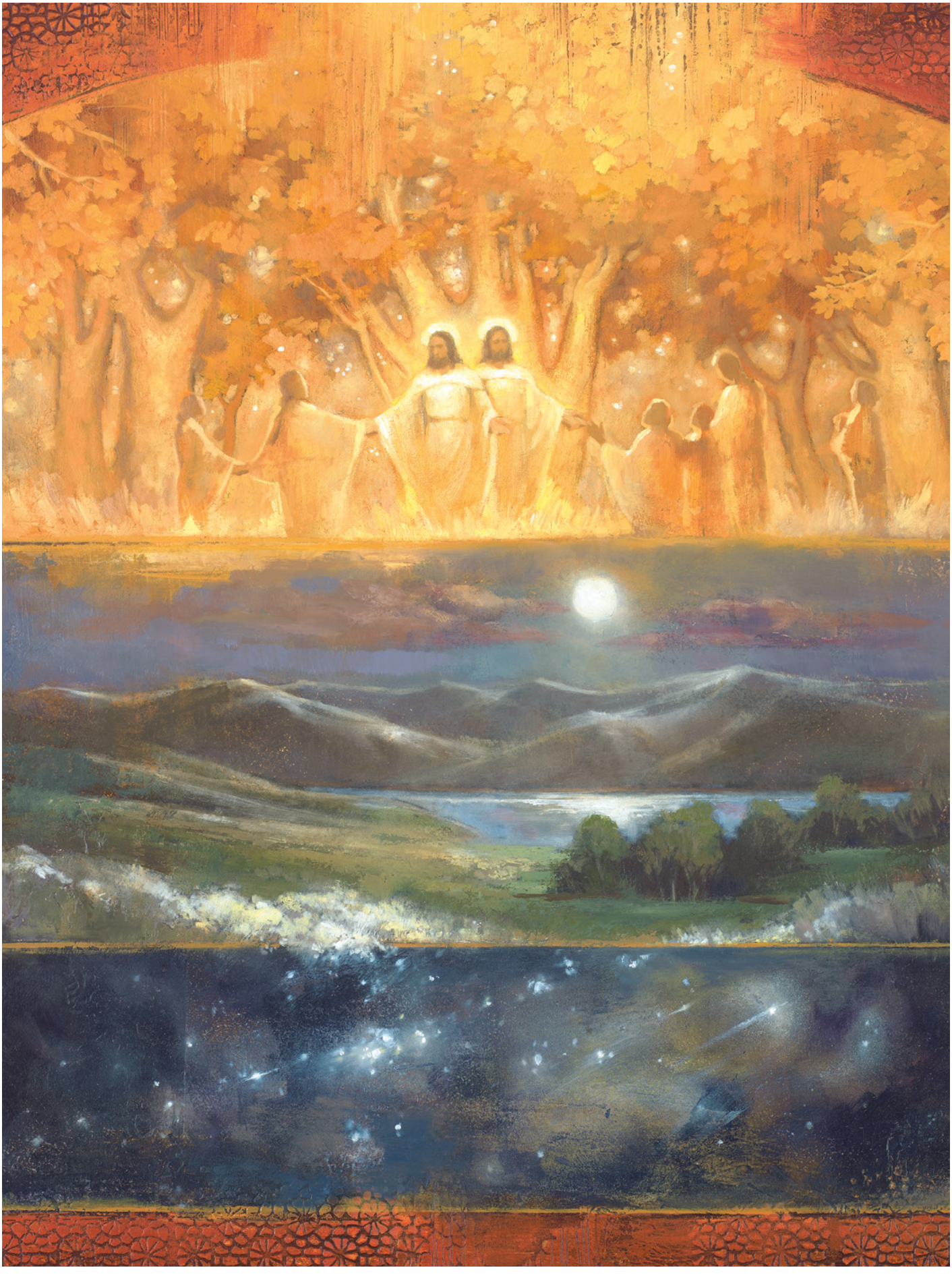
피비 크로스비 펙

조셉과 시드니가 "시현"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었을 당시, 피비 펙은 미주리주에서 다섯 자녀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다. 이 시현을 통해 너무나도 큰 감동과 영감을 받은 피비는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친척에게 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영광에 관한 신비로운 비밀들을 밝히고 계십니다. … 지난 봄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이곳을 방문했고, 우리는 그들이 있는 동안 여러 차례 즐거운 모임을 했습니다. 많은 비밀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으며, 저는 그것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평화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겸허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대의 안에서 용감한 병사로 살지 않는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이를 위해 예비된 장소가 있으니 이것은 해의 왕국보다 더 낮은 영광을 지니는 곳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에 관해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판되어 세상에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직접 읽게 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심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4]

주

1. "Remarks," *Deseret News,* May 27, 1857, 91.
2. *Deseret News,* Aug. 3, 1881, 481; see also *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Wilford Woodruff* (2004), 120–21.
3. "Remarks," *Deseret Weekly,* Sept. 5, 1891, 322.
4. Phebe Crosby Peck letter to Anna Jones Pratt, Aug. 10, 1832,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spelling and punctuation modernized.



등급에 따른 영광, 애니 헨리 네이더

집으로, 김용성

7월 12일~18일

교리와 성약 77~80편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그의] 귀에 지혜의 말씀을 말"하시겠다고 하셨다.(교리와 성약 78:2)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77~80편을 공부하면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받았는가?

느낌을 기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회복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으나 회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며 급성장하고 있었다. 1832년 3월, 조셉 스미스는 계시를 출판하고, 집합할 토지를 매입하며,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등의 "교회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이러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분야에서 주님의 "대업을 추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데 모을 단체, 즉 협동 회사를 조직할 것을 명하셨다.(4절) 하지만 그런 행정적인 사안에서도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들에 초점을 두셨다. 결국, 인쇄소와 창고를 마련하는 목적도 하나님 왕국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자녀들이 "해의 영광의 세계에서 한 처소"와 "영원한 부"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었다.(7, 18절) 일상생활의 분주함 속에서 그러한 축복들이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안심시키신다.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18절)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77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비밀을 밝히신다.

첫번째 시현이 일어난 지 12년이 흘렀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의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권고는 조셉 스미스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언제나 그에게 지침이 되어 주었다. 조셉과 시드니 리그돈이 성경을 영감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관해 질문이 생겼을 때, 조셉은 자연스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교리와 성약 77편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관련된 부분에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기록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성구를 공부하면서 선지자 조셉의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라고 여쭈어볼 수도 있다.

성경 번역, 리즈 레먼 스윈들

교리와 성약 78편

협동 회사는 무엇이었는가?

협동 회사는 오하이오주와 미주리주에 있는 교회의 출판 및 기타 사업 관련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협동 회사의 구성원은 조셉 스미스와 뉴얼 케이 휘트니 등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원을 보탠 교회 지도자들이었다. 안타깝게도 협동 회사는 빚을 지게 되었고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1834년에 해체되었다.

또한 "뉴얼 케이 휘트니와 협동 회사", 『계시를 받은 배경』, "협동 회사", 교회 역사 주제, ChurchofJesusChrist.org/study/church-history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78:1~7

나는 교회의 "대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창고와 인쇄소를 관리하는 일은 그들이 "받아들인 대업을 추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78:4) 여러분은 교회의 "대업"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교리와 성약 78편 1~7절을 읽으면서 이 질문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이 성구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이 교회 부름을 수행하거나 가족에게 봉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봉사는 교회의 "대업을 추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해의 영광의 세계에서 한 처소를" 준비하는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7절)

교리와 성약 78:17~22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아직은 … 깨닫지 못"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교리와 성약 78:17~18) 이 성구에서 그러한 시기에 "담대"히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권고를 찾아본다.(18절) 주님께서 때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17절)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깊이 생각해 본다.(18절)

교리와 성약 79~80편

내가 어디에서 봉사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라는 부름 그 자체이다.

교리와 성약 80편과 관련하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구주께서 아마도 이 계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중 하나는 이것일 것입니다. 특정 장소에서 봉사하라는 지명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사업에 봉사하라는 부름에 비하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68쪽) 자신의 현재 또는 과거의 교회 부름을 생각해 본다. 여

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베드나 장로의 가르침이 참됨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 교리와 성약 79~80편에서 이제 막 새로운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77:2. 이 구절을 읽은 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 또는] 공중의 새들"을 그려 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관하여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또한 교리와 성약 59:16~20 참조) 또한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어린이 노래책』, 16~17쪽)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에 관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본 개요에 수록된 그림을 보여 줄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77:14. 이 구절에는 요한이 책을 먹은 일이 이스라엘을 집합시켜야 하는 그의 사명을 상징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무언가를 먹는다는 상징은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거나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을 할 때 취해야 할 방식에 관하여 무엇을 시사하는가? 먹는 행위를 통해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또 다른 성구들은 다음과 같다. 요한복음 6:48~51; 니파이후서 32:3; 모로나이서 4장.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으면서 이 토론을 해 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78:17~19.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감사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 볼 수 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족들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권고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토론할 수도 있다.(19절)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교리와 성약 79:1. 여러분이 교회에서 부름에 성임 또는 성별될 때 받았던 "권능"에 대해 간증한다. 여러분이 그 부름에 봉사할 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와 영감을 축복해 주셨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그림을 그린다. 구절을 몇 개 읽은 다음, 가족들에게 시간을 주고 이와 관계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보게 한다. 가족들이 배운 원리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림을 집안 곳곳에 전시한다.

하나님의 정원, 샘 로울러

그리스도와 부유한 젊은 관리, 하인리히 호프만

7월 19일~25일

교리와 성약 81~83편

"많이 주어진 [곳]에는 많이 요구되나니"

교리와 성약 81~83편을 공부하면서, 가족과 친구 및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될 원리들을 기록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1832년 3월, 주님께서는 대신권의 회장단(현 제일회장단)에서 조셉 스미스를 보좌하도록 제시 고즈를 부르셨다. 교리와 성약 81편은 고즈 형제에게 주는 계시로, 이 편에는 새 부름에 대한 가르침과 충실하게 봉사할 때 그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제시 고즈는 충실히 봉사하지 않았고,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그를 대신하여 부름을 받았다. 계시에 있던 고즈 형제의 이름은 윌리엄스 형제의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일은 사실 다음과 같은 위대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즉, 교리와 성약에 있는 대부분의 계시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니파이전서 19:23 참조) 주님께서 프레드릭 지 윌리엄에게 주신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라는 권고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강건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교리와 성약 81:5) 교회의 현세적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협동 회사 회원들에게 주신 "이 성약으로 너희는 스스로를 결속하라"라는 권고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에 전념할 수 있다. 또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할 때 받게 되는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준다.(교리와 성약 82:10, 15)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또한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5절)

"뉴얼 케이 휘트니와 협동 회사", "제시 고즈: 선지자의 보좌",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81편

나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충실하게 행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책임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 궁금할 때가 있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보좌였던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에게는 당연히 중요한 책임이 많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81편에서 그러한 책임들을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권고를 그에게 주셨다. 여러분은 81편에서 주님께서 주신 책임들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

다음은 5절의 내용을 숙고하는 데 도움이 될 질문들이다.

- 사람은 어떤 경우에 "약[해]"질 수 있는가? 약한 자를 돕는다(succor)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손이 "처[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손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 "연약한 무릎"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고, "일으켜 세우"거나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일회장단: 시드니 리그돈, 조셉 스미스,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

교리와 성약 82:1~7

주님은 내게 회개하고 죄를 버리라고 권유하신다.

교리와 성약 82편 1~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배운 것에 대하여 두 가지 목록을 만들 수 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경고이며, 다른 하나는 용서에 관한 진리이다. 이러한 진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82:8~10

계명은 나의 구원과 보호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또는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계명을 주시는 이유를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교리와 성약 82편 8~10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선택한 이유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이 성구에서 얻은 어떤 통찰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한, 주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0절을 읽으면서 주님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한 교리와 성약 130:20~21과 캐롤 엠 스티븐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118~120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83편

"과부와 고아는 부양을 받아야 하며"

1832년 4월,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약 1,280여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미주리주에 집합해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다.(교리와 성약 78:9 참조) 그가 방문했던 한 지역은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여성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런 여성들 중에는 선지자와 안면이 있던 피비 펙, 애나 로저스도 있었다. 1830년대의 미주리주 법은 홀로된 여성에게 사망한 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적으로만 부여했다. 83편에서 주님이 홀로된 여성과 고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관하여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 중 여러분의 사랑이나 관심을 필요로 할 누군가를 알고 있는가?

또한 이사야 1:17, 야고보서 1:27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81:3. 가족들에게 종이 하트를 나누어 주고 그들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그리거나 적게 한다. "소리를 내거나 네 마음속으로나 … 항상"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본다.

교리와 성약 81:5. 이 구절에 나오는 원리들을 배우기 위해 가족들은 자신이 "약"하거나 "연약"하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거나 강건하게 했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가족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교리와 성약 82:8~10. 간단한 게임을 활용하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다. 가족 한 명이 눈을 가린 다른 한 명에게 지시를 하여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게임 중에 주는 지시와 어떤 점에서 같은지 토론한다.

교리와 성약 82:18~19. 가족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늘리"고 "다른 달란트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족 재능 발표회를 해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재능을 포함할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예: 영적인 은사, 교리와 성약 46:11~26 참조)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우리의 재능을 사용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찬송가』, 182장. 또한 "가족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참조한다.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가족들에게 삶에서 더 온전히 복음을 실천할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한다. "이것들은 대체로 토론을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31쪽)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림, 댄 버

회복, 리즈 레몬 스윈들.

7월 26일~8월 1일

교리와 성약 84편

"경건의 능력"

교리와 성약 84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권고를 깊이 생각해 본다.(44절)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계시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가?

느낌을 기록한다

1829년에 신권이 회복된 이후로 후기 성도들은 그 성스러운 권능의 축복을 받아 왔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권 권세를 통해 침례와 확인을 받고, 봉사할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신권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셨는데, 특히 곧 있을 성전 의식의 회복과 관련하여 더더욱 그러했다. 현재 교리와 성약 84편에 기록되어 있는 신권에 관한 1832년의 계시는 신권이 진정 무엇인지에 관한 성도들의 이해력을 넓혀 주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해력도 넓혀 줄 수 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며,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신성한 권능에 관하여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19~22절)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84:1~5, 17~28

나는 하나님의 신권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신권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여러분은 신권과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이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본 후, 교리와 성약 84편 1~5절, 17~28절을 공부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의 신권 권능에 관해 무엇을 알기를 바라시는지 생각해 본다. 누군가에게 신권과 그것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이 구절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참여했던 신권 의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그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20절)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더 많은 권능을 삶에 불러들이기 위해 무엇을 행하기를 바라시는지 생각해 본다.

또한 엠 러셀 밸라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4년 9월호, 28~33쪽과 복음 주제, "신권", topic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84:31~42

주님과 그분의 종을 받아들인다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폴 비 파이퍼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흥미로운 점은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서[교리와 성약 84:31~42] 주님께서는 얻다와 받아들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성임하다라는 동사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모두의 축복과 권능을 얻고 받아들이는 곳이 성전입니다."("계시된 지상 생활의 현실", 『리아호나』, 2016년 1월호, 21쪽)

교리와 성약 84편 31~42절을 공부하면서 "얻다"와 "받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본다. 두 동사가 이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주님과 그분의 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수 없"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과 관련하여 이 구절에 나오는 약속들을 주목해 볼 수 있다.(40절) 아버지와 그분의 종과 그분의 신권 권능을 더욱 충실하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고취시키는 부분은 어디인가?

또한 경전 안내서, "성약"과 "맹세",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84:43~58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나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다.

정기적으로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 것은 영적인 할 일 목록에서 체크 표시를 하는 항목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교리와 성약 84편 43~58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진리를 찾았는가? 이 부분에서 빛과 어둠의 대조에 주목한다.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빛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는가?(43, 45절)

또한 니파이후서 32:3과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2014), 125~135쪽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하면 영의 영향력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교리와 성약 84:62~91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은 나와 함께하실 것이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사도와 선교사들을 어떻게 돕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찾아 본다. 이러한 약속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88절에 있는 약속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84:6~18. 모세가 어떻게 신권 권능을 받았는지 읽어 보고, 가족 중 신권 소유자 또는 형제 성역자가 자신이 신권 직분에 성임되었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가능하다면, 그는 그의 신권 권세선에 관해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도 있다. 오늘날 교회의 신권 권세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은 왜 중요할까? 자신의 신권 권세선을 알고 싶다면 lineofauthority@ChurchofJesusChrist.org로 이메일을 보낸다.

교리와 성약 84:20~21. 가족들은 침례나 성찬식과 같은 의식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해 본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인가? 이러한 의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으로 불러들이는지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성전 사진을 하나 보여 주고, 성전 의식들은 우리에게 구주와 같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어떻게 더 많이 부여하는지 토론해 본다. "신권이 회복되었다"(『어린이 노래책』, 60쪽)와 같이 신권에 관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이 곡을 통해 신권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토론한다.

교리와 성약 84:43~44. 다 함께 음식이나 간식을 한 가지 준비하면서 모든 재료에 44절에 나오는 단어나 문구로 이름을 붙인다. 모든 재료를 다 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왜 중요한가?

교리와 성약 84:98~102. 우리는 이 성구에 나오는 "새 노래"(9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배우는가? 이 노래에 묘사된 상황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84:106~110. 우리 가족은 "모든 지체"의 은사와 노력으로 어떻게 "함께 교화되"는가?(110절)[여기서 모든 지체(every member)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옮긴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신권이 회복되었다" 『어린이 노래책』, 60쪽, 또한 "가족 경전 공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참조한다.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실천하도록 권유하고 확인한다. 가족에게 배우고 있는 내용을 실천하도록 권유하면서,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어떤 내용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유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 로마 성전

8월 2일~8일

교리와 성약 85~87편

"너희는 … 거룩한 곳에 서서"

여러분은 85~87편에 나오는 원리 중 이 개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은 원리들을 공부하라는 영감을 받을 수도 있다. 영의 속삭임을 따른다.

느낌을 기록한다

보통 성탄절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와 같은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다.(누가복음 2:14 참조) 하지만 1832년 12월 25일, 조셉 스미스의 머릿속은 전쟁의 위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미 정부에 저항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계시하셨다. 주님은 "전쟁이 … 모든 나라들 위에 쏟아질" 것이라고 선포하셨다.(교리와 성약 87:2) 이 예언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몇 주만에 미 정부와 타협점을 찾았고, 덕분에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시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시기에, 혹은 그런 방법으로만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후, 조셉 스미스가 순교당하고 성도들이 서부로 이주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반란을 일으켰고, 이로써 남북전쟁이 발발했다. 그때부터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땅의 주민[을] 애통"하게 했다.(교리와 성약 87:6) 예언이 결국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 계시의 가치는 재앙이 언제 닥칠 것이냐에 대해 예언했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재앙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데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고는 1831년에도, 1861년에도, 2021년에도 똑같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것이다.(8절)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85:1~2

"역사[를] … 기록"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1절에 설명되어 있는 그 "역사"에는 시온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또한 교리와 성약 72:24~26 참조) 이 역사는 행정적인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성도들의 "생활상 그들의 신앙 및 행위"에 대한 귀중한 기록이기도 했다.(2절)

여러분은 개인 역사나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활상과 신앙 및 행위에 대한 기록 중 어떤 것이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이 역사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또한 "일지: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11), 125~133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85:6

영은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한다.

교리와 성약 85편 6절에서 조셉 스미스가 영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본다. 어떤 의미에서 영의 음성은 "고요"하고 "세미"한가? 여러분의 삶에서 영이 "꿰뚫"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영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조셉 스미스가 묘사한 다음 구절들을 살펴본다. 교리와 성약 6:22~24; 8:2~3; 9:7~9; 11:12~13; 128:1. 여러분이 읽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영의 음성을 더 잘 인식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열왕기상 19:11~12, 힐라맨서 5:30을 참조한다.

경전을 공부하면 성신의 음성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

교리와 성약 86편

의로운 자들은 마지막 날에 모일 것이다.

교리와 성약 86편 1~7절에는 주님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설하신 것이 담겨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13장 24~30절과 37~43절에 기록된 해설과는 강조하는 점이 약간 다르다. 그 두 성구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차이점과 함께 이 비유를 "마지막 날에 곧 지금" 반복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교리와 성약 86:4) 이 비유와 오늘날의 해석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8~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신권, 회복, 그분 백성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이 구절들과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서로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백성[을] …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11절)

또한 복음 주제, "배도", "신권의 회복", topic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87편

평화는 "거룩한 곳"에 임한다.

이 계시에 나오는 권고는 "피 흘림, … 기근과 역병과 지진"의 물리적 위험과 더불어(교리와 성약 87:6) 후기에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영적 위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러분이 평화와 안전을 느끼는 "거룩한 곳"은(8절) 어디인가? 그 장소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리적 장소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관행 또는 생각도 그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곳에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한 헨리 비 아이어링, "주님의 영이 거하는 가정",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22~25쪽; 『성도들』 제1권, 163~164쪽; "평화와 전쟁",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85:6. 가족들이 고요하고 세미한 영의 음성을 인식하도록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정신 없는 소음 속에서 누군가가 중요한 지시를 귓속말로 전하는 놀이를 해 본다. 성신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각자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야기해 본다.

교리와 성약 86편. 그림을 보거나 그려 보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24~30절의 내용이 묘사된 그림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교리와 성약 86편 1~7절에 나오는 설명을 그림에 붙여 본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밀과 같은가? 어떻게 우리는 밀을 모으는 천사와 같이 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87:8. 우리의 가정을 더 거룩한 장소로 만들 방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집을 설계해 보라고 한다. 이 활동을 통해 세상의 영적 위험 속에서 우리 가정을 평화의 장소로 "다시 설계"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사랑 넘치는 우리 집"(『찬송가』, 174장, 166장)이나 "사랑이 깃드는 곳에"(『어린이 노래책』, 76쪽)와 같은 노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사랑이 깃드는 곳에", 『어린이 노래책』, 76쪽.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창의력을 발휘한다. 가족들에게 경전 내용을 가르칠 때, 본 개요에 제시된 질문과 활동 아이디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창의력을 발휘한다. 가족들이 즐길 수 있고, 그들이 경전과 자기 삶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

주님께서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모일 것인지를 보여 주셨다.

8월 9일~15일

교리와 성약 88편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가정을 복음 학습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부지런히 노력하신다면 …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미치는 대적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입니다."("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13쪽)

느낌을 기록한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쏟아부으심으로써 그분의 한없는 "위엄과 권능"을 조금씩 보여 주신다.(교리와 성약 88:47) 교리와 성약 88편도 그러한 계시이다. 이것은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근심이 하찮게 느껴지는, 빛과 영광과 왕국에 관한 계시이다. 비록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은 감지할 수 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겁을 주시거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시려고 이 위대한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다만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너희가 …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그 날이 오리라"(49절, 강조체 추가)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결한 목적으로 커틀랜드 성도들에게 선지자 학교를 세우도록 촉구하셨을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119절) 이는 주님께서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과 우리의 가정에서, 이 필멸의 세상 너머로 우리의 이상을 드높이실 수 있고,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드러"내시며, "해의 영광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68, 22절)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88편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신다.

전쟁이 "모든 나라들 위에 쏟아질"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지고(교리와 성약 87:2) 바로 며칠 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가 "낙원의 나무에서 따 온 '감람잎',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칭한 계시를 내려 주셨다.(교리와 성약 88편 머리말) 이 계시는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잎과 닮아 있는가?(또한 창세기 8:11 참조) 이 계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평화를 느끼게 해 주는 어떤 진리들이 담겨 있는가?

교리와 성약 88:6~67

빛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88편에서는 빛과 율법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된다. 다른 경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묘사하기 위해 이 말들이 사용되었다.(예를 들어, 이사야 60:19; 요한복음 1:1~9; 제3니파이 15:9 참조) 교리와 성약 88편 6~67절에서 이 말들이 나오는 구절에 표시하거나 메모를 하고, 구주와 빛, 율법에 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적는다.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삶을 변화시켜 더욱 충실하게 빛을 받고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21절)

또한 쉐린 유뱅크, "그리스도: 어둠에 비치는 빛",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73~76쪽을 참조한다.

경전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담고 있다.

교리와 성약 88:62~126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만물이 동요할 것이요, 정녕 사람들의 마음은 낙담[할]" 것이라고(교리와 성약 88:91) 묘사하셨던 시기에 살고 있다. 62~126절을 읽으면서, 이러한 주님의 권고가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62~76절. 이 구절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가?(63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68절)

77~80절, 118-126절. 왜 우리는 교리적 주제와 현세적 주제를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78절) 여러분은 "학문을 구하라"라는(118절) 권고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81~116절. 이 부분에서 구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에 주목한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셨다고 생각하는가?

117~126절. 성전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읽는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을 찾았는가?

또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함",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81~84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61~68쪽; 『성도들』 제1권, 164~166쪽; "학교와 엔다우먼트",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88:14~33, 95~101.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부활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러한 진리는 우리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88:33. 이 구절에 대한 토론에 앞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기쁘게 받은 선물과 그렇지 않았던 선물들에 관해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주님께서 주려 하시는 해의 영광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선물을 주는 자"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88:63, 68. 이 구절에는 행동을 알려 주는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온다. 그 단어들을 참고하면, 자녀에게 이 구절들에 담긴 메시지를 가르칠 창의적인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라는 문구에 관해 토론하면서 숨바꼭질 놀이를 할 수도 있다.(63절)

교리와 성약 88:81. 가족들과 함께 약품에 붙어 있는 경고문이나 운전자를 위한 교통 표지판처럼 집 안팎에 있는 경고 표시를 찾아본다. 이런 경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을] 경고하"기를 바라시는가?

교리와 성약 88:119. 가족들에게 가정을 119절에 나오는 집처럼 만들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 본다. 이 구절에 나오는 문구들을 하나씩 쪽지에 적은 후 이 쪽지들로 성전 사진을 가린다.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을 다 함께 읽으면서, 가족들에게 각 문구를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적힌 쪽지를 치우게 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119절)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내 주를 가까이", 『찬송가』, 96장.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자녀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녀에게 복음 원리와 연관된 무언가를 만들어 보도록 권유한다면, 여러분은 자녀가 원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배운 내용을 기억나게 할 실물을 남겨 주게 되는 것이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5쪽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월터 레인.

8월 16일~22일

교리와 성약 89~92편

"약속이 따르는 원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리와 성약 89~92편을 공부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적인 느낌을 기록한다.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영[이] 진리를 나타내"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교리와 성약 91:4)

느낌을 기록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 학교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 관해 가르쳤다.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준비했다. 하지만 그곳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 에머 스미스에게도 그것은 옳지 않아 보였다. 모임 내내 남자들은 담배를 피우고 씹었다. 그 당시에는 이상할 것 없는 일이었지만 그 때문에 마룻바닥은 검게 얼룩이 졌고 공기에도 강한 냄새가 배었다. 에머는 조셉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조셉은 주님께 이 문제를 여쭈었다. 그 결과로, 담배 연기와 담배 얼룩을 초월하는 한 계시가 주어졌다. 그 계시는 그 후 여러 세대에 걸쳐 성도들에게 "약속이 따르는 원리"이자 신체적 건강과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에 대한 약속을 주었다.(교리와 성약 89:3, 19)

또한 『성도들』 제1권, 166~168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89편

지혜의 말씀은 "약속이 따르는 원리"이다.

선지자 학교의 장로들은 조셉 스미스가 지혜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처음으로 듣고 그 즉시 "담뱃대와 씹는 담배를 그대로 불 속에 던져 버렸다."(『성도들』 제1권, 168쪽) 그 당시에 지혜의 말씀은 계명이라기보다는 경고로 여겨졌지만,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고 싶어 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지혜의 말씀에서 금하는 물질들을 삶에서 "던져 버렸"을 테지만, 우리는 이 계시에서 또 다른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 이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구들을 찾아본다.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 교리와 성약 89편에는 몇 가지 약속이 담겨 있다.(18~21절 참조) 이 약속들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 계시를 통해 우리는 주님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 여러분은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과 의도"에(4절) 해당하는 어떤 예들을 보았는가?
- 이 계시를 단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닌 "약속이 따르는 원리"(3절), 즉 의사 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영구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 여러분은 결정을 내릴 때 자신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찾았는가?

현대의 선지자들도 지혜의 말씀에서 언급된 물질 이외의 해로운 물질과 행위에 대해 경고해 왔다.("신체 및 정서적 건강",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5~27쪽 참조) 여러분의 정신과 신체를 더 잘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또한 다니엘 1장; 고린도전서 6:19~20; 복음 주제, "지혜의 말씀",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지혜의 말씀", 『계시를 받은 배경』; addictionrecovery.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신체를 돌보라고 가르친다.

교리와 성약 90:1~17

제일회장단은 "왕국의 열쇠"를 지닌다.

90편에서 주님은 현재 제일회장단이라고 부르는 조직의 일원이었던 조셉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의 "성역과 제일회장단의 직무"에(12절) 관한 가르침을 주셨다. 1~17절에서 우리는 제일회장단에 관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최근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준 메시지를 다시 살펴본다. 그들의 메시지는 어떻게 "왕국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가?(14절) 그들은 어떻게 "이 교회와 왕국의 모든 일에 질서를 세우는"가?(16절)

또한 헨리 비 아이어링, "지지하는 신앙을 통해 받는 힘",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58~60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90:24

"[나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

교리와 성약 90편 24절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어떤 경험을 했다면,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의 경험을 기록해 두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위안이나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들려준다. 만약 어떤 축복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는지 지켜보면서 끝까지 충실하게 생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

교리와 성약 90:28~31

비에나 잭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비에나 잭스는 1787년 6월 10일에 메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다. 막대한 재력가였던 이 신앙심 깊은 여성은 1831년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을 만났다. 그들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영적 증거를 얻은 비에나는 선지자를 만나러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왔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90편 28~31절을 통해 그녀를 위한 권고를 주셨고, 비에나는 그에 순종했다. 커틀랜드에서 그녀가 이전에 했던 기부를 포함하여 주님께 바치는 그녀의 헌납은 교회에 매우 중대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커틀랜드 성전을 지을 토지를 매입하려 애쓰던 때였다. 비에나는 평생 "충실[했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녀는 솔트레이크 밸리에 "평화롭게 정주"하여(31절) 96세로 생을 마감했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89편. 교리와 성약 89편에 언급된 음식과 물질들을 그려 보거나 그림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활동이 될 수 있다. 그런 다음, 돌아가면서 무작위로 그림을 고른 후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섭취해야 하는 것은 접시에 놓는 게임을 할 수도 있다. 18~21절에 나오는 약속들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신체 및 정서적 건강"(25~27쪽)을 읽고,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다른 방법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관해 토론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90:5. 우리는 어떻게 "[계시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이야기해 본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91편. 주님께서 성서외경에 관하여 주신 권고가 (1~2절) 오늘날 가족들이 접하는 미디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토론할 수 있다.(또한 경전 안내서, "성서외경",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또한 "영으로써 일깨움을 받[아]"(5절)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92:2.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이 몸은 주가 주신 성전", 어린이 노래책, 73쪽.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가족들을 가족 경전 공부에 참여시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경전 구절과 관련된 찬송가 혹은 어린이 노래를 부르거나, 읽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경전 구절을 요약할 수도 있다.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행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교리와 성약 89:18)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월터 레인

8월 23일~29일

교리와 성약 93편

“그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교리와 성약 93편에서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임을 배우게 된다.(24절)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찾고, 자신이 배운 것을 기록한다. 진리를 얻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을 기꺼이 하겠는가?(27~28절 참조)

느낌을 기록한다 ____________________

____

____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이 사다리에 오를 때에는 아래부터 시작하여 한 계단씩 올라가야만 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음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시작하여 승영의 원리를 모두 다 배울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68쪽)

승영의 사다리는 때로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보이지만, 그 정상에 오르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한계점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럽고 신성한 것을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교리와 성약 93:21, 23) 그분이 “계속하여 은혜에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13, 20절) 우리는 회복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본질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운다. “사악한 자”(39절)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어떤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여러분은 “때가 되면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될 잠재력을 지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다.(19절)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93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93편의 계시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셨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며 너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알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오게 하고 또 때가 되면 그의 충만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19절) 이 계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찾아 표시한다. 여러분은 그분들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 어떻게 "아버지께 오"는지에 관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0쪽) 교리와 성약 93편을 공부하며 구주에 대해 배우는 동안, 여러분 자신에 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찾아본다. 예를 들어, 3, 12, 21, 26절에서 우리는 구주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0, 23, 28~29절에서는 우리 자신에 관한 어떤 비슷한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또한 요한1서 3:2; 제3니파이 27:27; 딘 엠 데이비스, "예배가 가져다주는 축복",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93~95쪽 참조)

교리와 성약 93:1~39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며 진리이다.

여러분은 이 계시에 영광, 빛, 진리가 자주 언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특히 21~39절을 공부하며 배운 영광과 빛과 진리에 관한 진리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본다. 이러한 진리들은 여러분이 더 많은 빛과 진리를 추구하도록 어떻게 영감을 주는가? 이러한 진리들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빛과 진리를 받는다.

교리와 성약 93:40~50

"네 자신의 집에 질서를 세울지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40절에 이르면,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에서 양육과 집에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전환되는 듯하다. 1~39절에 나오는 빛과 진리, 영광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은 40~50절에 나오는 권고를 이해하고 따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또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7~20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93: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참 빛"이 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분의 빛을 보았는가?

교리와 성약 93:3~29. 93편에서 구주와 자기 자신에 관해 배운 것을 가족들과 토론해 보기 위해 짝맞추기 놀이를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 한 세트에는 구주에 대한 진리가 담긴 93편의 구절을 적고(3, 12, 21, 26절 참조), 다른 세트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담긴 구절을 적는다.(20, 23, 28~29절 참조) 가족들은 돌아가며 각 세트에서 한 장씩 카드를 고른 뒤, 거기 적힌 구절을 읽고, 해당하는 진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진리는 구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리와 성약 93:12~13, 20. "은혜로 은혜를" 받고 계속하여 "은혜에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12~13절) 이 구절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방식에 관해 무엇을 알려 주는가? 이 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교리와 성약 93:24. 가족들에게 이 구절에서 찾은 진리의 정의를 읽어 주고, 93편에서 그들이 귀중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야곱서 4장 13절, 또는 진리에 관해 노래하는 찬송가, 예를 들어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찬송가』, 155장) 등에는 진리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교리와 성약 93:40.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처럼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래를 가족과 함께 부를 수 있다.(『어린이 노래책』, 70장) 어린 아이들은 가사에 맞는 율동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이다. 가정에 더 많은 "빛과 진리"가 임하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교리와 성약 93:41~50. "[여러분의] 집에 옳지 아니한 일"이 무엇일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본다. 우리는 "[우리] 집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43~44절)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난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 노래책』, 2~3쪽.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한 번 이상 읽는다. 주중에 교리와 성약 93편을 한 번 이상 읽는다. 거듭해서 읽을 때마다 다른 진리가 눈에 들어오거나 다른 진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영감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는 방법은 더 깊이 상고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빛과 진리, 사이먼 듀이

커틀랜드 성전, 알 라운즈

8월 30일~9월 5일

교리와 성약 94~97편

"시온의 구원을 위하여"

교리와 성약 94~97편을 공부할 때 어떤 원리와 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가? 자신이 받은 느낌을 반드시 기록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며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다.(히브리서 8:5; 또한 출애굽기 25:8~9 참조) 장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민수기 2:1~2 참조)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그의 백성에게 당신께서 보여 주신 방식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역대상 28:12, 19 참조)

또한 주님께서는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시며 조셉 스미스에게 당신께서 계시하신 방식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다. "집이 지어지게 하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라. … 그 집은 … 보여 줄 방식에 따라 지어지게 하라."(교리와 성약 95:13~14; 또한 97:10 참조) 광야의 장막과 마찬가지로, 성전은 커틀랜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94:1 참조)

오늘날 주님의 집은 세계 곳곳에 있다. 비록 성전이 우리가 사는 도시의 중심부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는 성전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성전의 외관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똑같은 신성한 방식, 즉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한 하늘의 계획을 배운다. 우리는 성스럽고 영원한 의식을 통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방식으로 삶을 일구고 가정을 강화할 수 있다.

『성도들』 제1권, 169~170쪽과 『계시를 받은 배경』,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94편; 97:15~17

주님께서 나의 일상에 함께하실 수 있다.

교리와 성약 94편과 97편은 모두 1833년 8월 2일에 주어진 계시이다. 97편은 부분적으로 미주리주 잭슨군에 건립될 성전에 관한 내용을, 94편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건립될 업무용 가옥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종류가 다른 이 건물들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94:2~12; 97:10~17 참조) 그 가르침을 상고하면서, 다음을 생각해 본다. 교회 건물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더욱 자주 경험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95편

주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징계하신다.

주님께서 커틀랜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하셨던 1833년 1월로부터 약 5개월이 흘렀다.(교리와 성약 88:117~119 참조) 95편에 기록된 계시가 주어진 1833년 6월 당시, 성도들은 아직 그 명을 실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계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방식과 관련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가? 여러분도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계명이나 권고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가?

또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7~100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95:8, 11~17; 97:10~17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신다.

교회 지도자들은 커틀랜드에 주님의 집을 세우지 않은 일로 책망을 받은 후, 밀밭에 건축 부지를 정했다. 선지자의 형인 하이럼 스미스는 즉시 낫을 가져와 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제일 먼저 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73쪽) 교리와 성약 95편 8, 11~17절과 97편 10~17절을 읽으면서 하이럼의 열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그와 같은 결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는가?

부지를 정리하는 하이럼 스미스, 조셉 브리키

교리와 성약 97:18~28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시온 건설을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86쪽) 1830년대의 성도들에게 시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장소였다.(교리와 성약 97:19) 그러나 주님께서는 97편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 그 시각을 확장해 주셨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 즉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21절) 18~28절을 읽으며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정의를 생각해 본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은 "시온의 구원"을 성취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12절)

또한 모세서 7장 18절과 복음 주제, "시온"(topics.ChurchofJesusChrist.org)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95:8.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가져다주었는가? 가족들은 각자 성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성전 예배를 통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축복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가족을 돕기 위해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동영상, 사진, 지침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성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성전으로 가는 길"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리아호나』 특별 호, 2010년 10월호], 72~75쪽)

교리와 성약 95:1~11. 이 구절에서 우리는 징계와 관련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주님에 관해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징계를 받아들이는 방식,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리와 성약 97:8.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희생으로 [우리의] 성약을 … 지키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가?

교리와 성약 97:10~21.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어느 곳이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시온이며, 그곳은 모든 의로운 자가 자신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장소로 세울 곳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86쪽)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시온을 세울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97편 10~21절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족과 함께 이번 주에 집중할 원리를 한 가지 정한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경험을 기록한다. 지금 배우는 원리 및 교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다. 그러한 경험은 여러분의 개인 역사가 되어 미래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커틀랜드 성전의 건축, 월터 레인

시 시 에이 크리스텐슨(1831~1912), *미주리주 잭슨군에서 쫓겨나는 성도들*, 1878년경, 템페라화, 196x287cm, 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 시 시 에이 크리스텐슨의 손주들이 기증함, 1970년

9월 6일~12일

교리와 성약 98~101편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교리와 성약 98~101편을 읽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집중한다.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느낌을 기록한다

1830년대의 성도들에게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는 말 그대로 약속의 땅이었다. 그곳은 시온의 "중심지"(교리와 성약 57:3 참조), 곧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었고, 성도들은 시온의 중심지를 세우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집합은 곧 재림의 기쁘고 영광스러운 서막이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각은 달랐다.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주장을 문제 삼았고, 낯선 종교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너무 빨리 전입해 오며 생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달갑지 않았다. 머지않아 우려는 위협으로, 위협은 박해와 폭력으로 변모했다. 1833년 7월에는 교회의 인쇄소가 파괴되었고, 11월이 되자 성도들은 보금자리를 버리고 미주리주 잭슨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조셉 스미스는 1,30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커틀랜드에 있었다. 그는 수 주가 지난 후에야 이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셨으며, 당신의 선지자에게 성도들을 위로할 평화와 격려의 원리를 계시하셨다. 이 원리는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혹은 의로운 소망이 성취되지 않을 때, 일상의 고난이 결국 어떻게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할 것을 기억해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교리와 성약 98:3)

『성도들』 제1권, 171~193쪽과 『계시를 받은 배경』, "주님의 말씀을 기다림"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98:1~3, 11~14; 101:1~16

나의 시련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내린 선택으로, 혹은 다른 사람이 내린 선택으로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역경은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도들의 고난에 관해 주님께서 하신 교리와 성약 98편 1~3, 11~14절과 101편 1~16절의 말씀에는 여러분이 겪는 시련에 도움이 될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련이 어떻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했는지 생각해 본다.

또한 니파이후서 2:2, 교리와 성약 90:24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98:23~48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의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기 바라신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교리와 성약 98편 23~48절의 모든 내용이 다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지침으로 삼을 만한 어떤 내용을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성도들이 미주리주에 일어난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바라셨는지 알 수 있는 단어나 문구에 표시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제프리 알 홀런드, "화해의 성역",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7~79쪽을 참고한다.

그리스도와 부유한 젊은 관원 그림의 일부, 하인리히 호프만

교리와 성약 100편

주님은 당신을 섬기는 이들을 돌보신다.

미주리주의 박해 소식이 전해지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막 개종한 한 사람이 조셉 스미스에게 캐나다로 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조셉은 가족과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와 위협 때문에 가족을 두고 떠날 일이 걱정되었으나, 그 청을 받아들였다. 조셉과 그의 동반자 시드니 리그돈은 캐나다로 가는 길에 위안을 구하며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교리와 성약 100편을 주셨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응답에는 그들에게 확신과 도움이 되었을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여러분도 교회에서 맡은 책임에 대한 염려와 가족에 대한 염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100편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한 『계시를 받은 배경』, "캐나다로의 선교 사업"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01:43~65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면 안전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01편 43~62절에 나오는 비유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시온에서 쫓겨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서 주어졌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비유에 나오는 종들과 여러분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가? 내가 신앙이나 결심이 부족할 때, "원수"가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올바르고 적절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63~65절 참조)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98:16, 39~40. 이 부분에는 우리의 가정이 더욱 평화로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진리 내 마음 비춰 주니"(『찬송가』, 158장)처럼 평화나 용서에 관한 노래를 한 곡 부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서로 용서하는 내용의 역할극을 하면 좋아할 것이다.

교리와 성약 99편. 존 머독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도록"(1절) 집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가 미주리주에서 1년간 힘든 선교 사업을 마치고 막 돌아온 시점이었다. 99편의 어떤 내용이 머독 형제에게 도움 또는 격려가 되었을까? 주님은 이 계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교리와 성약 100:16; 101:3~5, 18. 이 구절들을 읽고 나서, 대장장이가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철을 고온에서 가열한 뒤 망치로 여러 번 두드려 형태를 잡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여러분은 그 외에도 물이나 소금과 같은 물질이 정화되는 과정도 함께 알아볼 수 있다. 가족들이 같이 무언가를 정화하거나 세척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왜 순결해지고자 하는가? 이러한 예들은 시련이 어떻게 우리를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는지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교리와 성약 101:22~36. 이 구절들은 박해를 당하던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 오늘날 세상의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불친절한 자", 『어린이 노래책』, 52쪽.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원리들을 찾아본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영적인 지식을 얻고자 할 때는 원리들을 탐구하십시오. … 원리란 집약된 진리이며,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아호나』, 1994년 1월호, 86쪽)

불길에 휩싸인 미주리, 글렌 에스 홉킨스

시 시 에이 크리스텐슨(1831~1912), 시온 진영, 1878년경, 템페라화, 198x290cm, 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 시 시 에이 크리스텐슨의 손주들이 기증함, 1970년

9월 13일~19일

교리와 성약 102~105편

"많은 환난 후에 축복이 옴이니라"

교리와 성약 102~105편에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원리들은 무엇인가? 이 원리들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미주리주 잭슨군의 형제 자매들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커틀랜드의 성도들은 가슴이 미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시온의 회복"이 "권능으로써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무척 고무되었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103:15) 후에 그 약속을 가슴에 품은 200여 명의 남성과 약 25명의 여성 및 아이들이 시온 진영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진영에 지원했다. 그들의 사명은 미주리주로 행군하여 시온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진영에 참가한 대원들에게 시온의 회복이란 곧 성도들이 빼앗긴 땅을 되찾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진영이 잭슨군에 도착하기 직전,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행군을 멈추고 시온 진영을 해산하라고 명하셨다. 일부 대원들은 이 새로운 지침에 혼란을 느끼고 당혹스러워했다. 그들에게 행군을 중단하고 해산한다는 것은 원정이 실패했으며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다. 추방된 성도들은 다시는 잭슨군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분명 이 경험은 시온에 어느 정도의 "회복"을 가져왔으며, 그 일은 명백히 "권능으로써 임"했다. 또한, 훗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시온 진영의 충실한 대원들은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 그리고 특정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온을 믿는 신앙이 깊어졌음을 간증했다. 그들은 실패한 듯 보이던 이 임무의 가치를 문제 삼기보다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해내야 했던 일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구주를 따르는 것이었음을 배웠다. 결국 시온이 회복되는 방식은 바로 그것이다.

『성도들』 제1권, 194~206쪽과 『계시를 받은 배경』, "시온 진영의 받아들일 만한 헌물"을 참조한다.

시온 진영은 사진에 보이는 리틀피싱강 기슭에 머물렀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02:12~23

이 부분에 기록된 지침의 목적은 무엇인가?

102편에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열린 모임의 회의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교회의 첫 번째 고등평의회가 조직되었다. 12~23절은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선도 위원회가 열릴 때 고등평의회가 따르는 절차를 설명한다.

엠 러셀 밸라드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회원들은 교회 선도 평의회가 열리는 이유를 묻곤 합니다. 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범법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무죄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교회의 순수성과 고결성, 그리고 명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A Chance to Start Over: Church Disciplinary Councils and the Restoration of Blessings," *Ensign*, Sept. 1990,15)

또한 복음 주제, "교회 선도 평의회", topics.ChurchofJesus Christ.org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03:1~12, 36; 105:1~19

시온은 오직 의의 원칙을 토대로 세워질 수 있다.

성도들이 미주리주에서 약속의 땅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왜 시온 진영이 그 땅을 되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미주리주의 폭도가 폭력을 행사하고, 미주리 주 주지사가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분명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백성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시온은 "구속 받았을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5:2) 교리와 성약 103편 1~12, 36절과 105편 1~1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미주리주에 시온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된 것은 무엇이고,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시온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가?

교리와 성약 103:12~13; 105:1~6, 13~19

축복은 고난과 신앙의 시험을 겪은 뒤에 온다.

시온 진영에 참여하는 일은 여러 의미에서 신앙의 시험이었다. 여정은 길었고, 날씨는 뜨거웠으며, 때로는 먹을 음식과 물도 부족했다. 더군다나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견뎌 낸 뒤에도 그 땅을 되찾을 수 없었다. 교리와 성약 103편 12~13절과 105편 1~6, 13~19절에 나오는 원리들은 시온 진영을 소집하라는 명이 애초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맞는지 의심하던 대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생각해 본다. 이 원리들은 여러분이 신앙의 시험을 겪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개요의 끝부분에 나오는 "회복의 소리"에서도 시온 진영 대원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그들의 태도에서 인상 깊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또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님 편에 서서: 시온 진영에서 배우는 교훈", 『리아호나』, 2017년 7월호, 26~35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04:11~18, 78~83

나는 "이 지상의 축복을 관리할 청지기"이다.

미주리주에서 겪은 역경과 더불어, 교회는 1834년에 대규모 부채와 지출로 재정난까지 겪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104편에서 교회의 재정 상황에 관해 권고하셨다. 여러분은 재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11~18절과 78~83절에 나오는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성도를 부양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16절)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말씀,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십시오"를 공부한다.(『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53~56쪽)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03:12, 36; 105:9~13. 가족(또는 조상) 중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받았으나 그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가? 행군 뒤 예상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시온 진영 대원들이 보인 반응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이 개요의 끝부분에 있는 "회복의 소리" 참조)

교리와 성약 104:13~18.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교리와 성약 104:23~46. 여러분의 가족은 이 구절들을 공부하며 주님께서 충실한 이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찾아볼 수 있다.(23절) 이는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보고("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특별히 감사히 여기는 축복을 그림으로 그려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05:38~41.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친절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제의"할 수 있을까?(40절) 우리는 가정에서 "평화의 기"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39절)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회복의 소리

시온 진영

시온 진영이 잭슨군에서 성도들의 땅을 되찾지 못하자, 많은 이들은 그들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온 진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자신의 삶과 그분의 왕국에서 어떻게 더 높은 목적을 이루셨는지를 깨달았다. 다음은 그들이 전한 간증의 일부이다.

조셉 스미스

시온 진영 이후 40여 년이 흐른 뒤, 대원 중 한 사람이었던 조셉 영은 조셉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형제 여러분, 미주리에서 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게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나라들에 복음의 문을 열 열두 사람과 그들의 지시를 받고 뒤따라갈 칠십인으로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생명을 바치며 아브라함 못지않은 큰 희생을 치러 낸 사람들 가운데서 십이사도와 칠십인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는 십이사도와 칠십인이 있습니다. 곧 또 다른 칠십인 정원회들이 부름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생을 바칠 것이며, 아직 희생과 헌물을 바치지 않은 사람은 지금부터 그렇게 할 것입니다."[1]

브리검 영

"우리가 미주리주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 조셉에게 이야기하시며 '나는 너의 헌물을 받아들였노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특권을 얻었다. 내가 다시 돌아오니, 친구들은 생업이 있는, 소집된 사람들이 미주리주까지 갔다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물었다. '누구 좋으라고 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 나는 형제들에게 이자까지 두둑이 덧붙여 큰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선지자와 함께 여행하며 얻은 지식이 흘러넘칠 정도이니 말이다."[2]

윌포드 우드럽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시온 진영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선지자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과 관련하여 그분의 권능으로써 그에게 나타내신 것은 저와 그의 지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크게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3]

"시온 진영의 대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서로 잘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체로 쳐진 곡식처럼, 전국에 걸쳐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었으며, 올라가 시온을 구하라는 부름을 받았고, 해야 할 일을 신앙으로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 시온을 구하고자 미국 내 여러 주에서부터 커틀랜드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에서처럼 우리의 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배도자와 불신자들은 여러 번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우리는 많은 일을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얼굴을 눈으로 보고 그와 함께 1,600킬로미터를 여행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이 주어지며, 그 계시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국에서 약 200명의 장로들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널리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제가 시온 진영과 함께 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곳에 있지[솔트레이크시티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주리주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원으로 보내져 복음을 전파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때로 목숨을 위협하는 그 모든 수고와 박해 속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일하고 살아야 했습니다."[4]

"시온 진영에서 여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은 경험은 황금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5]

주

1. In Joseph Young Sr., *History of the Organization of the Seventies* (1878), 14.
2. "Discourse," *Deseret News,* Dec. 3, 1862, 177.
3. In Conference Report, Apr. 1898, 29–30;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 135쪽 참조.
4. "Discourse," *Deseret News,* Dec. 22, 1869, 543;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138쪽 참조.
5. *Deseret News: Semi-Weekly,* July 27, 1880, 2;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138쪽 참조.

시온 진영(피싱강의 시온 진영), 주디스 에이 메르

9월 20일~26일

교리와 성약 106~108편

"여러 하늘을 열리게 하며"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경전에 몰두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교리를 배우며, 그분이 사셨던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구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7쪽) 교리와 성약 106~108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발견한 진리에 따라 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적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교리와 성약 107편의 내용은 언뜻 보면 신권 직분을 주님 교회의 지도 체계로서 조직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만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계시가 발표되었을 즈음에 교회는 이제 소수의 지도자들이 관리할 수 없을 만큼 회원의 수가 많아진 상태였다. 따라서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감독 및 정원회 회장단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는 것은 꼭 필요하면서도 유용한 일이었다. 그러나 107편에 기록된 이 신성한 지침은 신권 직분과 정원회를 조직하는 방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주님은 여기서 "아담의 시대에 제정되었"던(41절) 고대의 신권 반차에 관해 가르치신다. 태초부터 그것의 목적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구원 의식을 받고,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비밀을 받는 특권을 가지며, 그들에게 여러 하늘을 열리게 하"는 데 있었다.(18~19절)

『계시를 받은 배경』, "고대 반차의 회복"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06편; 108편

주님께서는 봉사하도록 부르신 이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도와주신다.

교리와 성약 106편과 108편에서 주님은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두 회원에게 권고와 약속을 주셨다. 이 계시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격려와 통찰을 주는 어떤 문구들이 나오는가? 다음은 그 두 가지 예이다.

-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와 확신"을 얻어 "설" 수 있었는가?(교리와 성약 106:8)
- 여러분은 성약이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이제부터 더욱 조심"할 수 있을까?(교리와 성약 108:3)

106편과 108편에서는 또 어떤 문구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는가?

또한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8~75쪽과 『계시를 받은 배경』, "워렌 카우드리", "계시를 구하도록 '역사하시매'"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07편

주님께서는 신권 권세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이끄신다.

여러분은 복음의 회복을 공부하면서, 보통 주님께서는 어떤 교리를 하나의 계시에서 다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 대신, 주님은 필요에 따라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진리를 밝히신다.(교리와 성약 98:12) 주님께서는 1829년에 이미 신권에 관한 지침을 주신 바 있었지만(예를 들어 20편과 84편 참조), 1835년에도 성장해 가는 교회를 관리하고 인도하는 데 필요한 신권 직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추가로 주셨다.

다음 신권 직분에 대해 읽으면서, 여러분은 해당 부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교리와 성약 107:22)

- 제일회장단과 교회 회장(9절, 21~22절, 65~66절, 91~92절)
- 십이사도(23~24절, 33~35절, 38절, 58절)
- 칠십인(25~26절, 34절, 93~97절)
- 감독(13~17절, 68~76절, 87~88절)

교리와 성약 107:1~20

신권 의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영적, 현세적 축복을 제공한다.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신권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모든 사람, 즉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 우리가 합당하다면, 신권 의식은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앞으로 올 세상의 위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92쪽) 교리와 성약 107편 1~20절(특히 18~20절 참조)과 앤더슨 장로의 말씀을 마저 읽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원에 대비하여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에 관해 받은 느낌을 기록한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러한 축복을 더욱 온전히 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도록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한 교리와 성약 84편 19~27절과 댈린 에이치 옥스, "멜기세덱 신권과 열쇠",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69~72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07:41~57

신권은 가족을 축복한다.

아담은 자신의 후손이 신권의 축복을 받기를 바랐다. 그는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42, 52절 참조) 아담이 행한 일을 읽으면서, 가족이 신권의 축복을 누리기 바라는 여러분의 소망에 관해 생각해 본다. 가족이 그러한 축복을 받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후손을 축복하는 아담,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06:6. 우리 가족은 "하늘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107:22. 우리는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도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리와 성약 107:27~31, 85. 교회의 평의회를 인도하는 원리는 가족 간의 협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어떤 원리들을 우리 가족 평의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또한 엠 러셀 밸라드, "가족 평의회",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63~65쪽 참조)

교리와 성약 107:99~100. 가족 중 한 명에게 한 가지 집안일에 대한 유의 사항을 적어 주고 그 일을 부지런히 할지, 건성으로 할지, 유의 사항을 읽지 않고 할지 정하게 한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 가족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가 어떤 접근법을 선택했는지 맞혀 본다. 다른 가족들도 차례대로 번갈아서 해 본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무를 배우고 전력을 다해 행하기를 바라시는가?(베키 크레이븐, "세심함 vs. 소홀함",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9~11쪽 참조)

교리와 성약 108:7. 우리는 어떻게 대화로, 기도로, 권면으로, 격려로, 모든 행함으로 서로를 강화할 수 있을까?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족이 함께 노력해 본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선지자와 구주의 음성", 『찬송가』, 1장.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느낌을 기록한다. 영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거나 통찰한 것이 생기면 그 내용을 기록한다. 이는 여러분이 주님의 가르침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2쪽, 30쪽 참조)

아브람을 축복하는 멜기세덱, 월터 레인

커틀랜드 성전, 존 맥노트

9월 27일~10월 3일

교리와 성약 109~110편

"이 집이 당신의 집이요 당신의 거룩함이 깃든 곳[이니이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교리와 성약 109편 24~28절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이 성구들이 의미하는 바를 반복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이름과 지위를 영예롭게 유지하고",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9쪽) 이 권유를 염두에 두고 공부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1836년 3월 27일 아침, 커틀랜드 성전의 출입문은 오전 8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납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줄은 아침 7시부터 늘어지기 시작했다. 열성적인 참석자들로 좌석과 통로가 빠르게 채워지자 조셉 스미스는 별도의 장소를 제안했다. 그러나 그 장소마저 인파로 가득 차면서, 결국 추가 헌납식이 계획되었다. 헌납식에 참석하고자 했던 이들은 산 자들만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헌납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모임을 마친 후에 성전 내부에서, 심지어 지붕 위에서도 천사들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정말로 "천국 무리"가 후기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러 온 듯했다.("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찬송가』, 31장)

그렇게 휘장 양쪽에서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성도들이 애초에 오하이오로 집합했던 이유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라는 약속 때문이었다.(교리와 성약 38:32) 앞으로 더 위대한 일들이 있으리라는 약속 또한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 집의 명성은 외국에까지 퍼지리니, 이는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부어질 축복의 시작이니라."(교리와 성약 110:10) 수백만 명의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과 의식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대는 "땅에 덮인 휘장[이] 거두어"졌던("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커틀랜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성도들』 제1권, 232~241쪽과 『계시를 받은 배경』,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09편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집에서 나를 축복하고자 하신다.

커틀랜드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전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그곳에는 제단과 침례반이 없었으며,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인봉 같은 의식들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 기도문인 109편에 서술된 축복들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받는 축복과 동일하다. 다음 구절에서 이러한 축복의 일부를 찾아본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중요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다.

5, 12~13절(또한 교리와 성약 110:6~8 참조): 성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느낄 수 있다.

9, 17~19, 26, 78~79절: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받든다.

22~23절: 우리가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업을 행할 권능을 주신다.

24~33절: 우리는 합당하게 성전 의식에 참석할 때 주님께 보호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축복: _____

_____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영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도록 영감을 주는가?

교리와 성약 109편

나는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문에서 기도에 관해 배울 수 있다.

109편은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주어진 헌납 기도문이다.(109편 머릿말 참조) 이 편에서 여러분은 기도에 관해 무엇을 배우는가? 여러분은 이 기도문을 읽으며 자신의 기도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 잘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느낌을 받는가? 예를 들어, 이 기도문에서 선지자는 무엇에 대해 기도했는가?

교리와 성약 110:1~10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10편 1~10절을 읽고 난 뒤, 구주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되었는가? 그분은 성전에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분은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려 주시는가?

커틀랜드 성전의 양 끝에는 신권 지도자들을 위한 연단이 있다.

교리와 성약 110:11~16

오늘날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신권 열쇠는 교회에 있다.

쿠엔틴 엘 쿡 장로가 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를 읽어 본다.(『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14~117쪽) 이 말씀은 커틀랜드 성전에서 모세와 일라이어스와 엘리야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맡긴 신권의 열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쿡 장로는 이 열쇠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사업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했다. 이 고대 선지자들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경전 안내서에서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를 공부해 보면 좋을 것이다.(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이 열쇠와 관련된 사업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또한, "신권의 열쇠", 『신앙에 충실함』, 103~105쪽; 헨리 비 아이어링, "주님은 우리에 앞서 가십니다", 『리아호나』, 66~69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09편. 109편에서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영감을 주는 구절들을 가족과 함께 찾아본다.(예를 들어,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에 있는 성구 목록을 참조할 수 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다음 제안을 어떻게 실천할지 이야기 나눈다.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주님과 정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런 뒤, 그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정확히 지키십시오."("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14쪽)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성전에 가 보지 않았다면,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하여 성전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109:78~80. 찬송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은(『찬송가』, 31장)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식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었으나, 그 이후로 모든 성전 헌납식에서 불리고 있다. 이 곡을 함께 부르면서, 후기에 세워진 성전에 대해 더욱 깊은 감사를 느끼게 하는 가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찬송가는 교리와 성약 109편 78~80절에 담긴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전의 헌납 기도문을 찾아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10편. 가족들에게 110편을 읽고 이 개요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만일 그들이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 가족들에게 저마다 구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

교리와 성약 110:15.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FamilySearch.org/discovery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성전 의식이 필요한 조상들을 찾고 성전에서 그분들을 위해 의식을 행할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다. 또한 커틀랜드 성전에서 엘리야를 통해 회복된 사업이 어떻게 조상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 주는지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찬송가』, 31장.

회복의 소리

영적인 나타내심과 커틀랜드 성전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글렌 에스 홉킨스

다음은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식과 그 이후에 열린 모임에 참석했던 후기 성도들의 간증이다. 많은 이들은 그때의 일을 고대 성도들이 오순절에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졌을 때 겪었던 경험에 비유했다.(누가복음 24:49; 또한 사도행전 2:1~4; 교리와 성약 109:36~37 참조)

엘리자 알 스노우

"헌납식의 의식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잊지 못할 날에 있었던 하늘의 나타내심은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고, 모든 참석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으며, 모든 사람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1]

실비아 커틀러 웹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 중 하나는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무릎에 앉히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와 집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것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무척 어렸지만, 그 일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잊지 못할 그날,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고 서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던 창백한 안색의 선지자 조셉이 눈에 선합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거의 다 울고 있는 듯했습니다. 성전은 사람들로 꽉 차서 어린이들은 대부분 어른들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빠 무릎에, 저는 엄마 무릎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입었던 드레스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그 모든 것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특권에 참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2]

올리버 카우드리

"저녁이 되자 나는 주님의 집에서 교회 역원들을 만났다. 영이 충만히 임재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거대한 구름같이 내려와 성전 위에 임하고, 강하게 휘몰아치는 바람같이 성전을 채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동안 … 나는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은사가 그들 위에 임한 것을 보았다."[3]

벤저민 브라운

"여러 시현이 보였다. 어떤 이는 성전 위로 베개처럼 생긴 구름이 내려와 그 위로 황금처럼 햇살이 빛나는 것을 목격했다. 또 다른 두 명은 눈부시게 빛나는 열쇠와 사슬을 손에 든 세 사람이 방안을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4]

올슨 프랫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그곳에 계셨고, 성신이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 …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신의 권능과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5]

낸시 나오미 알렉산더 트레이시

"성전이 완공된 날과 헌납된 날은 …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이틀이었다. 헌납식을 위해 작곡된 곡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이었으며, 그 모임에 잘 어울리는 곡이었다. 하늘의 영향력이 성전에 임한 것이 분명했다. … 나는 성전이 지상에 있는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6]

주

1. In Edward W. Tullidge, *The Women of Mormondom* (1877), 95.
2. In Karl Ricks Anderson, *Joseph Smith's Kirtland: Eyewitness Accounts* (1996), 182–83.
3. Oliver Cowdery diary, Mar. 27, 1836,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4. Benjamin Brown letter to his wife, Sarah, circa April 1836, Benjamin Brown family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punctuation and capitalization modernized.
5. Orson Pratt, "Remarks," *Deseret News,* Jan. 12, 1876, 788.
6. In Richard E. Turley Jr. and Brittany A. Chapman, eds., *Women of Faith in the Latter Days* (2011), 1:442.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남, 게리 이 스미스

10월 4일~10일.

교리와 성약 111~114편

"내가 너희 유익을 위하여 만사를 명하리라"

교리와 성약 111~114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의 인도를 구하고 느낌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 느낌을 실천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영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을 느꼈지만, 삶의 고난으로 신앙이 시험을 받아 이전에 느꼈던 평안을 되찾으려 애써 본 경험이 있는가? 커틀랜드 성도들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커틀랜드 성전 헌납과 연관되어 주어진 풍성한 영적 현시를 경험한 지 채 일 년도 안 되어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재정 위기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불화를 비롯한 시련들은 일부 회원의 신앙을 뒤흔들었다.

시련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련 때문에 신앙과 간증이 위협받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커틀랜드에서 역경이 더욱 거세지던 당시 주님께서 주신 교리와 성약 112편의 권고에서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서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28절), "거역하지 말라"(15절), "그 일을 위하여 네 허리를 동이라"(7절), "겸손하라."(10절) 우리가 이 권고를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역경을 지나 치유와 평안의 길에 들어서도록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10, 13절 참조)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11편

주님께서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만사를 명하"실 수 있다.

1836년 당시 교회는 주님의 사업을 하며 빚을 많이 진 상태였다. 조셉 스미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이를 걱정하여 부채를 상환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매사추세츠 살렘에 가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살렘에 있는 어떤 집에 상당한 돈이 버려져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111편 머리말 참조) 그들이 살렘에 도착한 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도시에서 너희에게 줄 보화가 하나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음이니라."(10절) 그 보화에는 주께서 "때가 되면 시온의 유익을 위하여 … 집합시"키실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2절; 또한 출애굽기 19:5 참조) 살렘에서 돈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그곳에서 이루어진 선교 사업을 통해 나온 개종자들은 주님의 약속이 일부분 성취되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111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걱정거리에 관해 생각해 본다. 주님께서 조셉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보화"를 찾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는가?(10절) 주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만사를 명하"기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해 본다.(11절)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대로"라는 문구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또한 마태복음 6장 19~21, 33절과 『계시를 받은 배경』, "보화가 하나만이 아니라 더 많이"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12:3~15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당신의 뜻을 구하는 이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1837년 여름, 십이사도 정원회는 단합이 약화되고 있었다. 책임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일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토머스 비 마쉬는 선지자에게 권고를 구하고자 미주리주에서 오하이오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112편의 계시를 통해 권고의 말씀을 받았다. 주님의 권고는 그와 십이사도 정원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겠는가? 이 권고에는 여러분이 분쟁과 좋지 않은 감정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때 도움이 될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가?

특히 10절을 상고해 본다. 주님께서 "손을 잡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러한 종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겸손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울리세스 소아레스,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9~11쪽과 『계시를 받은 배경』, "토머스 마쉬의 신앙과 타락"을 참조한다.

우리가 겸손하다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교리와 성약 113편

조셉 스미스는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한 종"이었다.

이사야는 이새의 후손 중 한 명을 "가지"와 "뿌리"라고 일컬었다.(이사야 11:1, 10) 113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종인 이 후손이 마지막 날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도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113:4, 6 참조) 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매우 잘 묘사한 예언이다. 이 예언을 비롯한 113편의 진리들은 커틀랜드에서 곤경을 겪던 성도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었겠는가? 여러분은 이 계시의 어느 부분에서 오늘날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영감을 받는가?

또한 경전 안내서, "이새",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와 니파이후서 21:10~12, 조셉 스미스—역사 1:40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11:2, 9~11. 이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이 영원한 "보화"로서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집안 곳곳에 숨기고 보물찾기를 준비한다. 가족들이 보물 하나를 찾을 때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본다.

교리와 성약 112:10.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는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며, 타인에게도 그렇게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습니다."("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0쪽) 가족들이 겸손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본다. "약한 자여 겸손하라"처럼(『찬송가』, 85장) 겸손함에 관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족 한 명이 다른 가족들의 "손을 잡고" 집안 곳곳으로 인도하게 한다. 또는, 주님께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던 경험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112:11~14, 26.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11~14절에서는 주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12:15. 선지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구절에는 선지자를 지지하도록 동기 부여를 해 주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교리와 성약 113:7~8. 8절에서 우리는 "시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데 도움이 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약한 자여 겸손하라", 『찬송가』, 85장.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간증대로 생활한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 자신이 곧 가르침이 됩니다. … 어떤 특정한 수업에서 가르친 특정한 진리보다는 여러분의 성품이 더 기억될 것입니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13쪽)

토머스 비 마쉬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 *너는 겸손하라*, 줄리 로저스.

파웨스트, 알 라운즈

10월 11일~17일

교리와 성약 115~120편

"그의 희생은 그의 증진보다 내게 더욱 신성할 것임이니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 경전을 공부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도움을 구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1838년 7월, 성도들이 새로운 집합 장소인 미주리주 파웨스트를 낙관적으로 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도시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토지는 비옥해 보였으며,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인 아담-온다이-아만도 있었다.(교리와 성약 107:53~56, 116편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들이 잃은 것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의 중심지로 정해졌던 인디펜던스에서 쫓겨났으며, 조만간 그곳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요원해 보였다. 게다가, 성도들은 불과 2년 만에 사랑하는 성전을 남겨두고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를 떠나야 했다. 이번 문제의 요인이 교회 밖의 적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수의 명성 있는 회원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등을 돌렸는데, 그중에는 몰몬경의 세 증인과 십이사도 네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정말 강해지고 있는 것인지, 혹시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충실한 이들은 그런 의심에 개의치 않았다. 이제 그들은 파웨스트에 새로이 거룩한 장소를 일구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성전을 위해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사도 네 명이 새로 부름을 받았다. 그중에는 훗날 교회 회장이 된 존 테일러와 윌포드 우드럽도 있었다.(교리와 성약 118:6 참조)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절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그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 보면 포기해야 할 것도 생기겠지만, 그 희생은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며 "[여러분의] 증진보다 … 더욱 신성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117:13)

『성도들』 제1권, 296~299쪽과 『계시를 받은 배경』, "파웨스트와 아담-온다이-아만"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15:4~6

이 교회의 이름은 주님께서 지으셨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교회의 이름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교회의 정확한 명칭",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7쪽) 교리와 성약 115편 4~6절을 읽으면서 이 말이 참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 교회의 이름은 교회의 사업 및 사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또한 제3니파이 27:1~11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15:5~6

시온과 그 스테이크는 "폭풍우를 피[할] … 피난처"를 제공한다.

1838년에 성도들은 시련에 부딪혔으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 대한 기대가 크셨다. 교리와 성약 115편 5~6절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그 회원들이 세상에서 해내기를 바라시는 역할을 강조하는 말들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5절)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영적 폭풍우가 있으며, 우리는 집합을 통해 어떻게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가?(6절)

또한 제3니파이 18:24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17편

나의 희생은 주님께 거룩하다.

커틀랜드에서 가족을 위해 풍요로운 삶을 일구었던 뉴얼 케이 휘트니 같은 사람은 그곳을 떠나는 일이 특히 더 힘들었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117편 1~11절에는 그들이 이러한 희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 구절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가?

올리버 그랜저에게는 남다른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커틀랜드에 남아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것은 어려운 임무였다. 그는 정직하게 교회를 대변했지만, 결국 많은 돈을 되찾지는 못했다. 12~15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또한 마태복음 6:25~33과 보이드 케이 패커, "이들 중 극히 작은 자",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86~88쪽, 그리고 『계시를 받은 배경』, "파웨스트와 아담-온다이-아만"을 참조한다.

뉴얼 케이 휘트니는 사진의 아담-온다이-아만으로 이주하라는 명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119~120편

나는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시온을 건설하고 "시온 땅을 … 성결하게" 하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

119편과 120편에 있는 지침은 오늘날 주님의 사업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오늘날 성도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 분의 일"을(교리와 성약 119:4) 바치며, 이 기금은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및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관리한다.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십일조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시온 땅을 …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법은 여러분이 사는 곳을 어떻게 "시온의 땅이 되"게 할 수 있을까?(교리와 성약 119:6)
- 교리와 성약 120편의 "그들에게 … 나 자신의 음성에 의하여"라는 문구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한 말라기 3:8~12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하늘 문",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7~20쪽, 그리고 "나의 백성의 십일조", 『계시를 받은 배경』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15:4~6. 가족들이 일출을 보면서 이 구절을 읽게 하면 어떨까? 이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5절) 또는, 폭풍이 몰아칠 때 피할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어떤 경험일지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그 경험은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과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6절)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제공하는 피난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본다.

교리와 성약 117:1~11. 가족이 함께 "한 방울"의 물을 주전자 한 통에 든 물처럼 무언가 더 "중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8절) 그러면서 삶에서 덜 중요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관해 토론해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19편. "주님께 십 분의 일을 바치고 싶어요"와 같은 노래를 부른다.(『리아호나』, 2006년 10월호, 친구들 16쪽) 이 노래와 119편은 우리가 십일조를 내는 이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어린아이들을 위해 실물 공과를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작은 물건들을 주고 그것의 십 분의 일을 계산해 보게 한 다음, 십일조를 내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또한 『신앙에 충실함』, 112~113쪽 참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주님께 십분의 일을 바치고 싶어요", 『리아호나』, 2006년 10월호, 친구들 16쪽.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자립하도록 권유한다. "[가족]이 질문이 있을 때, 때론 즉시 질문에 답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답을 찾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8쪽)

십일조의 사용

우리는 수입의 십 분의 일을 주님께 십일조로 바침으로써 그분의 구원 사업을 진전시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

리버티 감옥 앞 라운지

10월 18일~24일

교리와 성약 121~123편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진리를 발견하겠다는 목표로 경전을 공부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로 공부를 시작하고,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느낌을 기록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미주리주 리버티 감옥의 아래층은 지하 감옥으로 알려져 있었다. 벽은 두텁고, 돌바닥은 차고 더러웠으며, 음식이라고는 아주 적은 양에 그나마도 상한 것이었다. 빛은 천장 근처에 난 두 개의 좁은 철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이 전부였다. 이 지하 감옥은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형제들이 수감 기간의 대부분을 보낸 곳으로, 그들은 미주리주에 대한 반역죄로 기소된 뒤 1838년부터 1839년까지 추운 겨울이 이어지는 넉 달 동안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렸다. 조셉은 이 기간에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 듣고 있었다. 파웨스트에서의 평화와 낙관론은 몇 달을 가지 못한 채, 이제 성도들은 다시 한번 집을 잃고 황무지로 쫓겨나 새로 시작할 장소를 찾아야만 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들의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

조셉 스미스는 절규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조셉은 그 비참한 감옥에서 "하늘에서 … 부어내려 주"신 "지식"을 응답으로 받았다. 그 응답은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음을 나타낸다. 비록 때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어떠한 권능도 "여러 하늘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배웠다.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그분의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 있"으실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121:1, 33; 122:9)

『성도들』 제1권, 323~396쪽과 『계시를 받은 배경』, "리버티 감옥에서"를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21:1~10, 23~33, 122편

역경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우리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알고 계시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교리와 성약 121편 1~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조셉 스미스와 비슷한 의문이나 느낌이 들었던 때를 생각해 본다. 주님께서 주신 응답에서 여러분이 그런 의문이나 느낌이 들 때 도움이 될 어떤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 예컨대, 7~10절, 26~33절에서 "[고난을] 잘 견디어" 낸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찾아본다. 122편을 읽으면서,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역경을 바라보길 바라시는지 생각해 본다.

또한 헨리 비 아이어링,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72~75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21:34~46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 리버티 감옥에서 조셉은 힘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힘이란 성도들에게 가해졌던 정치적, 군사적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의미했다. 교리와 성약 121편 34~4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에 관해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권력과 어떻게 다른가? 예컨대, 주님이 41~43절에서 "권능이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단어들을 살펴본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이나 영향력"을 유지하시는 방법에 관하여 이 단어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구절들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122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셨다.

조셉 스미스는 가족과 친구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동안 넉 달 이상 부당하게 투옥되어 있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일이 수포로 돌아간 듯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에게 주신 122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조셉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또한 앨마서 7:11~13, 36:3, 교리와 성약 88:6을 참조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월터 레인

교리와 성약 123편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1839년 3월, 성도들이 자신들이 처한 참혹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 조셉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성도들은 "일체의 사실"과 "관련된 지식을 수집"하고,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123:1, 17)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 계교"와 속임수에 대해 생각하며, 여러분 "능력 안에 놓여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12, 17절) 이러한 일을 "기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17절) 지인 중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12절)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진리를 찾도록 도울 수 있을까?

조셉이 이 서신에서 요청한 보고서 중 여러 편이 정부에 제출되었고, 나부의 신문인 Times and Seasons『타임즈 앤드 시즌스』에 11편의 연재 기사로 실리기도 했다.(see "A History, of the Persecution,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in Missouri, December 1839–October 1840," [joseph-smithpapers.org])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21:1~10. 리버티 감옥의 "지하 감옥"은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약 4미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4.2x4.4제곱미터) 추운 날씨 속에서 그렇게 넉 달 간 협소한 공간에 갇히는 기분을 가족들이 헤아려 보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리버티 감옥의 상황에 관한 다른 세부 내용은 "제46장: 리버티 감옥에 갇힌 조셉 스미스"에서 알아볼 수 있다.(『교리와 성약 이야기』, 172~174쪽) 또한 이 개요 끝부분에 나오는 "회복의 소리: 리버티 감옥"을 읽어 본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후, 교리와 성약 121편 1~10절에 나오는 원리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교리와 성약 121:34~36, 41~45. 가족들이 "하늘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 주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전력에 비유할 수 있다. 전자기기에 전력이 공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비유와 34~36절, 41~45절을 참고할 때, 영적인 힘을 키우는 방법에 관해 무엇을 알게 되는가? 가족들은 구주의 생애 중 그분의 그러한 성품이 드러나는 일화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122:7~9. 이 구절에서 가족들에게 영감을 주는 문구로 작은 표지판을 함께 만들어 집안 곳곳에 둘 수 있다.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음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

교리와 성약 123:12.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 곳을 알"도록 도울 수 있을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찬송가』, 62장.

회복의 소리

리버티 감옥

미주리주 리버티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조셉 스미스는 후기 성도들이 주지사의 명령으로 주에서 내쫓겨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여러 통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중에는 아내 에머가 보낸 가슴 저미는 편지도 있었다. 에머와 조셉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교회 역사의 혹독했던 시절에 그들이 겪은 고통과 그들이 행사한 신앙이 드러나 있다.

1839년 3월 7일, 에머 스미스가 조셉 스미스에게 쓴 편지

"사랑하는 여보,

친구 편에 편지를 전할 기회가 생겨 이렇게 몇 자 적어 봅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모두 다 적지는 않을게요. 당신이 처한 상황과 당신과 나를 갈라놓는 벽과 철창, 빗장, 굽이치는 강과 흘러 내리는 개울들, 우뚝 솟은 언덕들과 깊은 계곡, 넓디넓은 평원들, 처음에 당신을 감옥에 던져 넣은, 그리고 아직도 붙잡아 두고 있는 이 잔인한 불의와 그 밖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감정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네요.

우리가 결백하지 않다면, 그리고 신성한 자비의 손길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껏 이 고통스런 시간들을 절대 견뎌 내지 못했을 거예요. … 하지만 난 아직 살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친절하신 하늘의 뜻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 겪어야 할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거예요.

몸이 많이 아픈 프레드릭 말고는 지금 우린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내 품에 안겨 있는 우리 알렉산더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이예요. 워낙 튼튼해서 밀고 다닐 의자만 있으면 온 방안을 뛰어다닐 기세거든요. …

집은 물론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남겨 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나오면서, 그리고 그 쓸쓸한 감옥에 갇힌 당신을 두고 미주리주를 떠나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일이네요. …

… 언젠가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에머 스미스"[1]

1839년 4월 4일,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쓴 편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목요일 저녁에 동료들과 함께 이 쓸쓸한 감옥의 창살 틈으로 저물어 가는 해를 보며 당신에게 내 상황을 전하고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외롭고 어둡고 더러운 감옥의 벽과 쇠창살과 삐걱거리는 철문에 갇혀, 늘상 인상을 쓰고 있는 보초의 감시 속에 보낸 나날도 이제 다섯 달하고 엿새가 지난 것 같군요.[2]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그 어떤 글이나 말로, 천사라 할지라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설명하거나 묘사하지 못할 거예요. …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오직 여호와의 권세에만 의지할 뿐이에요. 당신도 확신하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이 미주리주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 사랑하는 에머, 끊임없이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 우리의 어린 프레드릭, 조셉, 줄리아, 알렉산더, 조애너, 그리고 메이저[반려견]가 보고 싶어요. … 당신을 볼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그곳까지 맨발로, 모자도 쓰지 않고, 반쯤 벗은 몸이라 해도 기꺼이 걸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기는커녕 나에겐 큰 기쁨일 거예요. … 나는 이 모든 탄압을 의연하게 감내할 겁니다. 함께 있는 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두려움으로 위축되진 않았소. [아이들이] 나를 잊지 않게 해 줘요. 내가 아이들을 형언할 수 없이 사랑하고 있고, 폭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또 착한 아이들이 되고,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도 전해 주세요.

당신의

조셉 스미스 이세."[3]

주

1. "Letter from Emma Smith, 7 March 1839," Letterbook 2, 37, josephsmithpapers.org; spelling, punctuation, and grammar modernized.
2. 조셉과 그의 동료들은 1838년 10월 31일에 체포되어 밤낮으로 엄중한 감시를 받았다. 그들은 미주리주 리치몬드에서 사전 심리를 거친 후 12월 1일에 리버티 감옥에 갇혔다.
3. "Letter to Emma Smith, 4 April 1839," 1–3, josephsmithpapers.org; spelling, punctuation, and grammar modernized.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고통받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위대한 진리를 밝혀 주셨다.

아름다운 나부, 래리 윈본 그림

10월 25일~31일

교리와 성약 124편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한 채를”

교리와 성약 124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부 성도들에게 권유하신 축복과 여러분에게 권하시는 축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6년간 성도들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1839년 봄이 되자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일리노이주 퀸시의 주민들은 후기 성도 난민들에게 동정심을 보였고, 미주리에 구금되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교회 지도자들은 보초들의 묵인하에 탈출하게 되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이 다시 집합할 수 있도록 얼마 전 일리노이주에 부지를 매입했다. 비록 습지에다 모기가 들끓는 땅이었지만, 성도들이 앞서 겪은 시련에 비하면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다. 성도들은 습지에서 물을 빼고, 새 도시를 위한 헌장을 작성했다. 도시의 이름은 나부로 정했다. 나부는 “아름다운”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였다. 적어도 처음에, 이 명칭은 그곳을 정확히 설명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신앙의 표현에 더 가까웠다.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긴박감을 심어 주고 계셨다. 회복해야 할 진리와 의식들이 많았으므로, 주님은 성도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필요하셨다. 오늘날 주님의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와 같은 신앙과 긴박감이 중요하다.

나부는 실제로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지만, 성도들은 결국 그 둘을 다 버리고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주님의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업은 언제나 “존귀와 불멸과 영생으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며(교리와 성약 124:55), 그 일에 끝이란 없다.

『성도들』 제1권, 399~427쪽과 『계시를 받은 배경』, “나부에 교회를 조직함”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24:12~21

나는 주님께서 신뢰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

1830년대 후반에 이름난 지도자 몇이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충실하게 남았다. 그 충실한 성도 중에는 미주리주에서 온갖 시련을 견딘 사람들은 물론 최근에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24편 12~21절에서 그중 몇몇을 칭찬하셨다. 그분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여러분은 이 충실한 성도들의 어떤 면모에서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가? 또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124:22~24, 60~61

주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신다.

성도들이 바로 얼마 전 미주리주에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나부에 외따로 떨어져 방문자들을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교리와 성약 124편 22~24절과 60~61절을 읽어 본다. "유숙하는 집"을 지으라는 주님의 지시에서 여러분이 인상 깊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23절) 교회의 사명과 관련하여 주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지침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본다.

교리와 성약 124:25~45, 55

주님은 우리가 성스러운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다.

성도들이 나부에 정착하자마자 주님께서 오하이오주와 미주리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지침을 주셨다는 것은 후기 성도에게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교리와 성약 124편 25~45, 55절에는 주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나의 백성은 언제든지 받느니라"라고(39절)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나부 성전이 세워진 이래로 200개가 넘는 성전이 완공되었거나 건축이 발표되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 및 우리 가족의 구원과 승영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사탄의 공격은 그 강도와 다양성 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커졌습니다."(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14쪽) 성전은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 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여러분은 넬슨 회장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또한 교회 역사 주제, "나부 성전", ChurchofJesusChrist.org/study/church-history를 참조한다.

나부 성전 앞에 있는 조셉 스미스, 게리 이 스미스

교리와 성약 124:84~118

주님께서는 내 삶을 위해 구체적인 권고를 주고자 하신다.

84~118절은 특정 개인을 위한 권고가 주를 이루는데, 그중에는 여러분의 삶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도 있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도 있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분께 여쭤볼 수 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영의 인도를 구한다. 그런 다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더 겸손한 사람이 되면 영을 받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97절 참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신 다른 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24:2~11.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세상의 모든 임금에게" "나의 복음[을] … 엄숙하게 선포"하라고 (2~3절)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포하겠는가? 가족과 함께 선언문을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그 선언문에 넣고 싶은 복음 진리를 제안해 보게 한다.

교리와 성약 124:15. 고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님은 왜 고결함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가족들이 실제로 본 고결함의 본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또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9쪽 참조)

교리와 성약 124:28~29, 40~41, 55. 이 구절에서 주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가족들과 함께 성전을 그려 보거나 블록 등의 재료로 성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이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서 감사한 이유와 우리가 그곳에서 자주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토론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24:91~92. 축복사의 축복에 관해 토론해 본다면 가족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미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어떤 경험이었고, 그것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축복사의 축복"을 살펴볼 수도 있다.(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회복의 소리

상호부조회

상호부조회의 조직, 폴 맨

1842년에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상호부조회가 조직된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들이 이렇게 조직되고 나서야 교회는 비로소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1]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와 그분의 신권의 회복(교리와 성약 107편 참조)에 관한 연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성 제자들에 대한 "고대 방식의 회복"인 상호부조회에 대한 연구를 포함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2]

엘리자 알 스노우는 그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엘리자는 상호부조회가 처음으로 조직되던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그때 상호부조회 서기로서 모임의 회의록을 작성했다. 엘리자는 상호부조회가 "신권의 방식을 좇아" 조직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3] 다음은 엘리자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당시 자매들이 하나님의 성약의 딸들에게 맡겨진 신성한 사업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작성했던 글이다.

상호부조회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더 알고 싶다면,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7), 1~25쪽을 참조한다.

엘리자 알 스노우

"상호부조회라는 이름은 현대에 와서 붙여졌지만, 이 단체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와 동일한 조직이 고대 교회에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직은 신약전서에 기록된 일부 서한에 암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택함을 받은 여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요한2서 1:1; 교리와 성약 25:3 참조]

이 조직의 모든 권세와 영향력은 신권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조직은 신권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권이 지상에서 거두어졌을 때, 이 조직은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반차에 따른 모든 부속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가 조직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 그 조직에서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기에, 저는 시온의 딸들이 새롭고 많은 책임이 가득한 이 중요한 조직에 발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과 어머니들 중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자신들에게 풍성하게 부여된, 선을 행하는 모든 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상호부조회는 붉은 벽돌 상점 2층 방에서 조직되었다.

누구든 여성 상호부조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뿐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도 선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능력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개인이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내는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

여성 상호부조회에는 궁핍한 사람을 돌볼 때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를 덜어 주는 것 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마음의 빈곤과 고통도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몇 마디의 조언, 따뜻하고 애정 어린 악수와 같은 친절한 행위가 황금이 담긴 주머니보다 더 도움이 되며 더 감사히 여겨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

외국에서 집합한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낯설고,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어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신속히 [그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고양하는 사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부조회는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의 영역에 속하는 의무, 특권, 책임을 모두 다 규정하려면 책으로 여러 권이 될 것입니다. … (감독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신중하게, 열정을 담고 힘을 합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이 성공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4]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51쪽.
2.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7), 1쪽.
3. Joseph Smith, in Sarah M. Kimball, "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Sept. 1, 1883, 51.
4. "Female Relief Society," *Deseret News,* Apr. 22, 1868, 81.

나부 성전, 조지 디 듀런트

우리는 그들 곁에, 그들은 우리 곁에, 케이틀린 코널리

11월 1일~7일

교리와 성약 125~128편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쁨의 소리”

교리와 성약 125~128편을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느낌을 반드시 기록하여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눈다.

느낌을 기록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

____

1840년 8월, 친구 세이머 브런슨의 장례식에 참석한 제인 네이먼은 슬픔에 잠긴 채 선지자 조셉의 설교에 귀 기울였다. 제인은 십 대 아들 사이러스를 떠나 보낸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사이러스가 침례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도 제인은 더 가슴 아팠다. 제인은 그것이 아들의 영혼의 안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려스러웠다. 조셉은 제인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 역시 침례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형 앨빈에 대해 같은 염려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선지자는 제인과 장례식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복음의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계시였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는 교리를 들은 성도들은 감격했다. 그들은 곧바로 돌아가신 부모와 조부모 및 다른 가족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이다! 조셉은 그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는 열정적이고 기쁨에 찬 언어로 주님께서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해 가르치신 내용을 전했다. “산들은 기쁨으로 외치며, 너희 모든 골짜기는 크게 외칠지어다. 너희 모든 바다와 육지는 너희의 영원하신 왕의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라!”(교리와 성약 128:23)

『성도들』 제1권, 415~427쪽과 『계시를 받은 배경』,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서한”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26편

주님은 내가 가족을 돌보기를 바라신다.

영국에서 몇 차례 선교 사업을 했던 브리검 영은 그곳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중요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그의 부재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의] 가족을 특별히 돌"보라는 명이었다.(3절) 이 권고와 126편에 있는 다른 권고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면서, 전임 본부 청녀 회장인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의 다음 말씀을 참고한다.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에게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은 여러분과 영원히 이어질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상황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은 봉사하고 북돋아 주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십시오. 가족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에 꿈꾸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십시오."("우리 앞에 놓인 필요 사항",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27쪽)

또한 『계시를 받은 배경』, "네 가족을 특별히 돌볼지어다"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27:2~4

주님은 내 기쁨과 슬픔을 아신다.

1842년 8월, 조셉 스미스는 거짓 고소와 검거의 위협으로 다시 피신 생활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가 이 시기에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현재 교리와 성약 127편) 낙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2~4절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개인적 시련과 맞서는 방법에 관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삶의 "깊은 물"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탱해 주시는지 기록해 본다.

교리와 성약 127:5~8; 128:1~8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록하면 하늘에서도 기록될 것이요"

교리와 성약 127편 5~8절과 128편 1~8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내역을 기록하는 것에 관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셨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28:5~25

조상의 구원은 나의 구원에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를 통해 밝히신 내용을 보면, 이생에서 침례받지 못한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구원은 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것"일까?(교리와 성약 128:15~18; 강조체 추가)

5절은 주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을 "예비"하셨다고 가르친다. 이 진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말씀인 "하나님 가족의 집합"에서는 또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가?(『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9~22쪽)

조셉 스미스는 죽은 자를 위한 신권 의식과 침례를 가르칠 때, "매는 권능", "굳게 매는 연결", "완전한 연합"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교리와 성약 128편 5~25절을 읽을 때, 이 문구들과 이와 비슷한 다른 문구들을 찾아본다. 죽은 자를 위한 신권 의식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묶일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담한"이라는 말이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단어인 이유는 무엇인가?(9~11절 참조)

19~25절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의 말에서 여러분이 인상 깊게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 이 구절들을 읽으면, 조상을 위한 성전 봉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FamilySearch.org/discovery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음을 참조한다. 고린도전서 15:29; 데일 지 렌런드,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 인봉과 치유",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46~49쪽; 동영상 "시간을 희생함"과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과 묶여 있습니다", ChurchofJesusChrist.org.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26편. 가족들은 브리검 영에게 주어진 이 권고를 읽고 나서 서로를 "특별히 돌"보기 위해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3절)

교리와 성약 128:15~18. 가족 역사 사업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축복과 온전함을 이루는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동영상 "가족 역사를 통해 주어진 약속된 축복"(ChurchofJesusChrist.org)이나 "지금 나는요"(『어린이 노래책』, 100쪽)처럼 가족 역사에 관한 노래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28:18. 가족들과 종이로 사슬을 만들고 각 사슬에 가족과 조상의 이름을 적음으로써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이 어떻게 우리와 조상을 결속하는 "굳게 매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는지 나타내 본다. FamilySearch.org에서 더 많은 가족을 찾아보고, 여러분의 사슬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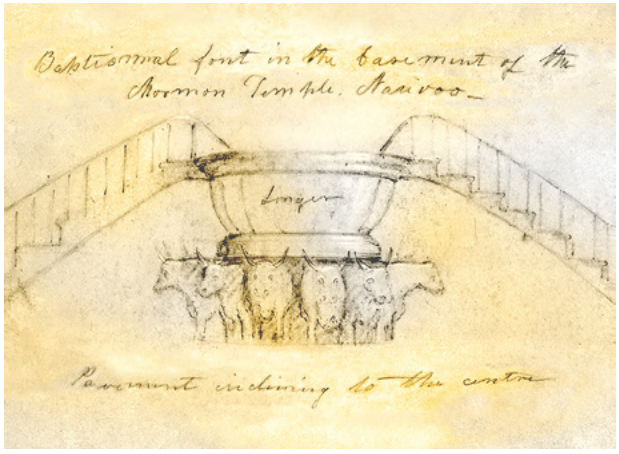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128:19~23. 조셉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죽은 자의 구속에 대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보여 주는 단어를 가족과 함께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족들이 이 사업을 하며 기쁨을 느꼈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거나 FamilySearch.org/discovery에서 그런 경험을 찾아볼 수 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지금 나는요", 『어린이 노래책』, 100쪽.

회복의 소리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교리"



이 구상도는 열두 마리의 황소가 떠받치는 나부 성전의 침례반을 보여 준다.

피비 우드럽과 윌포드 우드럽

조셉 스미스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해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피비 우드럽은 나부 근처에 살고 있었다. 피비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남편 윌포드에게 편지로 이 소식을 전했다.

"조셉 형제님은 … 교회 회원들이 이 복음을 들을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친척들, 곧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숙모를 대신하여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시로 알게 되셨어요. 회원들이 그들을 위해 침례를 받으면 그들은 즉시 영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또, 회원들은 부활이 일어날 때 그들을 데려와 해의 왕국으로 데려갈 수 있대요. 교회는 이 교리를 정중히 받아들였고, 회원들은 무리를 지어서 침례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하루에 열여섯 번이나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1]

윌포드 우드럽은 후에 이 원리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영혼이 기쁨으로 일렁였습니다. … 저도 가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돌아가신 친척을 위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알리는 계시가 주어졌을 때,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축복 속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2]

빌리트 킴볼

우드럽 자매와 마찬가지로, 빌리트 킴볼도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해 알게 되었을 당시 남편 히버가 멀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스미스 회장님이 최근에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교리 한 가지를 소개하셨는데, 교회 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그것에 대해 말했어요. 스미스 회장님은 계시를 통해 그 주제에 대해 더욱 완전에 가까운 설명을 받으셨어요. …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 세상을 떠난 모든 친족을 위해 침례받는 것은 이 교회 회원들의 특권이에요. 심지어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도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대리인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첫째 부활에 나아올 특권을 드리는 거예요. 회장님 말씀으로는, 그분들은 복음은 배워도 … 영으로서 침례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해요. … 이 지침이 발표된 후로, 여기서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회 중에는 한 번에 여덟 명에서 열 명 정도의 장로들이 강에서 침례를 줄 때도 있었어요. … 저는 어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고 싶어요.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회장님이 이 주제로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친구들을 속박에서 구해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도 가려고요. 이웃들도 많이 가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벌써 침례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걸 당신도 아시겠죠? 정말 영광스러운 교리예요."[3]

피비 체이스

나부 성전에 침례반이 완성되자,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강 대신 침례반에서 집행되었다. 나부 주민인 피비 체이스는 어머니에게 편지로 성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침례반은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저는 이 침례반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모든 사망한 친구들을 위해 침례를 받았어요. …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의 성함을 알려 주세요. 제 소망은 돌아가신 분들을 해방하는 거예요. …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고대의 반차를 회복하셨어요."[4]

샐리 랜들

친구들과 가족에게 편지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해 전하던 샐리 랜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 조지를 떠올렸다.

"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아이를 위해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의 충만함을 믿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아는, 세상을 떠난 모든 친구를 위해 침례받고 그들을 구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돌아가신 일가친척분들의 성함을 모두 적어서 보내 주세요. 적어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성함은 꼭 보내 주세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생각이에요. 누구든 오셔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거든요. … 이 교리가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5]

주

1. Phebe Woodruff letter to Wilford Woodruff, Oct. 6, 1840,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spelling and punctuation modernized.
2. Wilford Woodruff, "Remarks," *Deseret News,* May 27, 1857, 91; punctuation modernized.
3. Vilate Kimball letter to Heber C. Kimball, Oct. 11, 1840,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spelling and punctuation modernized.
4. Phebe Chase letter, undated,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spelling and punctuation modernized. 처음에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시작했을 때는 조상들의 성별과 상관 없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이후에 남성은 남성을 위해, 여성은 여성을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계시가 주어졌다.
5. Sally Randall letter, Apr. 21, 1844,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spelling and punctuation modernized.

열두 마리의 황소가 떠받치는 유타 옥든 성전의 침례반.

나부의 조셉 스미스, 1840년, 시어도어 고카

11월 8일~14일

교리와 성약 129~132편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129~132편에는 귀중한 원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개요는 그중 일부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 외에 또 어떤 진리들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가?

느낌을 기록한다

브리검 영은 조셉 스미스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천국에 관한 것들을 유한한 인간이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99~500쪽) 이 점은 선지자가 1840년에 나부에서 전한 가르침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교리와 성약 129~132편에는 그 가르침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 구주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 하늘은 어떤 곳인가?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귐이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0:1~2) 또한 올바른 권세로 인봉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 관계가 다음 세상에서도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2:19) 이와 같은 진리를 알면 하늘은 그리 멀지 않아 보이며, 영광스러우면서도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때로 너무 거북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실 때가 있다. 다수의 초기 성도들에게는 복수결혼이 그런 일이었다. 여러 아내를 두라는 계명은 조셉 스미스와 그의 아내 에머, 그리고 그 명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혹독한 신앙의 시험이었다. 회복된 복음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만으로는 이 시험을 이겨 낼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떤 개인적 소망이나 편견보다 훨씬 더 굳건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했다. 오늘날에는 이 계명이 유효하지 않지만, 그에 따라 생활했던 사람들의 충실한 모범은 지금도 살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 희생"하도록 요청받을 때 그들이 보였던 모범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준다.(교리와 성약 132:50)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30~131편

조셉 스미스는 신회와 "장차 올 세상"에 관한 진리를 밝혔다.

여러분은 130~131편이 교리와 성약의 다른 편과 조금 다르게 쓰였다는 점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는 130~131편은 조셉 스미스의 서기 중 한 명이던 윌리엄 클레이튼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고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편은 구술한 계시를 한 번에 받아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진리를 모아 놓은 것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긴 많은 진리에는 몇 가지 일관된 주제가 있다. 예를 들어, 130~131편을 읽을 때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필멸 이후의 삶에 관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러한 지식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계시를 받은 배경』,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기쁨으로 뛰게 했다네"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31:1~4; 132:7, 13~25

하나님 아버지는 가족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하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진리 중 가장 큰 위안을 주는 것은 결혼과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러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데 필요한 의식과 권세를 회복하셨다.(교리와 성약 132:7, 18~19 참조) 교리와 성약 131편 1~4절과 132편 7, 13~15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현재 가족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가족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러나 영원한 가족의 원리가 그리 위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재 가족이 처한 상황이 해의 왕국의 이상과 맞지 않을 때는 불안감과 슬픔까지도 느낄 수 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자기 가정의 그런 상황 때문에 고민하던 중 십이사도 정원회의 한 장로에게서 다음과 같은 현명한 조언을 받았다. "그저 해의 왕국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형제님 가족의 상황은 형제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변화할 것입니다."("주님의 영이 거하는 가정",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25쪽) 이러한 권고를 따른다면 현재 여러분의 가정 상황에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가족 관계는 성전 의식을 통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32:1~2, 29~40

복수결혼은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실 때만 그분께 받아들여진다.

구약전서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여러 아내를 두었던 아브라함, 야곱, 모세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이 선한 사람들이 간음을 저질렀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일까? 교리와 성약 132편 1~2, 29~40절에서 답을 찾아본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결혼에 대한 주님의 표준이다.(공식선언—1 머리말; 또한 야곱서 2:27, 30 참조)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수결혼을 시행하도록 명하신 시기가 있었다.

회복된 교회의 초창기가 그렇게 예외적인 기간 중 하나였다. 조셉 스미스와 일부 후기 성도들은 이 명을 받은 후에 복수결혼을 시행했다. 초기 후기 성도들이 시행했던 복수결혼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한다. "머시 톰슨과 결혼에 대한 계시"(『계시를 받은 배경』); 『성도들』 제1권, 290~292, 432~435, 482~492, 502~504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수결혼"(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30:2, 18~19; 132:13, 19. 어떻게 이 성구들을 활용하여 가족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을 우선시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130편 2, 18~19절과 132편 19절을 바탕으로, 가족사진 혹은 경전처럼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여행 가방이나 배낭을 함께 꾸려 볼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132편 13절에서는 세상의 것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 구절을 읽은 후,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주제로 토론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30:20~21.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찬송가』, 142장)와 같이 감사에 관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받은 축복을 목록으로 작성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축복들을 소망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131:1~4; 132:15~19. 주님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현재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결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가족은 영원해"(『어린이 노래책』, 98쪽)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복음 진리를 찾아본다. 복음 진리는 직접적으로 언급될 때도 있고, 예시나 일화를 통해 함축적으로 암시될 때도 있다. 경전을 읽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본다.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영원한 진리는 무엇인가?"

프랑스 파리 성전 인봉실

신랑이로다, 엘리자베스 기븐스

11월 15일~21일

교리와 성약 133~134편

"너희는 신랑이 올 때를 위하여 예비하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 복음의 회복은 어느 겸손한 가정에서 한 가지 질문을 겸손히 숙고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주님의 영이 거하는 가정",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25쪽)

느낌을 기록한다

교회가 세워진 지 19개월이 되어 갈 무렵,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후기의 계시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몰몬경 초판의 두 배 분량인 만 권을 발행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높은 비용 문제로 차질을 빚었으며, 인쇄가 진행되던 중에는 폭도들이 교회의 인쇄소를 공격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폭도들은 제본되지 않은 낱장을 사방에 흩뿌렸고 용감한 성도들이 그 일부를 지켜 냈으나, 계명의 책은 단 한 권도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우리에게 교리와 성약의 133편으로 알려진 부분은 마치 주님의 계시를 모아 출판한 책의 대미를 장식하는 느낌표처럼 계명의 책의 부록이 될 예정이었다. 133편은 심판의 날이 도래했음을 경고하며 현대의 계시 전반에 등장하는 요청을 반복한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속성에서 벗어나 시온을 세우며, 재림을 준비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것이다.(37절) 계명의 책이 원래 계획대로 편찬되지는 못했지만, 이 계시는 주님의 사업이 좌절될 수 없음을 일깨우고, 또 증거한다. 이는 "그가 … 그의 거룩한 팔을 드러낼 것임이[며], 모든 땅 끝이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3절)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33편

나는 교리와 성약에 담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될 수 있다.

책의 말미에는 그 책의 요점을 다시 강조하거나 요약하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133편은 원래 계명의 책의 결말로서 수록될 예정이었으므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들을 강조하시는가? 57~62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려는 역할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33:1~19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재림에 대비하기를 바라신다.

교리와 성약을 위한 주님의 서문인 1편과 이 책의 부록이었던 133편은 모두 다음과 같은 주님의 간청으로 시작한다.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백성들아."(교리와 성약 1:1; 133:1) 여기서 들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경전 안내서, "귀를 기울이다",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교리와 성약 133편 1~19절에는 주께서 여러분이 듣기를 바라시는 어떤 권유 혹은 명령이 나오는가? 여러분은 그분의 재림을 위해 더욱 잘 준비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이 준비되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하겠는가?

또한 마태복음 25:1~3과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함",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81~84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33:19~56

재림은 의로운 자에게 기쁜 일이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133편 19~32절에서 구주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사건에 대해 읽으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묘사한 내용들이 구주와 그분의 사업에 관해 시사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묘사된 부분에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가?

구주의 재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32~5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그 위대한 날을 고대하게 하는 어떤 내용들을 찾았는가?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나 문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주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선하심을 따라 … 그가 [여러분]에게 베푼 모든 것"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해 볼 수도 있다.(52절)

교리와 성약 134편

"정부[는]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이다.

초기 성도들과 정부의 관계는 복잡했다. 성도들은 1833년에 미주리주 잭슨군에서 추방당했는데, 그때 그들은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어떤 지원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교회 회원이 아닌 이들 중 일부는 시온에 관한 가르침을 성도들이 지상에 세워진 정부의 권위를 거부하도록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교리와 성약 134편이 쓰인 것은 정부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려는 목적도 있었다.

교회의 회원들은 정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134편을 공부하면서, 정부에 대해 알게 된 원리들과 시민의 책임에 대해 알게 된 원리들을 각각 목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원리들은 초기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한 신앙개조 제11~12조와 복음 주제, "종교의 자유", topic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33:4~14. 시온과 영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은 바벨론으로, 이 고대 도시는 경전 전반에서 사악함과 영적 속박을 상징한다.(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시온에 오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37쪽; 경전 안내서, "바벨, 바벨론",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여러분의 가족은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에서 나가"(5절), "시온[으로] … 나아가"기 위해(9절) 해야 할 일이 있는가?

교리와 성약 133:20~33. 가족과 함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장차 임할 재림의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 볼 수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어린이 노래책』, 46~47쪽)처럼 재림에 관한 노래를 연주하거나 부르고, 여러분의 가족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이야기해 본다.

교리와 성약 133:37~39. 가족과 함께 이 구절들을 "큰 소리로" 읽어 보면 어떨까?(38절)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어떤 진리를 나눌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134:1~2. 가족들이 정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질문을 토론해 볼 수 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누리는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기를 만들거나 국기 그림에 색칠을 하거나 신앙개조 11조와 12조를 암기해 볼 수도 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명확하고 간결한 교리를 가르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분명[함]"과 "간결[함]" 등의 단어로 설명하셨다.(교리와 성약 133:57) 이 단어들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시사해 주는가?

붉은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 미네르바 타이허트

카테지 감옥

11월 22일~28일

교리와 성약 135~136편

그는 "자기의 사명과 일을 자신의 피로 인봉하였고"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 135~136편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읽은 것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 그럴 때, 그분이 주신 가르침을 기록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1844년 6월 27일 오후,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다시 한번 수감되었다. 이번에는 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차즈도 함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 죄가 없다고 믿었지만, 나부 성도들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순순히 체포되었다. 교회의 적들이 선지자 조셉을 감옥에 가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조셉은 이번에는 자신이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음을 아는 듯했다. 조셉과 친구들은 몰몬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며 서로 위로하려 애썼다. 그러다 총성이 들려 왔다. 그리고 몇 분 후,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은 필멸의 삶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들이 가슴에 품었던 거룩한 대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었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계시가 더 남아 있었다. 선지자를 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까지 멸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성도들』 제1권, 521~552쪽을 참조한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35편; 136:37~39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피로써 그들의 간증을 인봉했다.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가 살해되었을 당시 여러분이 나부에 살고 있었다면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본다.(『성도들』 제1권, 554~555쪽 참조) 여러분이라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을 것 같은가? 당시, 그들의 순교 이후 석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발표되었던 교리와 성약 135편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확신을 주었을 만한 단어와 문구에 표시해 본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는가?

또한 다음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5:21~22; 6:29~30; 『계시를 받은 배경』, "순교를 기리며";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522~523쪽, 529~540쪽; 엠 러셀 밸라드,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8~11쪽.

교리와 성약 135:3

조셉 스미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았던 축복들을 생각해 본다. 그중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사명을 완수한 결과로 받은 축복은 몇 가지나 되는가? 교리와 성약 135편 3절에는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 이후 24년 동안 이룩한 위대한 업적의 일부가 나열되어 있다. 그 덕분에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기록해 본다. 여러분의 간증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

교리와 성약 136편

주님은 나에게 삶의 "여행"에 관하여 권고하신다.

성도들은 나부에서 쫓겨난 뒤 솔트레이크밸리를 향해 긴 여행을 떠나야 했다. 처음 수백 킬로미터의 여정은 더디고 비참했다. 이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서 교회를 이끌던 브리검 영은 성도들이 남은 여정을 어떻게 견딜지 걱정이었다. 그는 윈터쿼터스라고 하는 임시 정착지를 세우고 간절히 인도를 구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지금의 교리와 성약 136편을 계시로 주셨다. 성도들은 이 계시를 통해 무엇보다 "여행 중의 행실이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감행해야 했던 이 애처로운 서부 이주 여행을 뜻깊은 공동의 영적 경험으로 만"들 수 있었다.("이것이 우리의 성약이 되리니", 『계시를 받은 배경』)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136편을 공부한다. 136편에는 여러분 삶의 힘든 시련을 "뜻깊[고] … 영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어떤 권고가 나오는가? 초기 성도들은 그 권고 덕분에 서부를 향해 힘든 여정을 이어 갈 수 있었다. 여러분이 삶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이 권고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본다.

또한 『계시를 받은 배경』, "이것이 우리의 성약이 되리니"와 교회 역사 주제, "교회 지도자 승계", 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를 참조한다.

윈터쿼터스, 그레그 올슨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35:1, 3. 조셉 스미스가 "자기의 사명과 일을 자신의 피로 인봉하였"다는 말의 의미를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전한 "영혼의 안전"을 참고한다.(『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8~90쪽) 이 구절의 어떤 점이 감명 깊게 느껴지는가? 우리는 비록 목숨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간증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135:3.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말의 의미를 토론해 보기 위해 올해 가족들이 조셉 스미스에 관해 배운 것을 복습해 볼 수 있다. 본 자료에 수록된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여 그들이 배운 것을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고,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나 가르침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왜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주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일에 감사하는가? 또한, 동영상 "조셉 스미스: 회복의 선지자"를 시청할 수도 있다.(ChurchofJesusChrist.org)

교리와 성약 136편. 주님께서 136편을 주셨을 때, 성도들은 브리검 영이 이끌 멀고도 험한 여정을 앞두고 있었다.(『교리와 성약 이야기』 206~208, 211~216, 222~224쪽의 제58장, 제60장, 제62장 참조) 136편을 함께 읽을 때, 가족들이 겪게 될 법한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본다. 이 계시에서 주님의 도움과 권능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권고는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136:4. "주의 모든 의식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받은 의식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개인 학습을 위한 도움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 엠 러셀 밸라드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63쪽) 경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부분을 적거나 표시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케이시 차일즈

조셉이 해의 왕국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을 만나다(조셉 스미스가 본 해의 왕국의 시현, 로버트 배럿)

11월 29일~12월 5일

교리와 성약 137~138편

"죽은 자의 구속의 시현"

엠 러셀 밸라드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저는 여러분이 … [교리와 성약 138편]을 꼼꼼히 다시 읽어 보기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구원과 행복의 계획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3쪽)

느낌을 기록한다

교리와 성약 137편과 138편의 계시들은 시간상으로는 80년, 공간상으로는 2,400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기록되었다. 137편은 1836년에 조셉 스미스가 미완성 상태이던 커틀랜드 성전에서 받은 것이고, 138편은 1918년에 교회의 제6대 회장인 조셉 에프 스미스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받은 것이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이 두 시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시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세에서 맞이할 운명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또한 계시를 받은 두 선지자들이 인생에서 겪은 경험을 생각해 보면, 두 시현의 의미는 더욱 더 깊어진다.

이 시현을 통해 조셉 스미스는 침례를 베풀 권세가 회복되기 6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사랑하는 형 앨빈의 영원한 운명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앨빈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의문들은 조셉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가 받은 시현에는 영의 세계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리가 드러나 있었다. 많은 가까운 가족을 잃고 비탄에 잠겼던 조셉에게 그것은 확실히 위안이 되는 계시였을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다섯 살에 아버지 하이럼 스미스를 여의고, 열세 살에 어머니 메리 필딩 스미스를 여의었다. 1918년에 시현을 받았을 때는 이미 열세 명의 자녀를 떠나 보낸 뒤였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이 계시에서 얻을 수 있다. 137편에는 그런 의문에 대한 초기적 통찰이 담겨 있으며, 138편에는 더욱 위대하고 포괄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 이 두 편의 계시는 모두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내 보이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증거한다.(교리와 성약 138:3)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37편

모든 영혼은 해의 영광을 선택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1836년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조셉 스미스의 형인 앨빈처럼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셉은 해의 왕국의 시현에서 앨빈을 보았다. 137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해의 왕국에 관해 배운 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

또한 『성도들』 제1권, 232~235쪽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38:1~11, 25~30

경전을 읽고 상고하면 계시를 받도록 준비될 수 있다.

때로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계시가 오기도 한다. 그러나 계시는 부지런히 찾고 얻고자 준비할 때 오는 경우가 더 많다. 교리와 성약 138편 1~11, 25~30절을 읽으면서, 조셉 에프 스미스는 무엇을 하여 "이해의 눈이 열"리고 구주의 구속 사명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 찾아본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스미스 회장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경전을 깊이 생각하"고 "[구주께서] 치르신 위대한 속죄의 희생"을 더욱 숙고하기 위해(1~2절) 여러분은 경전 공부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엠 러셀 밸라드 회장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1~74쪽)이라는 말씀에서 스미스 회장이 그 외에 또 어떤 방법으로 이 계시를 받도록 준비될 수 있었는지를 언급했다. 여러분은 현재, 또는 앞으로의 경험을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 생각해 본다.

또한 동영상 "조셉 에프 스미스의 성역: 죽은 자의 구속에 대한 시현", 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 앨버트 이 샐즈브레너

교리와 성약 138:25~60

구원 사업은 휘장의 양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진실합니다. 우리는 휘장 양편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주께 나아와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느끼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권유합니다."("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18~119쪽) 교리와 성약 138편 25~60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 또한,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 구절들은 영의 세계에서 구원 사업이 성취되는 방법에 관해 무엇을 알려 주는가?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가? 이 구절은 구주의 속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 이 구절에서 영의 세계에서 구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 관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구원 사업이 휘장 양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또한 댈린 에이치 옥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리아호나』, 2019년 11월호, 26~29쪽과 『계시를 받은 배경』, "수사 영 게이츠와 죽은 자의 구속에 대한 시현"을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137:1~5. 가족들에게 이 구절에 근거하여 각자 생각하는 해의 왕국의 모습을 그려 보자고 한다. 이 구절의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이 그곳에서 살 날을 고대하게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의 왕국에서 살도록 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리와 성약 137:5~10. 가족 몇 사람이 해의 왕국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조셉 스미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알아보기 위해 동영상 "조셉 스미스의 성역: 성전"을 가족과 함께 시청한다.(ChurchofJesusChrist.org)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 침례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에 관해 이야기할 수도 있다. 교리와 성약 137편 5~10절에는 그런 사람과 관련된 어떤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가?

교리와 성약 138:12~24. 교리와 성약 138편 12~24절에는 구주께서 영의 세계에서 방문하신 사람들에 관한 어떤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들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교리와 성약 138:38~55. 이 구절에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영의 세계에서 본 사람들에 대한 묘사와 그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온다. 가족과 함께 영의 세계에 있는 조상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들의 삶에 관한 설명을 곁들여 기록한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경전 상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어린이 노래책』, 66쪽.

더 나은 학습을 위하여

경전을 상고한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명상은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문의 하나로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주님의 면전에 이르게 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03], 32쪽)

위임받은 자, 해롤드 아이 홉킨슨.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영들에게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가르치도록 임무를 맡기셨다.

합당한 모든 남성 회원에게, 에머 앨러비스

12월 6일~12일

신앙개조 및 공식선언—1, 2

"우리는 … 믿는다"

신앙개조와 공식선언—1, 2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계시들이 교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본다. 이 기록들에 담긴 진리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가?

느낌을 기록한다 ____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을 본 뒤로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내려 주셨다.(교리와 성약 42:61) 또한, 그분은 어떤 경우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가 원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자녀들의 상태에 따라" 교회의 정책과 관행을 변경하도록 계시를 통해 지시하셨다.(교리와 성약 46:15) 공식선언—1과 2에는 그런 종류의 계시가 담겨 있다. 한 계시는 복수결혼을 종식했고, 다른 한 계시는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성전 축복을 포함하여 신권 축복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었다. 우리는 참되고 살아 있는 선지자가 이끄는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가 있기에 이러한 변화를 맞이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기본이 되는 영원한 진리들이 그렇다. 때로 이러한 진리에 관한 더 많은 통찰을 주어 우리가 그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목적으로 계시가 주어지기도 한다. 조셉 스미스가 후기 성도들의 믿음을 열세 개의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한 신앙개조는 그와 같이 명확하게 밝히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종류의 계시 모두 교회를 인도하고 축복한다. 이 교회는 영원한 진리에 확고한 기반을 두는 동시에 성도들이 오늘날의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력을 높이실 때 성장하고 변화할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9조)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신앙개조

신앙개조는 회복된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신앙개조를 공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앙개조의 각 절에 나오는 진리를 나열한 후, 그 진리와 관련된 성구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성구들은 신앙개조에 담긴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또한 경전 안내서, "신앙개조",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와 엘 톰 페리, "신앙개조에 담긴 교리와 원리",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46~48쪽, 그리고 "38장: 웬트워스 서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35~437쪽을 참조한다.

신앙개조 제9조; 공식선언—1, 2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계시로 인도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9조) 그것이 교회 정책과 관행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그렇다. 이 원리를 염두에 두고 공식선언—1과 2를 살펴보면서, 계속되는 계시에 대한 신앙을 강화해 주는 단어와 문구를 찾아본다. 주님의 선지자에게 계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예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계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왕국의 사업은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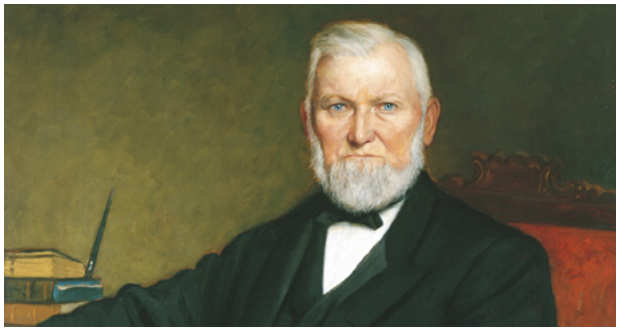
또한 아모스 3:7과 니파이후서 28:30을 참조한다.

공식선언—1

하나님의 사업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지자는 "성명서에 관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세 가지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공식선언—1의 끝부분에 나옴)에서 주님께서 복수결혼을 중단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관하여 무엇을 알려 주는가?

공식선언—1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사자와 성명서"(『계시를 받은 배경』)와 "초기 유타에서의 복수결혼과 가족"(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을 참조한다.



윌포드 우드럽, 에이치 이 피터슨

공식선언—2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경전은 주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친다.(잠언 3:5 참조) 많은 아프리카계 교회 회원들은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신권 성임과 성전 의식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도 주님을 신뢰했다. 그들은 이런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고, 당시 주어진 설명에 상처받는 일도 많았다.(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설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충실한 아프리카계 회원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평생토록 충실히 생활했다. 공식선언—2를 읽으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다.

교회 흑인 회원들의 신앙에 대해 배우면, 여러분은 힘과 용기를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그들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읽을 수 있다.

- "제인 엘리자베스 매닝 제임스"(교회 역사 주제)

또한 『계시를 받은 배경』, "충실함을 보고서"와 복음 주제, "인종과 신권", topic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신앙개조. 가족이 함께 신앙개조를 주제로 "짧은 공과"를 만들 방법을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가족들은 한 주 동안 한 구절씩 신앙개조를 선택하여 그것과 관련된 성구, 그림, 찬송가, 또는 어린이 노래를 찾거나 각자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또는, 서로 돌아가면서 교회와 우리의 믿음에 관해 질문하고, 신앙개조의 한 조항으로 답해 볼 수도 있다.

공식선언—1, 2. 공식선언—1과 2는 현대에 교회에 주어지는 계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들과 함께 공식선언을 읽으면서, 선지자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도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공식선언—1) 이 두 선언문은 당신의 교회를 직접 인도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강화해 주는가?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에 앞서 언급된 몇 가지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계명을 지키라", 『어린이 노래책』, 68~69쪽.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하여

실천하도록 권유한 것을 차후에 확인한다. "실천하도록 권유한 것을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염려하고 있음과, 복음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면 그들이 경험을 나누도록 기회를 주게 된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35쪽)

신앙개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2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4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5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을 믿는다.

6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을 믿는다.

7 우리는 방언, 예언, 계시, 시현, 병 고침, 방언의 통역 등의 은사를 믿는다.

8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9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10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과, 시온(새 예루살렘)이 미 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11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

12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13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조셉 스미스

12월 13일~19일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가족은 창조주께서 …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

댈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가족 선언문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활용하는가가 바로 이 세대에게 주어진 시험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들이 그 시험에서 굳건하길 기도합니다."("구원의 계획과 가족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31쪽) 이번 주에 가족 선언문을 공부하면서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본다.

느낌을 기록한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한 가족에 속해 있었다. 이는 우리의 하늘 부모님의 가족을 의미한다. 그분들의 면전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지상에서도 가족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가 되라는 것을 알고 큰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 지상에서의 방식은 하늘의 완전한 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지상의 가정이 이상적으로 유지되고 제대로 기능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가르친 다음 말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느꼈던 사랑을 지상에서 가장 비슷하게 느끼게 해 주는 유일한 곳으로서 부모의 사랑으로 환영받으며 지상으로 오게 되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하나님 가족의 집합",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20쪽) 가족은 불완전하며 대적이 퍼부을 공격의 대상이 되리라는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 또한 그분은 가족 선언문과 함께 후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가정을 방어하고 강화하게 하셨다. 우리가 선지자를 따르고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설사 지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 거룩한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상과 하늘에 우리의 가정에 대한 희망이 있다.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가족은 창조주께서 …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분명히 가족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가족 선언문을 공부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 전세, 현세, 내세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가족 선언문을 공부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것은 결혼과 가족이 하나님의 계획에 필수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또한 댈린 에이치 옥스, "구원의 계획과 가족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28~31쪽을 참조한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가족 선언문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단락을 "가족 생활의 행복"을 위한 본보기로 삼는다. 이 두 단락을 읽으면서,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으로 이끄는 원리들을 찾아본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강화하고 싶은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의 노력에 구주께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리차드 제이 메인즈,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정을 세우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37~39쪽을 참조한다.

나는 내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 선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고를 따르는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 권고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나온다. 여러분이 찾은 축복과 경고를 목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가족 선언문에 담긴 하나님의 권고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또한 앨마서 5:15~22, 교리와 성약 42:22~25, 93:39~44을 참조한다.

부모는 사랑과 의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이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는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기본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여 현실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은 분들의 희생과 성공을 간과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모든 사람은 은사와 재능이 있으며 각 세대에 신성한 계획이 펼쳐지도록 공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과 필수적인 것, 때로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분께 향하는 이들이 박탈당하고 상실할 모든 것을 예측했으며, 종국에는 그 모든 것을 보상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가지신 것보다 적게 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52쪽)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성별과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에 관한 교리를 토론하는 것이 가족에게 유익할 것 같다면, 다음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댈린 에이치 옥스, "진리와 계획",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25~28쪽; 복음 주제,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종이를 세 칸으로 나누고 각 칸에 전세, 현세, 내세라고 적는다. 함께 선언문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세 부분에 관해 알게 된 점을 종이에 적는다. 하나님께 가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은] 영원히 하나로 결속[될 수 있다.]" 동영상 "구원의 계획 –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잖아요"를 시청할 수 있다.(ChurchofJesusChrist.org) 동영상에 나오는 청남이 깨달음을 얻고 신앙을 키우는 계기가 된 진리들을 가족 선언문에서 찾아본다.

"가족 생활의 행복."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 생활의 행복"을 더 많이 찾을 방법을 토론하기 위해 "사랑 넘치는 우리 집"(『찬송가』, 166장)처럼 가족에 관한 노래를 한 곡 부를 수 있다. 이 노래와 가족 선언문에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어떤 가르침이 나오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가족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가르침을 한 가지 고른다.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 강화"한다. 사탄은 이 세상의 가족들을 약화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가 전한 "가족 선언문의 수호자"를 참조한다.(『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4~17쪽)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사랑 넘치는 우리 집", 『찬송가』, 166장.

개인 학습을 위한 도움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 엠 러셀 밸라드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59쪽) 가족 선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 중 여러분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부분을 기록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가 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말씀의 일부로 낭독한 것이다.

예수 탄생, 동판에 갈색 안료, 제이 커크 리치즈

12월 20일~26일

성탄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비길 데 없는 선물

이번 성탄절에 구주께 생각을 집중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 개요에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복음을 공부할 때, 이 선지자들의 간증을 활용할 몇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느낌을 기록한다

1838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9쪽) 세월이 지난 후,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바로 선지자의 이 말씀이 동기가 되어, 15명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주님의 탄생 2000주년을 맞이하여 자신들의 간증을 공표하고 서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간증의 제목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담긴 진리를 암기하신 회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한다면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40쪽)

후기 성도인 우리는 현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계시를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권고와 경고, 격려가 담긴 그들의 영감 어린 말씀에 감사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강한 간증은 성탄절만이 아니라 연중 어느 때에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 이는 그저 숙련된 작가나 연설가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나 경전에 해박한 전문가의 통찰 그 이상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권세를 주신,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들의 간증이다.(교리와 성약 107:23)

개인 경전 공부를 위한 아이디어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11절과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단락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말을 어떤 말로 뒷받침하겠는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서 구주의 심오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진리를 찾아본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셨으며 어떻게 "큰 기쁨"을 주셨는가?(누가복음 2:10)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출현하신 세 차례의 사건을 언급하며 구주의 부활을 간증한다.(다섯 번째 단락 참조) 그 세 차례의 방문은 요한복음 20~21장, 제3니파이 11~26장, 조셉 스미스—역사 1:14~20에서 읽어 볼 수 있다. 구주께서 방문하셨을 때 보이신 말씀과 행동에서 우리는 그분의 어떤 면모를 알 수 있는가?

"그분의 신권과 교회가 … 회복되었으며."

여러분은 올해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면서, 구주의 "신권과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배웠다. 회복된 진리나 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특히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회복에 관한 가르침이 담긴 다음 성구들을 복습해 본다. 교리와 성약 1:17~23; 13편; 20:1~12; 65편; 110편; 112:30~32; 124:39~42; 128:19~21. 회복된 복음에 관한 진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교리와 성약 93:19 참조)

"그분이 언젠가 지상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시간이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그분의 재림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나 "그 맑고 환한 밤중에"(『찬송가』, 130장, 132장)처럼 재림에 관한 성탄절 찬송가를 읽거나, 부르거나, 들어 보면 좋을 것이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단락에서 구주의 속성과 그분을 가리키는 말들을 잘 살펴본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지 상고하는 데 도움이 될 성구들은 다음과 같다. 누가복음 2:25~32; 고린도전서 15:19~23; 모로나이서 7:41; 교리와 성약 50:24; 84:44~46; 93:7~10.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빛과 생명, 소망이 되어 주시는가? 구주의 속성이나 그분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의미 있게 느끼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공부하면서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과 사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세상의 빛, 하워드 리온

가족 경전 공부 및 가정의 밤을 위한 아이디어

"살아 계신 그리스도." 가족들이 함께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나오는 구주에 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개의 핵심 문구를 골라서 그 문구의 내용이 담긴 그림을 찾거나 그려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그 그림과 문구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본다.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서 간증드린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기록해 볼 수 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여러분의 가족은 이번 성탄절에 구주께서 보이신 봉사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평화와 선의"를 전하겠는가? 또한, 어떻게 "병자[에게] 치유"를 줄 수 있을까? 복음 자료실 앱이나 웹사이트에(media-library.ChurchofJesusChrist.org) 있는 성탄절 동영상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고, 구주께서 주신 선물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선물로 포장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은 성탄절이나 주중에 그 선물들을 풀어 보고 각 선물과 관련된 경전 구절을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성구를 포함해 여러 다른 성구를 함께 찾아본다. 누가복음 2:10~14; 베드로전서 2:21; 모사이야서 3:8; 앨마서 11:42~43; 교리와 성약 18:10~12. 구주께서 주시는 다른 선물들을 찾아보기 위해 "아들 보내셨네"(『어린이 노래책』, 20~21쪽)처럼 구주에 관한 노래를 한 곡 부를 수도 있다.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초등회』 교재의 이번 주 학습 개요를 참고한다.

추천곡: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가』, 133장.

개인 학습 향상을 위한 도움말

구주께 집중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읽는다면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몰몬경의 선지자들이 남긴 간증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구주에 대한 신앙이 자랄 것이며, … 구주께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엠 러셀 밸라드, "돌아가서 받으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65쪽)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재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였고 신약의 메시야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3)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사도행전 10:38)셨고 오히려 그 때문에 멸시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평화와 선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이신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병자를 치유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에 관한 진리와 전세의 실재와 지상 생활의 목적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무고한 혐의로 정죄받고 폭도들의 원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지상에 살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갈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린도전서 15:20)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방문하셨으며,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그분의 "다른 양들"(요한복음 10:16)에게도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현대에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오래 전부터 약속된 "때가 찬 경륜"(에베소서 1:9)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격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교리와 성약 110:3~4)

이 선지자는 그분에 관해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76:22~24)

우리는 그분의 신권과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그분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에베소서 2:20)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젠가 지상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이사야 40:5)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경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임 받은 그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제일회장단

2000년 1월 1일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세상에 전하는 200주년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출생과, 비할 데 없는 생애와, 무한한 속죄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모범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200년 전 1820년 아름다운 봄날 아침,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고자 했던 어린 조셉 스미스는 미국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 숲속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는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에게 나타나셨으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만물[의] 회복"을(사도행전 3:21) 시작하셨다는 것을 겸손하게 선언한다. 이 시현을 통해서 그는 신약 시대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대 사도들이 사망한 뒤 지상에서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조셉은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하늘의 사자들이 조셉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의 지시 아래 지상에 왔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부활한 침례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행할 권세를 회복하였다. 초대 십이사도 중 세 사람—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도 직분과 신권 권세의 열쇠들을 회복하였다. 지상을 방문한 다른 사자들 중에는 엘리야도 있었다. 그는 가족이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결합해 주는 권세를 회복하였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고대의 기록, 즉 몰몬경—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을 번역했음을 증언한다. 이 성스러운 기록의 한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 서반구에 있는 백성들에게 친히 성역을 베푸신 기사가 실려 있다. 몰몬경은 삶의 목적에 대해 가르쳐 주고 그 목적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해 준다. 몰몬경은 성경과 짝을 이루는 경전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며, 그분께서 우리 삶에 대해 신성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우리는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된 것임을 선언한다. 이 교회는 그 머리된 모퉁잇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그분의 무한한 속죄와, 그분의 실제적인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사도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신권 권세를 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과 그분의 교회로 나아와 성신과 구원 의식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얻으라고 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이 시작된 지 200년이 흘렀다.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대에 예언되었던 이 일들이 참됨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이 약속된 회복이 지속적인 계시를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실]" 것이며(에베소서 1:10) 세상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도로서 하늘이 열려 있음을 모든 사람이—우리가 아는 것처럼—알도록 권유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한 자신의 뜻을 알려 주고 계심을 분명히 선언한다. 회복의 메시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신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목적은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증거를 축복으로 얻을 것임을 우리는 증언한다.

본 선언문은 2020년 4월 5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제190차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이 말씀의 일부로 낭독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KOREAN
4 02165 87320 6
16587 320